



무성서원의 역사적 위상과 활용방안

- 제2회 불우헌 정극인 학술대회 -

일시 : 2023. 11. 10(금) 10:00

장소 :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

·주최  정읍시·불우헌 정극인 선양회

·주관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무성서원의 역사적 위상과 활용방안

- 제 2회 불우헌 정극인 학술대회 -

일시 : 2023. 11. 10(금) 10:00

장소 :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

- 주최 : 정읍시·불우헌 정극인 선양회
- 주관 :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일정

일시 : 2023. 11. 10(금) 10:00 ~ 17:00

장소 :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

시간 계획		주요내용	비고
개회 및 기념식	10:00~10:30	◦【참석자 등록】	사회 문경득 (전주대)
	10:30~10:35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10:35~10:55	◦【개회사】 이학수(정읍시장) ◦【축 사】 윤준병(국회의원) ◦【축 사】 (동영상) : 정세균(전 국회의장) 정경희(국회의원) ◦【축 사】 박준호(전북대 인문대 학장) ◦【축 사】 정대준(불우헌 정극인 선양회 회장)	
	10:55~11:00	◦사진촬영, 무대정리 및 기조강연 준비	
오전 발표	11:00~11:30	◦【기조강연】 - 전라북도의 서원 · 사우의 현황과 무성서원의 위상 한문종(전북대)	
	11:30~12:00	1) 태산선비 문화권의 설정과 활성화 방안 박정민(전북대)	
	12:00~13:30	◦점심 식사	
오후 발표	13:30~14:00	2) 무성서원 일대 문화재 추진 전략 남해경(전북대)	사회 신병욱 (전북대)
	14:00~14:30	3) 불우헌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에 대한 소고(小考) 윤인현(인하대)	
	14:30~15:00	4) 채용신의 작품세계와 무성서원 유미나(원광대)	
	15:00~15:20	◦【휴 식 및 장내정리】	
종합 토론 및 마무리	15:20~17:00	◦【종합토론】 장충희(전북연구원), 문승현(문화유산국민신탁) 조동영(성균관 한림원), 강영주(문화재청)	좌장 이재운 (전주대)
	17:00~	◦【정리 및 폐회】	

목 차



기조 강연

- 01
전라북도의 서원 · 사우의 현황과 무성서원의 위상
한문종(전북대)

주제 발표

- 17
태산선비 문화권의 설정과 활성화 방안
박정민(전북대)

토론문 장충희(전북연구원) 41

주제 발표

- 47
무성서원 일대 문화재 추진 전략
남해경(전북대)

토론문 문승현(문화유산국민신탁) 69

주제 발표

- 73
불우헌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에 대한 소고(小考)
윤인현(인하대)

토론문 조동영(성균관 한림원) 95

주제 발표

- 101
채용신의 작품세계와 무성서원
유미나(원광대)

토론문 강영주(문화재청) 117

기조 강연

전라북도의 서원 · 사우의 현황과 무성서원의 위상

발표 한문종(전북대)

I. 서원·사우의 건립과 변천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 학문 연구와 선현(先賢) 제향(祭享)을 위해 사림(士林)들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자 향촌자치 운영기구이다.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이며, 우리나라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경상도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그 효시이다. 백운동서원은 풍기군수 이황의 건의로 1550년 왕으로부터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 현판과 서적·노비를 하사받은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특히 이황은 말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 도산서원을 세우는 등 서원을 향촌사회에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사우(祠宇)는 선조(先祖) 또는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을 모셔놓고 제향을 드리는 장소이다. 사우의 건립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나지만, 고려 말에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일반화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유교문화의 확산은 사우 건립의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따라서 향촌 사회에서 기자(箕子), 단군(檀君)을 비롯하여 국가에 공이 있는 명현(名賢)들에 대한 추존 운동이 전개되면서 민간에 의한 사우의 건립이 확산되어 갔다.

서원과 사우는 원래 그 명칭과 기능, 설립목적, 배향인물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되었다.

<표 1> 서원·사우의 비교

	명칭	목적	기능	제향인물	구조
書院	書院, 書齋, 精舍, 祠宇, 影堂	教育人才, 斯文振興(教化)	士子藏修, 講學, 祀賢	先賢, 先儒, 士林宗師	講堂(書齋), 祠廟
祠宇	鄉賢祠, 別廟, 鄉祠, 世德祠, 遺愛祠, 里祠, 生祠堂	報本崇賢(教化)	祀賢	忠節人, 儒賢	祠廟

* 위의 표는 정만조, 「17~18세기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2(국사편찬위원회, 1975) 219쪽에서 전재함.

이러한 서원과 사우의 구별은 대체로 16세기 말까지 존재하였다. 그러나 17~18세기경에 이르면 양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구별이 모호해졌다. 그 이유는 첫째, 서원과 사우에 배향하는 인물에 대한 구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원칙이 없이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배향 인물의 선정은 향사자(享祀者)의 자격과 질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둘째, 서원의 기능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인재 양성과 강학(講學)이 1차적 기능이었던 서원이 17, 18세기에 들어 사현(祀賢) 위주로 변화되어 갔다. 그 결과 서원이 사우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셋째, 서원이 많이 남설(濫設)되었다는 점이다. 17~18세기경에 이르면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선사(先師)의 학통을 계승하고 그의 도덕적 지위를 높이 드러낼 목적으로 그들의 후손이나 제자들에 의해 서원이 지나치게 많이 건립되었다. 특히 숙종 대에 이르러 서원의 건립이 급증하자 영조 초에는 ‘○○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서원의 건립을 금지시키는 금령이 반포되었다. 이 때문에 서원 대신에 사우의 건립이 급증하여 영조 초부터 17년 사이에 무려 137개소의 사우가 건립되었다. 그 결과 서원과 사우의 구별은 무의미해졌으며, 양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서원의 남설로 인해 서원은 교화 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도 오히려 정치와 연관된 당쟁의 근거지 내지는 수탈과 피역(避役)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효종, 현종대부터 서원의 폐단을 논하는 상소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숙종은 서원 통제에 적극성을 띠고 직접 서원의 존폐를 결정하고 철폐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조는 서원이 당파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1741년(영조 17)에 서원을 철폐하도록 명하였다. 이 서원철폐령으로 1714년(숙종 40) 이후에 건립된 서원과 사우·영당 등 173개소가 철폐되었다. 또한 서원 금령의 강화로 지방관의 서원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거의 단절됨에 따라 서원의 재정도 악화되었다. 이어서 정조와 철종대에도 서원의 정리를 도모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세기 이후 전국의 서원과 사우는 대부분 재정을 담당하는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고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사람들의 백성에 대한 착취와 서원의 부패로 인해 그 폐해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서원(사우)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868년과 1870년에 사액되지 않은 서원과 사액서원 중 제향자의 후손들이 운영을 주도하면서 민폐를 끼치는 서원을 철폐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또한 1871년에는 사액서원 중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을 1인 1원(院)에 배향하게 하고, 그 외의 첩설(疊設) 서원을 모두 철폐하도록 명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47개 서원과 사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되었다. 전북지방에서는 정읍의 무성서원만이 유일하게 훼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폐된 서원과 사우는 그가 정권에서 물러난 이후에 일부는 복설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지주층의 환심을 사고 식민통치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 일부 서원·사우를 중건하였다. 그러나 이들 서원·사우는 6·25 전쟁 때에 상당수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 1970년대 이후에는 주로 문종이 중심이 되어 서원·사우를 개축 또는 신축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복설 또는 신설된 서원과 사우는 대부분 후손들을 중심으로 건립되고 운영되었으며, 서원의 교학 기능은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 서원은 후손들에 의해 제향(祭享)을 지내거나 조상들의 유적을

순례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II. 전북지방 서원·사우의 분포와 특징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까지 전북지방에 존재하였던 서원과 사우는 대략 233개소에 이르렀다. 이를 지역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북지방의 지역별, 시기별 서원·사우의 분포

지역 시기	김제	군산	남원	익산	전주 완주	정읍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소계
15C							1			1				2
16C	5		1	1	2	1	1		1		2			14
17C	6	2	5	2	5	7	1	1	4	1	2	1	2	39
18C	1	2	9	1	3	2	7	3	1	2	5	1		37
19C~1868	1		9	1	1	2	5	4		2	5	4	7	41
1869~	8	5	1	8	4	9	18	6	2	5	2	2	12	82
미상	1		2	2	8						5			18
소계	22	9	27	15	23	21	33	14	8	11	21	8	21	233

* 이 표는 한문종, 「전북지방 書院·祠宇에 대한 試考-『全北院宇錄』을 중심으로-」(『전라문화논총』 3, 전라문화연구소, 1989) 160쪽 <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위의 <표 2>를 통해서 전북지방 서원·사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고창이 3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남원(27개소), 전주·완주(23개소), 김제(22개소), 정읍·임실·진안(각 21개소), 익산(15개소), 무주(14개소), 순창(11개소), 군산(9개소), 부안·장수(각 8개소) 순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서원·사우의 분포는 1980년대 후반까지 존재하였던 서원·사우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리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에 창건된 서원·사우는 서원철폐령 이전에 창건된 서원·사우에 비해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사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컸던 시기인 서원철폐령 이전까지 전북지방에 존재하였던 133개소의 서원·사우를 대상으로 하면 남원이 24개소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고창(15), 임실(14), 김제(13), 정읍(12), 전주·완주(11), 진안(9), 무주(8), 부안·순창·장수(각 6), 이리(5), 군산(4) 순이었다. 특히 남원과 그에 인접한 임실 지역의 서원·사우가 38개소로 많았던 이유는 그 지방에 토착 양반들이 많이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북원우록』에 의하면 전북지방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서원·사우는 순창의 예산사(禮山祠)로 1401년에 건립되었으며, 태종좌명공신 조흡(趙恰)을 배향하고 있다. 그 이후 전북지방에는 1980년대 후반까지 233개소의 서원·사우가 건립되었다. 이들 서원·사우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전에 창건된 것이 133개소, 서원철폐령 이후에 창건된 것이 82개소, 창건 년대를 알 수 없는 것이 18개소이다. 한편 전북지방 서원·사우의 창건시기를 보면 15세기 2개소, 16세기 14개소, 17세기 39개소, 18세기 37개소, 19세기부터 서원철폐령 이전까지 41개소였다. 특히 전북지방의 서원·사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아마 양란 때 순절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서원·사우를 많이 건립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북지방 서원·사우의 건립집단을 보면 233개소 중 62.7%에 달하는 146개소가 사손(祀孫)에 의해서 건립되었으며, 18%인 42개소가 사손과 지방 유림(儒林)의 연합에 의해서, 17.2%인 40개소가 향유림에 의해서, 그 나머지 5개소가 문인(門人) 및 지방수령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그리고 17세기를 기점으로 향유림에 의한 서원·사우의 건립이 줄어들고 사손에 의한 건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의 서원·사우는 본래의 설립 목적인 사자장수(士子藏修)와 강학(講學)에 보다 충실하였으나 18C에 이르면 서원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고 향사(享祀)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각 가문에서 자기들의 조상을 배향하는 문중사우(門中祠宇)를 많이 건립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서원·사우에 배향하는 인물은 자기들의 가문이나 학파, 당파, 향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시되었다. 전북지방의 서원·사우에 배향된 인물은 대략 946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에서 최치원이 가장 많은 8개소에 배향되었으며, 그 다음에 김문기·송시열·최익현·주희가 6개소, 김유신·김일손·송병준·이이가 5개소에 배향되었다. 그리고 4개소에 배향된 인물이 김천일을 포함하여 4명, 3개소에 배향된 인물이 이순신, 김장생 등 15명이었다. 특히 3개소 이상에 배향된 인물은 名賢, 名儒, 순국선열, 충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서원철폐령 이후에 창건된 서원·사우는 82개소에 이르렀다. 그중 2개소는 대원군의 실각 이후에, 45개소는 일제강점기에, 35개소는 해방 이후에 창건되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서원·사우가 많이 창건된 이유는 아마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 자강의 정신을 함양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가 지주층의 환심을 사고 식민 통치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창건된 서원·사우에 배향된 인물은 그 지방 씨족의 선조도 있었지만 이순신, 김천일, 최익현, 윤봉길, 이봉창 등 임진왜란 때의 순절인과 한말 순국·애국지사들도 비교적 많이 있었다.

전북지방의 사액서원은 총 16개소였다. 사액서원은 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의 이름이 적힌 편액(扁額)을 하사받은 공인된 서원이다. 이곳에는 일정량의 토지와 노비 그리

고 국가에서 편찬한 서적 등이 지급되었으며, 면세와 면역의 특권이 주어졌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사액서원은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지방의 사액서원을 창건년대와 사액년대, 배향자, 소재지 등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전북지방의 사액서원 일람표

번호	서원·사우명	창건년대	사액년대	배향자	소재지	월설 년대	복설 년대
1	창주서원 (滄洲書院)	1579 (선조 15)	1600 (선조 33)	노진(盧縝)*	남원시 도동동	1868	1960
2	충렬사 (忠烈祠)	1612 (광해 4)	1653 (효종 4)	정기달(鄭期達)* 이복남(李福男) 임현(任鉉) 김경로(金敬老) 신세(申洗) 등 남원성 수호 16위	남원시 향교동	1869	1879
3	정충사 (旌忠祠)	1632 (인조 10)	1657 (효종 8)	송상현(宋象賢)* 신호(申浩) 김준(金浚)	정읍시 흑암동	1868	1964
4	화산서원 (華山書院)	1637 (인조 15)	1662 (현종 3)	김장생(金長生)* 송시열(宋時烈) 황자후(黃子厚) 소두산(蘇斗山)+ 소취면(蘇輝冕)+	익산시 금마면	1868	1965 ?
5	화산서원 (華山書院)	1624 (인조 2)	1662 (현종 3)	이언적(李彦迪)* 송인수(宋麟壽)	전주시 화산동	1869	
6	죽림서원 (竹林書院)	1626 (인조 4)	1665 (현종 6)	조광조(趙光祖)* 이항(李滉) 이이(李珣)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 송시열(宋時烈)	익산시	미상	미복설
7	노봉서원 (露峯書院)	1639 (인조 17)	1677 (숙종 23)	홍순복(洪順福)* 최상중(崔尙重) 오정길(吳廷吉) 최온(崔蘊) 최취지(崔徽之)	남원시 사매면	1868	미복설
8	남고서원 (南臯書院)	1577 (선조 10)	1685 (숙종 11)	이항(李恒)* 김천일(金千鎰)+ 김점(金沾) 김복억(金福億)+ 김승적(金承績)+ 소산복(蘇山福)+	정읍시 북면	1871 1868	1899 1928
9	영천서원 (寧川書院)	1624 (인조 2)	1686 (숙종 12)	안처순(安處順)* 정환(丁煥) 정항(丁煥) 이대유(李大猷)	임실군 지사면	1868 1878	1926 1960
10	봉암서원 (鳳巖書院)	1664 (현종 5)	1695 (숙종 21)	김집(金集)* 김구(金球)	군산시 임피면	1868	미복설
11	고암서원 (考巖書院)	1695 (숙종 21)	1695 (숙종 21)	송시열(宋時烈)* 권상하(權尙夏)+	정읍시 하모동	1868	1991
12	삼천서원 (三川書院)	1667 (광해 17)	1695 (숙종 21)	안회(顔回)* 정이(程頤) 주희(朱熹) 제갈량(諸葛亮)	진안군 용담면	1868	미복설
13	무성서원 (武城書院)	1615 (광해 7)	1696 (숙종 22)	최치원(崔致遠)* 신잠(申潛) 정극인(丁克仁)+ 송세림(宋世琳)+ 정언충(鄭彦忠)+ 김약묵(金若默)+ 김관(金灌)+	정읍시 칠보면		
14	정충사 (旌忠祠)	1709 (숙종 35)	1713 (숙종 39)	황진(黃進)* 고득뢰(高得賈) 안영(安瑛)	남원시 주생면	1868	미상

15	동산서원 (東山書院)	1713 (숙종 39)	1721 (경종 1)	이경여(李敬輿)* 이민서(李敏弼)	고창군 성내면	1868	미복설
16	염의서원 (廉義書院)	1685 (숙종 11)	1804 (순조 4)	최치원(崔致遠)* 고경(高慶) 고용현(高用賢)	군산시 옥산면	1868	1920

위의 <표 3>을 통해서 전북지방 사액서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정읍(남고서원, 무성서원, 고암서원, 정충사)과 남원(창주서원, 노봉서원, 정충사, 충렬사)이 각 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군산(염의서원, 봉안서원)과 익산(죽림서원, 화산서원)이 각 2개소, 전주(화산서원) · 고창(동산서원) · 임실(영천서원) · 진안(삼천서원)이 각 1개소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김제·부안·무주·장수·순창 등 5개 시군지역에는 사액서원이 1개소도 없었다. 특히 사액서원이 많았던 정읍지방은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 사사(賜死)된 곳일 뿐만 아니라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 전북지방에서 유일하게 철폐되지 않은 무성서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기록상으로 전북지방에서 가장 먼저 사액을 받은 서원은 창주서원으로 1600년(선조 33)에 사액을 받았다. 그 후 효종대 2개소(충렬사, 정읍 정충사), 현종대 3개소(익산 화산서원, 전주 화산서원, 죽림서원), 숙종대 8개소(노봉서원, 남고서원, 영천서원, 봉암서원, 고암서원, 삼천서원, 무성서원, 남원 정충사), 경종대 1개소(동산서원), 순조대 1개소(염의서원)가 사액을 받았다. 이에서 보면 전북지방 사액서원은 숙종대가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현종대, 효종대, 선조·경종·순조대 순이었다. 특히 현종·숙종 연간에 사액을 받은 서원이 11개소로, 전체 사액서원의 68.7%에 달하였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과도 매우 유사하다. 즉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전까지 전국에 270여소의 사액서원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 64.8%인 175개소가 현종대(44개소), 숙종대(131개소)에 사액을 받았다. 특히 숙종 때에는 경신환국(1680),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 등 세 차례에 걸친 환국과 당쟁이 극심하였던 시기였으며, 서원의 폐단이 나타나자 서원 통제에 적극성을 띠고 직접 서원의 존폐를 결정하고 철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전북지방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사액서원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숙종의 왕권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북지방 사액서원의 창건년대를 보면 선조대 2개소, 광해군대 3개소, 인조대 6개소, 현종대 1개소, 숙종대 4개소로, 인조대와 숙종대에 많이 창건되었다. 전북지방의 사액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1868년부터 1871년 사이에 철폐되고 오직 정읍의 무성서원만 철폐되지 않았다. 또한 철폐된 사액서원 15개소 중에서 복설된 서원이 10개소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 복설되지 못한 서원도 5개소나 되었다.

한편 전북지방 사액서원을 건립집단별로 보면 향유림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 10개소, 사손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 2개소, 그리고 향유림과 사손이 연합해서 건립한 서원이 3개소, 그 지방의 현감에 의해서 건립된 서원이 1개소였다. 이로서 보면 전북지방의 사액서원은 대부분 향유림에 의해서 건립되었으며, 이는 그곳에 배향된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지방 사액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총 71명이었다. 사액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적게는

남원의 창주서원처럼 1명에서부터 총렬사처럼 임진왜란 때 남원성을 수호하다 순절한 정기달, 이복남 등 16명을 배향한 곳도 있었다. 그렇지만 배향인은 대체로 2~5명이 많았다. 그리고 서원이 창건될 때에는 배향인의 수가 1~2명이었는데 후에 서원을 중건하면서 추배한 인물이 많은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전북지방 사액서원에 배향된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배향된 인물은 송시열로 익산의 화산서원과 죽림서원, 정읍의 고암서원 3개소에 배향되었으며, 그 다음은 최치원이 정읍의 무성서원과 군산의 염의서원 2개소에, 김장생이 익산의 화산서원과 죽림서원 2개소에 배향되었다. 그 나머지 64명은 1개소에만 배향되었다.

Ⅲ. 정읍지방 서원·사우의 분포와 특징

2023년 현재 정읍지방의 서원·사우는 총 25개소에 이른다. 다음 <표 4>는 부록 1<정읍지방의 서원·사우 일람표>를 참고해서 정리한 것이다.

<표 4> 정읍지방 서원·사우의 읍면별 분포

행정구역	서원·사우명
정읍시	정충사, 유애사, 고암서원, 노양서원, 총렬사(5개소)
덕천면	도계서원, 동죽서원(2개소)
산외면	하청사, 양무사(2개소)
북면	남고서원(1개소)
소성면	옥산사, 두암서원(2개소)
영월면	태산사(1개소)
용동면	모충사(1개소)
이평면	서산사, 창동서원(2개소)
칠보면	무성서원, 남천사, 용계서원, 송산사, 시산사, 도봉사, 필양사(7개소)
태인면	서현사, 태흥사(2개소)

먼저 <표 4>을 통해서 행정구역별 서원·사우의 분포를 보면, 칠보면이 7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읍시 5개소, 덕천면·산외면·소성면·이평면·태인면이 각 2개소, 북면·영월면·용동면이 각 1개소가 있었다. 반면에 감곡면, 산내면, 정우면, 입암면, 고부면, 신태인읍 등 6개 읍면은 서원·사우가 1개소도 없었다.

기록상으로 정읍지방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서원(사우)은 북면 보림리에 있는 남고서원이다. 남고서원은 1577년(선조 10)에 창건되었으며, 이항을 주벽으로 김천일, 김점 등 6명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건립된 서원(사우)은 소성면 애당리에 있는 두암서원으로 1977년에 건립되었으며, 김일손 등 4명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표 5> 정읍지방 서원·사우의 건립 시기

왕대	선 조	광 해	인 조	효 종	현 종	숙 종	경 종	영 조	정 조	순 조	헌 종	철 종	1868~ 1945	1946 ~	소계
서원 사우	1	1	1	0	2	4	0	0	1	1	0	0	7	7	25

정읍지방의 서원·사우를 건립된 왕대별로 살펴보면, 선조대 1개소(남고서원), 광해군대 1개소(무성서원), 인조대 1개소(정충사), 현종대 2개소(모충사, 도계서원), 숙종대 4개소(남천사, 유애사, 고암서원, 용계서원), 정조대 1개소(송산사), 순조대 1개소(서산사), 1868~1945년 7개소(서현사, 시산사, 도봉사, 하청사, 양무사, 태흥사, 필양사), 1945년 이후 7개소(옥산서원, 노양서원, 동죽서원, 충렬사, 창동서원, 태산사, 두암서원)이다. 그리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전에 건립된 서원이 11개소, 서원철폐령 이후에 창건된 서원이 14개소였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정읍지방의 서원과 사우는 대원군의 서원철폐 이후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이후에 많이 건립된 특징이 나타난다.

정읍지방의 서원과 사우 중에서 사액서원은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남고서원, 고암서원, 정충사 등 4개소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았다. 특히 무성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전북지방에서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서원이다.

한편 정읍지방 서원·사우의 건립 주체를 살펴보면, 지방의 유림(儒林)이 건립한 서원이 11개소, 향유림과 사손이 연합해서 건립한 서원이 4개소, 사손(嗣孫)이 건립한 서원이 8개소, 제자나 후학 등이 건립한 서원이 2개소였다. 이로서 보면 정읍지방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향유림에 의해 건립된 서원과 사우가 많은 특징이 있다.¹⁾ 또한 서원철폐령 이전에는 주로 향유림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사손에 의해서 건립된 서원·사우가 많았다.

정읍의 서원·사우에 배향된 인물은 창건 시에는 1~2명이었으나 서원·사우를 복설하고 중건 또는 이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배향인물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읍지방의 서원·사우에 배향된 인물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9명을 배향한 곳도 있었다. 정읍지방의 서원·사우에 배향된 인물은 모두 86명이었다. 그 중 2개소에 배향된 인물은 송시열과 조광조, 이순신이었으며, 나머지는 1개소에만 배향되었다. 또한 정읍지방의 서원·사우에 주벽으로 배향된 인물을 보면 통일신라의 대학자인 최치원과 명장 김유신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유학자 이항·김일손·이희맹·권극중·조광조·송시열, 임진왜란 때에 순절하였거나 의병 활동을 한 송상현·백광언·박문효·김대립, 구한말의 유학자이자 의병 최익현, 일제강점기의 유학자 전우·김택술 등이 있다. 이들은 정읍 출신이거나 정읍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1) 참고로 전북지방 서원·사우의 건립집단별 분포를 보면, 233개소 중에서 사손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 146개소(62.7%), 사손과 향유림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 42개소(18%), 향유림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 40개소(17.2%), 나머지는 門人과 지방관 등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한문종, 「전북지방 書院·祠宇에 대한 試考 -『全北院宇錄』을 중심으로-」(『전라문화논총』 3, 전라문화연구소, 1989) 163쪽 참조.

한편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전에 건립된 11개의 서원·사우 중에서 무성서원을 제외한 10개소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훼철되었다. 그중 9개소는 해방 이후에 복설되었지만, 서산사는 현재까지 복설되지 않았다.

Ⅳ. 무성서원의 위상

무성서원은 신라 말에 태산태수로 온 최치원을 모신 생사당(生祠堂)에서 비롯되었다. 이 생사당은 1483년(성종 14)에 정극인이 향학당(鄉學堂)을 열었다는 지금의 무성서원자리로 옮기고 태산사(泰山祠)라고 하였다. 1615년(광해군 7)에 제향 기능의 태산사와 강학 기능의 향학당을 결합하여 서원으로 발전시키고 태산서원이라고 하였다. 그후 1696년(숙종 22)에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아 국가 공인 서원이 되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전국 47개 서원을 제외한 서원과 사우가 철폐될 때, 무성서원은 훼철되지 않았다. 현재 무성서원에는 최치원을 주벽으로 신잠·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묵·김관을 배향하고 있다.

전북지방에서 무성서원의 위상을 살펴보면 첫째, 무성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훼철되지 않았다. 아들인 고종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던 흥선대원군은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양반 유림세력의 근거지인 서원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868년과 1870년에 사액되지 않은 서원과 사액서원 중 민폐를 끼치는 서원을 철폐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1871년에는 사액서원 중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을 1인 1원(院)에 배향하게 하고, 그 외의 첩설(疊設) 서원을 모두 철폐하도록 명하였다. 그 결과 전국 660여 개의 서원 중 47개 서원(사우)을 제외하고 모두 철폐되었다. 전북지방에서는 최치원을 배향하고 있는 무성서원이 유일하게 훼철되지 않았다.

또한 전북지방에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이전까지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모두 16개소의 사액서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무성서원은 서원이 위치한 태인지방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있었을 뿐 전라도 지방에서의 영향력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서원철폐령 이후에 무성서원은 전북지방 유일의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위상과 영향력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서원철폐령 이후 무성서원은 명실상부한 전라도의 ‘도원(道院)’이 되었다. 그 결과 서원철폐령 이전에는 태인현감이 무성서원의 원장(院長)이 되었으나, 서원철폐령 이후에는 전라도 관찰사가 서원의 원장이 되어 서원을 관장하였다. 이로써 전라도 지방에서 무성서원이 차지하는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 갔으며,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도 날로 증대되어 갔다.

셋째, 서원철폐령 이후 무성서원은 1872년부터 강습례(講習禮)를 실시하여 교육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갔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1906년에 임병찬 등을 만나 정음의 무성서원에 와서 강회(講會)를 하면서 창 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여 항일의병을 일으

켰다. 이것이 최익현을 중심으로 태인 유림들이 일으킨 ‘병오창의(丙午倡義)’이다. 병오창의는 호남 최초의 의병으로, 그 중심지가 바로 무성서원이었다.

이러한 위상과 가치를 인정받아 무성서원은 1968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남계서원: 경남 함양, 도산서원: 경북 안동, 도동서원: 대구 달성, 돈암서원: 충남 논산, 병산서원: 경북 안동, 소수서원: 경북 영주, 옥산서원: 경북 경주, 필암서원: 전남 장성)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 『全北院宇錄』(이태연, 1973)
 『典故大方』(강효석, 명문당, 1982)
 『列邑院宇事蹟』(1-3)(민창출판사, 1991)
 『전라북도지』(전라북도, 1969)
 『문화유적총람』(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全北鄕校院宇大觀』(전라북도향교재단, 1994)
 『개편 정읍시사』(정읍문화원, 2010)
- 이동희·한문종, 『조선시대 전주지역의 향교와 서원』, 흐름, 2021.
 유연성·한문종, 『무주·진안·장수지역의 향교와 서원』, 흐름, 2021.
 민병하, 「朝鮮時代의 書院政策考」 『論文集』 15, 성균관대학교, 1970,
 정만조, 「17~18세기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2, 국사편찬위원회, 1975.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고찰」 『호서사학』 13, 1985.
 한문종, 「전북지방 서원 사우에 대한 시고 -전북원우록을 중심으로-」 『전라문화논총』 3,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89.
 한문종, 「전북지방의 서원 사우의 복설 운동」 『전라문화논총』 5,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2.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권이선·박정민, 「무성서원지의 체제와 특징-1884년본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37, 강원사학회,
 2021.

<부록 1> 정읍지방의 서원·사우 일람표

번호	서원·사우명	창건 년대	사액 년대	배향자	소재지	훼철 년대	복설 년대
1	남고서원 (南臯書院)	1577 (선조 10)	1685 (숙종 11)	이항(李恒)* 김점(金沾)+ 김승적(金承績)+	김천일(金千鎰)+ 김복억(金福億)+ 소산복(蘇山福)+	정읍시 북면 보림리	1871 1899
2	무성서원 (武城書院)	1615 (광해 7)	1696 (숙종 22)	최치원(崔致遠)* 정극인(丁克仁)+ 정언충(鄭彦忠)+ 김관(金灌)+	신잠(申潛) 송세림(宋世琳)+ 김약묵(金若默)+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3	정충사 (旌忠祠)	1632 (인조 10)	1657 (효종 8)	송상현(宋象賢)* 김준(金浚)	신호(申浩)	정읍시 흑암동	1868 1964
4	모충사 (慕忠祠)	1667 (현종 8)		백광언(白光彦) 송지순(宋之順)+ 이지례(李之禮)+ 권극평(權克平)+ 백함생(白咸生)+	전덕린(全德麟)+ 이지시(李之詩)+ 송인신(宋寅臣)+ 최응립(崔應立)+	정읍시 옥동면 산성리	1868 1979
5	도계서원 (道溪書院)	1673 (현종 14)		이희맹(李希孟)* 최안(崔安) 김제안(金齊顔)+ 김섬(金暹)+	김재민(金齊閔) 김지수(金地粹) 김흔(金昕)+ 김습(金習)+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1866 1963
6	남천사 (濫川祠)	1676 (숙종 2)		안의(安義) 김후진(金後進)* 김두현(金斗鉉)+	손홍록(孫弘祿) 김만정(金萬挺)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1868 1926
7	유애사 (遺愛祠)	1689 (숙종 15)		이순신(李舜臣)* 유춘필(柳春苾)+	유희진(柳希津)+	정읍시 진산동	1868 1974
8	고암서원 (考巖書院)	1695 (숙종 21)	1695 (숙종 21)	송시열(宋時烈)*	권상하(權尙夏)+	정읍시 하모동 모촌	1868 1991
9	용계서원 (龍溪書院)	1701 (숙종 27)		최서림(崔瑞琳) 은정화(殷鼎和)+ 김습(金習)+	김정호(金挺昊)+ 한백유(韓伯俞)+ 유종흥(柳宗興)+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1868 1966
10	송산사 (松山祠)	1788 (정조 12)		김대립(金大立)* 김정(金鼎) 김급(金汲)	김응빈(金應賓) 김감(金堪) 송치중(宋致中)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868 1954
11	서산사 (書山寺)	1823 (순조 23)		권극중(權克中)	최희정(崔希汀)+	정읍시 이평면 서산리	1868 미복설
12	서현사 (西峴祠)	1899		박문효(朴文孝)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1868 미상
13	시산사 (詩山祠)	1907		최익현(崔益鉉)* 김직술(金直述)+	김기술(金箕述)+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일제 시기 1970
14	도봉사 (道峰祠)	1923		김희련(金懷鍊)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15	하청사 (河淸祠)	1928		최익현(崔益鉉) 오계엽(吳啓曄) 박재구(朴在球)	임병찬(林炳贊) 박재규(朴在珪)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미복설

16	양무사 (揚武祠)	1928		임치영(林致榮) 임성린(林成麟)	정읍시 산외면 야정리		미복설
17	태흥사 (泰興祠)	1930		김유신(金庾信)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18	필양사 (泌陽祠)	1945		김영상(金永相)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19	옥산서원 (玉山書院)	1957		김성은(金性濂)* 김남식(金南式)+ 김이성(金履成)+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20	노양서원 (魯陽書院)	1959		송시열(宋時烈)* 박세경	정읍시 농소동 현암		
21	동죽서원 (東竹書院)	1960		조광조(趙光祖)* 최희정(崔希汀)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22	충렬사 (忠烈祠)	1963		이순신(李舜臣)*	정읍시 수성동		
23	창동서원 (滄東書院)	1965		김택술(金澤述)*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24	태산사 (台山祠)	1971		전우(田愚)* 권순명(權純命)+	정읍시 영원면 은선리		
25	두암서원 (斗岩書院)	1977		김일손(金駟孫)* 김태하(金泰河) 김치옥(金致玉) 김양수(金良洙)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 이 표는 『全北院宇錄』 『全北鄉校院宇大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배향자 이름 옆에 *는 주벽, +는 추배된 인물임.

주제발표 01

태산선비 문화권의 설정과 활성화 방안

발표 박정민(전북대)

< 목 차 >

1. 머리말
2. 태산선비문화권의 설정
3. 활성화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정읍의 태산선비문화권은 무성서원이 있는 칠보면을 비롯하여 태인면, 감곡면, 북면, 웅동면, 산외면, 산내면 일대로 조선시대 태인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유학의 종장(宗匠)으로 손꼽히는 고운 최치원이 신라 말에 태산현(현 정읍시 칠보면)에 태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최치원이 다스린 곳이라는 상징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유학 발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기질이 현재까지 이르러 유학의 인맥이 형성되었고, 임진왜란과 조선 말 최익현의 의병 거의(擧義) 등 선비정신의 실천적 중심 지역이 바로 정읍 태산선비문화권이다.

태산선비문화권은 지난 2019년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보물 제289호인 피향정, 지방정원 구절초 테마 공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거리는 반경 20Km나 될 정도로 상당히 멀어 관광객들의 주의를 끌기에 약점이 있다. 이중 브랜드 파워와 선비문화권의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성서원을 포함한 고현내를 중심으로 한 태산선비문화권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성서원 일대는 백제 때부터 조선 초까지 약 천년 동안 치소가 있었던 만큼 예전부터 살기 좋고 호남의 대표적 풍수지로 불릴 정도로 훌륭한 곳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으로 알려진 『상춘곡』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 선비정신으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말 최고 화가로 알려진 석지 채용신이 이 지역에 머물며 그린 칠광도라는 그림이 남아 있다.

이처럼 호남 유학의 시발점이자 중요한 명맥을 잇고 있는 이 지역은 무성서원을 제외하고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¹⁾ 물론 조선시대 고현내를 다루어 역사적 변천과정과 사회적 변동 상황을 다룬

1) 손윤희, 「武城書院의 建立과 變遷에 關한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정문, 「정읍 무성서원 및 주변지역 정비복원 기본계획」,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 2006 ; 박종배,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일 고찰」, 『한국서원학보』 1, 2011 ;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윤영-제향인물과

훌륭한 연구가 있다.²⁾ 이외 태인 고현향약³⁾이나 정극인의 향촌 활동,⁴⁾ 석지 채용신이 이 지역을 그렸던 칠광도,⁵⁾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 지역 사족들의 동향,⁶⁾ 최익현이 무성서원에서 일으켰던 병오창의⁷⁾와 관련된 연구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원래 고현향약과 이 지역 사족에 대한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다가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관심이 바뀌게 된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태산선비문화권을 재정립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학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유산과 문화권을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읍 태산선비문화권에는 무성서원을 비롯하여 여러 유교 및 호국 유적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후송정·송정과 영당·무성리 석불입상·유상대·동각·연시각·남천사·태산사 등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대부분 남아 있고, 상당수는 사적, 보물,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었다. 이 유적들은 반경 2Km 이내에 사적(세계문화유산) 1건, 보물 3건, 전라북도기념물 6건, 문화재 자료 2건 등이 밀집되어 있다. 이외 많은 비지정 문화유산도 산재한다. 이들의 분류를 보면 누정과 정려, 효열비, 서원과 사우 등 유교 유적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석문과 문집, 회화도 유교와 관련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의 성격은 명확해진다. 그리고 서울과 경주를 제외한 전국 어느 지역에도 이처럼 많은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없다.

이처럼 호남 유학에서 중요한 지역인 정읍의 태산선비문화권에 대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곳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새롭게 태산선비문화권을 설정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사액과정을 중심으로」『국학연구』 35, 2018 ; 진성수,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원규」『유학연구』 49, 2019 ;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2020b ; 박정민, 「무성서원지의 체제와 특징」, 『강원사학』 37, 2021 ; 한정수, 「18~19세기 영광 정씨(靈光丁氏)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尋院錄)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5-1, 2022 ; 안영훈, 「정읍 무성서원과 선비문화 원류 최치원」, 『대순사상논총』 40, 2022.

2) 백승종, 「15-17세기 정치 지배세력으로서의 양반」, 『한국사회사연구-15-19세기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3) 이강오, 「태인 古縣 향약에 대한 연구(1)」『전라문화논총』 1, 1986 ; 이강오, 「泰仁 古縣鄉約에 대한 小考」, 『향토사연구』 4, 1992 ; 김홍주, 「조선 향촌규약에 나타난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 고현향약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9, 2013 ; 이춘구, 「자치법규로서의 향약에 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47, 2016 ; 나수지, 「태인 고현향약의 성립과 운영주체」, 『건지인문학』 33, 2022.

4) 박종배, 「불우현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 2013 ; 유옥례, 「정극인의 유교적 대동공동체의 삶의 추구」, 『동방학』 36, 2017.

5) 김정식·김재식·김정문, 「칠광도에 표현된 경관분석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4, 2008 ; 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한국사연구』 189, 2020a.

6) 이진영, 「동학농민전쟁기 전라도 태인 고현내면의 반농민군 구성과 활동-金箕述과 道康金氏를 중심으로」『전라문화논총』 6, 1993.

7) 강길원, 「勉菴 崔益鉉의 丙午倡義」『전북사학』 26, 2003.

2. 태산선비문화권의 설정

조선 후기 전라도는 56개 군현으로 구성되었다.⁸⁾ 1895년에 23부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전라도는 1부 4목 7도호부 11군 33현의 체계를 갖추었고, 태인현은 부나 목, 도호부에 포함되지 않는 평범한 군현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읍격과 인구 혹은 경제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주도호부는 원래 무주현으로 인구와 전답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1673년(현종 14)에 조정은 적상산 사고에서 실록과 선원보 등의 왕실 기록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무주도호부로 승격하였다. 여산도호부 역시 원래 여산군이었으나 1699년(숙종 25)에 단종의 왕후인 정순왕후 송씨의 본관이 라고 하여 승격하였다.

반면 태인은 현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표 1>과 같이 1759년(영조 35) 경에 작성된 『여지도서』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26개 군현의 전답 면적 순을 산출하였다. 이를 보면 전주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뒤를 김제, 남원, 고부가 따르고 있다. 전주는 부, 남원은 도호부, 김제와 고부는 군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수긍되는 순위이다. 그런데 태인현이 논 3,821결, 밭 1,865결로 총 5,686결이다. 이는 다른 도호부, 군을 제치고 총 5위에 자리한다. 6위 권인 금구현보다 1,100여 결이나 많은 전답을 보유한 것이다.⁹⁾

<표 1> 『여지도서』에 수록된 전북지역 군현의 전답의 면적순

연번	군현	논	밭	총	연번	군현	논	밭	총
1	전주부	9,654	11,265	20,919	14	홍덕현	1,812	655	2,467
2	김제군	5,805	4,653	10,458	15	옥구현	1,871	580	2,451
3	남원부	7,180	2,880	10,060	16	함열현	1,773	652	2,425
4	고부군	5,797	3,110	8,907	17	고산현	1,093	1,146	2,239
5	태인현	3,821	1,865	5,686	18	무주부	1,143	1,019	2,162
6	금구현	3,042	1,510	4,552	19	진안현	1,168	931	2,099
7	부안현	3,014	1,533	4,547	20	장수현	1,211	812	2,023
8	무장현	2,832	1,704	4,536	21	용안현	1,092	572	1,664
9	익산군	2,690	1,781	4,471	22	고창현	1,161	469	1,630
10	여산부	2,715	1,722	4,437	23	운봉현	1,075	311	1,386
11	순창군	2,659	1,332	3,991	24	용담현	508	537	1,045
12	임실현	1,790	1,217	3,007	25	임피현	5,303	2,660	7,963
13	정읍현	1,517	1,274	2,791	26	만경현	—	—	4,136

※

만경현과 임피현은 1871년의 읍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25, 26위에 배치

주목되는 점은 논이 밭보다 2배 이상이나 많다는 것이다. 칠보면과 산내면, 산외면, 웅동면 북

8) 조선 전기에 진원현까지 57개 고을이었으나 1600년(선조 33)에 임진왜란으로 큰 피해를 입고 피해를 졌다며 진원현을 장성현에 합치고 읍지를 성자산 아래로 옮겼다. 이후 1655년(효종 6)에 도호부로 승격시켰다.(『여지도서』, 「장성부」 건치연혁)

9) 물론 임피현이 약 100년 후인 1871년에 7,963결로 산정되어 비교하기 애매하여 순위에 넣지 않았지만, 다른 군현을 보면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태인현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 일대의 산지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인면과 신태인읍, 북면 일대가 동진강을 중심으로 평지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논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논리로 『여지도서』를 분석하여 인구를 보면 <표 2>와 같다.

당시 태인현은 7,747호에 남자 13,282명, 여자 17,063명으로 총 30,345명이다. 이는 현재 전라 북도에 해당하는 26개 군현 가운데 4위로 상위권에 자리한다. 약 30년 후에 작성된 『호구총수』는 7,849호에 31,205명으로 약 100호, 1,000명 가량 증가하였다.¹⁰⁾ 그리고 순위도 4위로 여전한 세 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1789년(정조 13)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태인현읍지』에서도 7,854호, 31,002명으로 거의 비슷하다.¹¹⁾ 이러한 점을 본다면 태인군은 전라도에서 많은 인구와 농 경지를 가진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읍격에 비해 태인현은 상당한 존재감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표 2> 『여지도서』에 수록된 전북지역 군현의 호구(인구)

연번	군현	호수	인구수	연번	군현	호수	인구수
1	전주부	21,176	72,773	14	옥구현	4,373	14,614
2	남원부	10,782	36,306	15	무주부	5,405	13,175
3	부안현	9,136	33,876	16	함열현	3,591	12,829
4	태인현	7,747	30,345	17	용담현	3,311	9,951
5	고부군	6,526	28,651	18	정읍현	2,468	9,685
6	김제군	6,000	27,691	19	금구현	2,525	9,151
7	무장현	6,817	26,661	20	홍덕현	2,762	9,136
8	순창군	6,702	26,135	21	여산부	2,864	8,871
9	임실현	5,570	24,601	22	고창현	1,982	8,140
10	진안현	5,727	22,156	23	용안현	1,649	5,497
11	고산현	4,599	16,583	24	운봉현	2,024	4,823
12	익산군	3,986	14,856	25	임피현	4,545	23,560
13	장수현	3,840	14,643	26	만경현	1,210	12,271

특히, 무성서원 등이 위치한 고현내는 조선시대부터 태인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좋았다. 그러므로 도강김씨, 영광정씨 등의 가문들이 조선 초부터 이주해왔고, 수리 시설 등을 확장하며 많은 농장을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 초부터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잠실을 설치하며 비단을 생산하였고, 사설 목장 등도 있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이 일어났을 때도 이 지역 양반들은 군자를 조달했으며 주변 고을에 흉년이 들면 곡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곳곳에 서원과 사우, 송정, 호호정과 유상대 등의 정자와 누각을 지을 수 있었다.¹²⁾ 위와 같은 경제력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인지 칠광과 십현으로 대표되는 지역 양반들과 주변 인사의 교류 등이 눈에 띄게 많았다.¹³⁾

10) 『호구총수』 전라도, 태인현.

11) 『태인현읍지』, 태인현 호구.

12) 백승종, 앞의 책, 일조각, 1996, 106-110쪽.

현재의 정읍시는 조선시대의 고부군, 정읍현, 태인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북의 모든 지역을 다 살펴볼지 못해서 아쉽지만 일단 이곳의 서원과 사우 현황만 살펴보면 <표 3>과 같다.¹⁴⁾ 현재 정읍 지역에는 25개의 서원과 사우가 있고, 서산사는 대원군의 서원철폐, 하청사와 양무사는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후 복설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22개의 서원과 사우가 운영되고 있다.

<표 3> 정읍 지역 서원·사우 현황

연번	태인	비고	연번	고부	비고
1	남고서원(1577)	사액(1685)	1	도계서원(1673)	
2	무성서원(1615)	사액(1696)	2	동죽서원(1959)	
3	용계서원(1707)		3	창동서원(1964)	
4	모충사(1667)		4	서산사(1823)	미복설
5	남천사(1676)		5	태산사(1971)	
6	송산사(1788)		연번	정읍	비고
7	서현사(1899)		1	고암서원(1689)	사액(1695)
8	시산사(1975)	태산사(1907)	2	노양서원(1956)	
9	도봉사(1923)		3	두암서원(1977)	
10	필양사(1945)		4	정충사(1632)	사액(1657)
11	하청사(1928)	미복설	5	유애사(1689)	
12	양무사(1928)	미복설	6	충렬사(1946)	
13	태흥사(1930)		7	옥산사(1957)	

<표 3>에 의하면 1868년 서원 철폐령 이전에 설립된 서원과 사우는 11개에 불과하다. 1899년의 서현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제강점기 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설립된 것이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사액 받은 것은 남고서원, 무성서원, 고암서원, 정충사 등 4곳이 있다. 효종대에 사액을 받은 정충사를 제외하고 모두 숙종 연간에 사액을 받았다.

효종대까지 사액의 숫자가 54곳에 불과한 점을 보면¹⁵⁾ 정충사는 일찍이 사액으로 인정받고, 그 위상이 상당히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남고서원과 고암서원, 무성서원은 숙종대에 사액을 받아 그 위상을 낮게 인식할 수도 있다.¹⁶⁾ 물론 각종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조정은 사액을 통한 장려를 정책 기조로 삼았고, 관학 위주의 교육에 사학(私學)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액서원의 위상은 상당하였다.¹⁷⁾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사액서원이 태인과 정읍에 2개씩 있었던 것이다.

<표 3>을 지역별로 보면 태인현 13, 고부군 5, 정읍현 7곳이 있다. 서원 철폐령 이전에 설립된 11개 중에서 고부군 2개, 정읍현 3개, 태인현 6개이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군현의 격과 달리 의외로 고부에는 적은 서원과 사우가 있었고, 심지어 사액서원도 없었던 점이 주목된다. 반대로 태

13) 박정민, 앞의 논문, 2020a.

14) 전라북도 향교재단, 『전북향교 원우대관』, 전라북도 향교재단, 1993, 290-323쪽.

15)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28-42쪽.

16) 윤희면, 「서원정책의 추이와 서원의 설립실태」,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74-87쪽.

17) 신동훈, 「16세기 서원 사액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현실』 98, 2014.

인 지역에 서원과 사우가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독 고현내에만 무성서원, 용계서원, 남천사, 송산사 등 4개에 이른다.¹⁸⁾

이러한 사실을 통해 태인 지역, 특히 고현내 지역에 서원이 밀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이 지역에 유독 많은 서원과 사우가 집중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지역이 원래 태산군의 읍치였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이곳은 백제 때 대산군(大尸山郡), 신라 때 대산군(大山郡), 고려 때 태산군(太山 ; 泰山)으로 불리었고, 그 치소는 현재의 칠보면 시산리 일대였다. 이후 1409년(태종 9)에 인의현과 병합하여 한 글자씩 따서 태인현이 되었고, 1416년에 치소를 현재의 태인면소재지로 옮겼다. 이 때문에 옛 태산의 치소는 예전의 치소라는 의미로 고현내(古縣內)라고 불리게 되었다.¹⁹⁾ 이처럼 고현내 지역은 원래부터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최치원이 군수로 재임하였다는 것이다. 최치원은 880년대 후반에 태산군수로 부임하였는데, 당시의 태산군은 인의현과 정읍현, 거야현(금구) 등을 거느린 큰 고을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최치원이 다스린 곳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 생사당을 건립하였다. 이후 지역 주민에게 꾸준히 전승되면서 무성서원의 건립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무성서원원지』 등에서 최치원과 이 지역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무성서원의 정통성을 부각한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점은 지역 주민에게 선비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유퐁이 강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도강김씨와 영광정씨, 여산송씨, 동래정씨, 순흥안씨, 탐진안씨, 나주나씨, 밀양손씨, 고성박씨, 고산백씨, 안동김씨 등 다양한 재지사족의 세거지이기도 하였다. 이는 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무성서원과 용계서원 등이 위치하여 교육 환경도 좋았음을 보여준다.²¹⁾

조선 후기에 이르면 각 문중은 추송과 정려, 신원, 추증 등 선조의 행적을 재평가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문집의 발간, 비석의 설립과 정려, 서원과 사우의 건립 등을 활발히 하였다.²²⁾ 고현내도 마찬가지로 무성서원을 비롯한 남천사, 용계서원, 송산사, 도봉사가 같은 맥락으로 설립되었다. 물론 필양사와 시산사와 항일 운동을 했던 김영상과 최익현, 김기술, 김직술 등을 배향하여 시대가 뒤떨어지지만, 최익현을 제외한 이들도 모두 도강김씨이다.

이처럼 고현내에는 관련 문화유산이 많지만 현재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만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김희련 개국원종공신녹권, 고신왕지, 고현동 향약을 비롯한 보물 3점과 사적(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 무성리석불입상 등 전라북도 기념물 6건이 있다. 이외에도 용계서원과 필양사, 한정, 칠광도는 정읍시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즉, 반경 2Km 안에 각종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웹철 이후까지 살펴보면 총 7개이다.

19) 이강오, 앞의 논문, 1992, 15-17쪽.

20) 박정민, 앞의 논문, 2021.

21) 백승종, 앞의 책, 1996, 49-56쪽.

22) 이해준, 「가족에서 문중으로-집안의 내력과 형성이야기」, 『조선시대사』 2, 푸른역사, 2015, 161쪽.

<표 4> 태산선비문화권의 문화유산 현황²³⁾

구분	명칭	위치	비고
보물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	칠보면 남전길 18-13	조선 태조4년(1395) 도봉사 연시각 보존
	김회련 고신왕지	칠보면 남전길 18-13	조선 태조 4년(1395), 태조 6년(1397) 도봉사 연시각 보존
	고현동 향약	칠보면 남전길 90	최초의 향약 고현동약좌목, 태인향약안 등 29 책 동각에 보존
사적	무성서원	칠보면 원촌1길 44-12	세계문화유산 유교
국가지정문화유산 소계		4	
전라북도 기념물	무성리석불입상	칠보면 무성리 434-1	불교유적
	무성리삼층석탑	칠보면 무성리 434-1	불교유적
	도강김씨 훈도공파 중종 고문서	칠보면 무성길 167-61	교지(敎旨) 4점, 교첩(敎牒) 3점, 분재기(分財記) 1점
	불우현 정극인 묘	칠보면 무성리 산 34	상춘곡 저자 및 무성서원 배향 인물
	송정	칠보면 무성리 264	칠광십현 관련
	남천사	칠보면 남전길 34-13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손홍록과 안의 배향
도지정문화유산 소계		6	

아울러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²⁴⁾ 이들의 분류를 보면 누정과 정려, 효열비, 서원과 사우 등 유교 유적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석문과 문집, 회화도 유교와 관련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의 성격은 명확해진다. 한편, 불우현 정극인 묘도 비지정 문화유산이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23년에 전라북도 기념물로 승격되었다.²⁵⁾ 이러한 선례를 본다면 비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일부는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읍시는 주요 관광지를 크게 내장산 일원,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태산선비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태산선비문화권은 “정읍 동북권역을 관광하는 코스로 보물 제 289호인 피향정을 비롯하여 신라말의 유현인 고운 최치원과 조선 시대 태인현감이던 신잠을 기리는 무성서원, 옥정호 일원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라며 피향정→무성서원→섬진강수력발전소→김명관고택→옥정호→임병찬 창의 유적지로 설정하였다.²⁶⁾

정읍시에서 설정한 태산선비문화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이 있는 칠보면을 비롯

23) 정읍시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4) 시산사, 송산사, 도봉사, 영모당, 송정, 후송정, 영성정, 호호정(호호정유허비), 감운정, 영벽정, 송인지 효자정려, 김기혁 효자정려, 자누자씨 열녀정려, 해주오씨 열녀비, 사세효 열정비, 함평이씨 효자정려비, 정순왕후 태생유지비, 고현동각, 무성리 고비군, 시산리 고비군, 유상대 유적비, 의사 김천술 순절비, 김후진 유허비, 최치원 영상, 무성서원원지, 송정십현도, 송정수계지도, 무성리 산성 등이 있다.

25) 「'불우현 정극인 묘'전북 기념물160호 지정 승격」, 『전라일보』, 2023년 3월 23일.

26) 정읍시청 홈페이지
(https://www.jeongeup.go.kr/culture/index.jeongeup?menuCd=DOM_000000604004001003) 2023년 10월 25일 검색.

하여 태인면, 북면, 용동면, 산외면, 산내면 일대로 조선시대 태인현에 해당한다. 이곳은 지난 2019년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과 피향정, 지방정원 구절초 테마 공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거리는 반경 20Km나 될 정도로 동선이 상당히 멀어 관광객들의 주의를 끌기에 약점이 있다.

실제로 태산선비문화권의 입장객 통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²⁷⁾ 이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구절초 테마공원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2019년에 304,303명으로 폭등했다. 2020년은 0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통계가 잘못 합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1년에 다시 약 40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내장산 다음가는 정읍의 대표 관광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²⁸⁾

<표 5> 2017년 이후 태산선비문화권의 입장객 통계

대상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피향정	4,987	10,443	12,612	6,236	3,405	4,851
무성서원	12,275	13,081	22,698	12,090	7,341	9,873
칠보물 테마유원지	33,756	44,037	27,773	731	495	23,088
태산선비마 을	-	-	13,119	2,690	1,638	4,859
김명관고택	11,548	15,183	17,724	9,123	5,938	7,471
구절초 지방정원	139,308	79,150	304,303	0	392,478	534,556

칠보물테마유원지는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대부분 입장객은 7, 8월에 집중되어 있다.²⁹⁾ 무성서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9년에 이전보다 입장객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물론 코로나-19로 이듬해 반으로 줄었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선방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김명관 고택도 피향정보다 많은 인원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향정→무성서원→김명관고택→옥정호(구절초 지방공원)의 사이에 상관관계는 크게 없다고 보인다. 즉, 정읍시에서 설정한 태산선비문화권과 입장객들의 연관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브랜드 파워와 선비문화권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태산선비문화권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무성서원 일대는 백제 때부터 조선 초까지 약 천년 동안 치소가 있었던 만큼 예전부터 살기 좋고 호남의 대표적 풍수지로 불릴 정도로 훌륭한 곳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으로 알려진 『상춘곡』의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 선비정신으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말 최고 화가로 알려진 석지 채용신이 이 지역에 머물며 그린 칠광도라는 그림이 남아 있다. 칠광도에 성황산 아래 무성서원이 위치한 원촌마을, 가운데 동편·남전마을, 하단에 송산

27)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https://know.tour.go.kr/>) 검색일 : 2023년 10월 25일.

28) 참고로 내장산국립공원은 2017년 1,187,553명, 2018년 1,051,511명, 2019년 992,746명, 2020년 788,964명, 2021년 822,713명, 2022년 922,205명으로 압도적 1위이다.

29) 예를 들어 2018년의 입장객 가운데 7, 8월이 43,100명으로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마음이 그려져 있고, 좌측으로 동진강이 흐르고 있어 전반적인 고현내의 경관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여기에는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태산사와 유상대, 후송정, 송정과 영당, 무성리 석불입상, 호호정유허비와 유상대, 동각, 연시각, 남천사, 태산사 등이 그려져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고현내의 주요 유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³⁰⁾ 그리고 이 범위는 필자가 제시한 태산선비문화권과 일치한다. 따라서 칠광도를 중심으로 태산선비문화권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활성화 방안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태산선비문화권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은 충분히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이곳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점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확장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한다.

1) 전망대 설치(채용신 기념관)

석지(石芝) 채용신(1850-1941)은 조선말부터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회화 관련 논문은 이미 다수가 발간되었고,³¹⁾ 200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석지 채용신 특별전’이 열린 이래 각종 기획 전시전이 열렸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도 정읍시립박물관의 ‘조선의 어진화사 채용신 특별전’, KBS전주방송총국의 ‘역사의 흐름 채용신 특별 기획전’,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 도서관의 ‘석지 채용신 초상화 특별전’ 등이 개최되는 등 지금까지 조명 받는 화가이다.

채용신은 서울 삼청동에서 태어나 무과에 급제 한 후 사과(司果)와 의금부도사, 돌산진수군첨절제사를 지낸 후 퇴직하여 전주에 머물렀다. 1900년에 채용신은 태조어진의 모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래 고종의 어진까지 그리며 최고의 초상화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정산군수를 마친 1906년경부터 전북의 전주, 익산, 고부, 칠보 등을 다니며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이때 그린 작품들이 황현과 최익현 등 우국지사가 많다.³²⁾



<그림 4> 석지 채용신의 『칠광도』(1910년 작)
정읍시립박물관 제공

30) 박정민, 앞의 논문, 2020a.

31) 전인지, 「석지 채용신(1850-1941)考 - 생애와 작품에 보이는 근대성을 중심으로 -」, 『고고학지』 17, 2011.

32) 전인지, 앞의 논문, 2011, 783-784쪽.

채용신은 1910년경에 고현내의 김직술의 집에 머물면서 칠광도를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당대의 경관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³³⁾ 특히, 무성서원이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전근대 무성서원 일대의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칠광도의 상징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그는 무성서원에 모셔져 있는 최치원 영정을 모사하였다. 또한, 1906년의 최익현이 무성서원의 강회에 참석한 뒤 의병을 일으킬 것을 제안하였고, 임병찬과 이 지역 유림들이 호남 지역 최초의 의병을 일으켰다.³⁴⁾ 이러한 인연 등으로 채용신은 최익현의 초상화를 그렸고, 1911년에 병오창의에 참여했던 이 지역 유림인 김기술과 김직술의 초상화도 그렸다.

이외 1910년에 노인들에게 은사금을 주자 사령장을 찢어 일왕을 모독한 죄로 군산으로 압송할 때 신창진에서 만경강에 몸을 던진 김영상도 이 지역 인물이다.³⁵⁾ 그리고 관련 서사를 ‘춘우정 투수도’로 그려낸 인물 역시 채용신이다. 아울러 채용신은 1923년부터 신태인에 채석강 도화소라는 공방을 차려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이처럼 채용신은 유독 고현내 지역에 머물며 관련 인물들의 초상화 등까지 그려냈던 인연이 있기에 정읍은 충분히 채용신의 상징성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태산선비문화권을 설정하는 기본 자료로 칠광도를 이용한다면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칠광도를 그린 시점을 추정하면 송산 정상으로 보인다. 현재 송산의 정상에 올라가도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칠광도를 디오라마 형식으로 구현하여 해당 지역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키오스크와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칠광도의 위치와 현재 마을 혹은 유적의 위치를 비교해 보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국립경주박물관 디오라마

한편, 전망대에 단순히 나무데크를 설치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만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채용신 전시관 혹은 방문자센터를 만들어 이 일대에서 그렸던 칠광도와 송정십현도, 김영상투수도, 김직술 초상화 등을 전시하여 지역성과 채용신의 관계를 조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전시관의 역할이 아닌 채용신이 거주했던 공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또 하나의 관람 시설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유상대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칠광도에도 나오듯이 이 일대는 동진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최치원의 흔적이 있다는 유상대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유상대는 현재의 절강성(浙江省) 소흥현(小興縣) 난정(蘭亭)에서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가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연회를 즐겼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즉,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재직할 때 이곳에서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었다고 한

33) 박정민, 앞의 논문, 2020a, 201-202쪽.

34) 강길원, 앞의 논문, 2003.

35) 김영상은 1888년과 1896년에 무성서원의 유림강장(儒林講堂)을 역임하였고, 1887년에는 강수재증수기를 짓기도 하였다.〔갑을기사〕, 『무성서원원지』 상, 1930)

다. 실제 최치원이 이곳에서 유상곡수를 즐겼는지 알 수 없지만, 후대인들은 최치원이 유상대와 관련된 서사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늦어도 조선 초부터 최치원의 유풍이 계곡과 돌, 나무들 사이에 남아 있다고 표현이 각종 시문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유상대의 실물이 조선 초부터 조선 후기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735년에 대홍수로 유상대는 폐허가 되었고, 1682년에 현감 조상우가 세운 비석도 사라졌다. 이후 1794년에 조항진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유상대가 훼손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복구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넷물을 끌어들여 유상지수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처럼 완벽한 복구를 이루지 못하고, 정비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으로 이 기록을 보면 홍수 이전에는 동진강 물을 끌어들여 유상지수를 즐기는 공간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홍수로 유상대가 파괴되었음에도 여전히 큰 상징을 가진 곳이었다. 1833년에 전라도 관찰사였던 서유구가 무성서원을 들렀다가 최치원을 모신 곳에서 『계원필경』을 보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감영에서 출간을 허락해 주었다. 이처럼 서유구가 무성서원에 왔을 때 둘러봤던 공간이 바로 유상대였다. 하지만 이듬해 유상대는 또 다시 큰 수해를 입으며 그나마 복원했던 모습을 잃게 되었다.³⁶⁾

이러한 상황 때문에 채용신은 칠광도에 주변을 돌로 두르고 흙으로 단을 쌓은 형태로 그린 것이라고 보인다. 현재 그 위치는 감운정과 노휴재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995년에 정읍시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약 300㎡의 단일 암반이 울록불록한 형태로 있었다고 한다. 발굴유물들을 고려했을 때 유상대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유상대와 관련된 유구가 있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한다.³⁷⁾

이처럼 유상대를 최치원이 진짜로 사용했는지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후대인들은 그 장소를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해동지도」와 「동여도」, 「1872년지방지도」 등의 태인현 지도에서 유상대가 기재되어 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유상대에 관한 기억이 남아 있다. 1970년에 지역 유림들이 감운정 옆에 ‘고운 최선생 유상대 유적지비(孤雲崔先生流觴臺遺蹟之碑)’를 세운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치원의 상징 공간으로 유상대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 함양군은 상림숲을 토대로 최치원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 여기에는 2008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150억을 들여 10만㎡ 공원과 역사관, 고운기념관을 조성하였다.³⁸⁾ 최근에는 경주시에서 최치원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5년간 15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건축양식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전시와 교육,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한다.³⁹⁾

함양은 최치원이 다스린 곳, 상림숲을 조성했다는 인연으로 공원과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더구나 고운기념관에 걸려있는 최치원 영정은 무성서원의 소장본을 모사한 것이다. 반면 무성서원은 최치원을 배향한 것을 근거로 사액을 받았고, 세계문화유산까지 등재된 대표적인 서원이다. 아울러 각종 문헌과 설화 등에서 최치원과 관련된 근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유풍이 남아 있다는 유상대를 보유하고 있는 정읍에서 이를 실현하지 못할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무성서원원지』에 1784년(정조 8)에 최치원의 영정을 후손인 최항대의 집에서 가져

36) 박정민, 앞의 논문, 2020a, 212-213쪽.

37) 전북문화재 연구원, 『전 유상대지 시굴조사 보고서』, 정읍시, 2004.

38) 「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사당·전시관·고운루 건립 등 공정률 70%」, 『함양신문』(2017년 7월 10일) 검색일 : 2023년 10월 26일.

39) 「국내외 여러 곳 있는데…경주시 최치원기념관 건립 논란」, 『연합뉴스』(2023년 8월 29일) 검색일 : 2023년 10월 26일.

오는 올 때 낙안향교를 출발하여 무성서원에 도착하였다. 이때 태인의 유림들은 최치원의 영정을 맞이하면서 ‘영정은 천년 동안 이어진 종유의 감응이 있다’며 유상대에서 잠시 행차를 멈추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⁴⁰⁾ 이러한 점은 태인의 유림들이 최치원과 무성서원, 유상대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내용은 후일 영정봉안 행렬 등으로 재현할 수 있고, 하나의 콘텐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감운정 자리에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자연스럽게 조경의 미와 그늘을 형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거기에 바위 등을 조성하며 직접 물을 흐를 수 있게 하여 유상곡수를 재현하고, 사람들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최치원 혹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즐겼던 것처럼 이곳에서 다도(茶道)와 시를 짓는 등 풍류를 즐기는 체험 공간으로 하여 태산선비문화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아울러 동진강에 생태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을 누리는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최치원 혹은 유상대 등과 관련된 동상이나 조형물 등을 제작하여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깃대종 등을 탐조할 수 있는 생태공원 형태로 융합할 수 있다.⁴¹⁾ 그렇다면 최치원과 관련된 관광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예산은 환경부의 생태문화 복원과 활성화 사업의 강문화 복원 및 활성화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⁴²⁾ 또한, 최근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의 공원 프로젝트’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현향약의 재조명과 마을공동체 공간 활용

태산선비문화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조선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향촌자치 규약인 향약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1475년(성종 6)에 정극인을 중심으로 고현내 주민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고현향약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가장 빠른 향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선조 때부터 1977년까지 약 400년 간 작성된 29책은 이 지역에서 시행한 향약에 대한 자료이다.⁴³⁾ 이와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199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현향약의 중심지 중 하나는 동각으로 현재 남전마을에 위치한다. 동각은 교육기관과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하는 일종의 주민 자치 장소였다. 이곳은 조선시대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현동 향약은 이곳에서 보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1834년에 큰 수해를 입으며 유상대는 물론이고, 동각까지 파괴되었다. 주민들은 이를 복구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 10년이 지나서야 재건 사업을 실시하였고, 파괴된 지 20년이 지난 1854년에 건립되었다.⁴⁴⁾

이후 주민들이 자치 향약을 진행하는 논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또한,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 유림들은 김기술 등을 중심으로 민보군을 결성하였다. 당시 민보군을 결성한 창의소가 바로 이 동각이었다. 게다가 이곳에 사는 동학 접주인 김문행을 잡기 위해 그의 어머니와 첩을 결박하여 이곳에 가두어 두기도 했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⁴⁵⁾

위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각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동각의 출입문부터 관리 되지 않고, 옆에 안내 비석 정도만 있을 뿐이다. 물론 동각 건물

40) 「문창후최선생영정봉안사적」, 『무성서원원지』 상, 1884.

41) 김보국·김상욱·천정윤, 「동진강 생태역사문화 자원의 현황과 활용」, 『건지인문학』 34, 2022.

42) 박정민, 앞의 논문, 2020b, 226쪽.

43) 이강오, 앞의 논문, 1992 ; 나수지, 앞의 논문, 2022.

44) 백승종, 앞의 책, 1996, 135쪽.

45) 이진영, 앞의 논문, 1993, 28-34쪽.



<그림 6> 현재의 동각(정면에 보이는 것은 대문이고 좌측의 건물이 동각이다.)

동각의 맞은편에 ‘상춘곡과 고현향약 발상지 표지비’ 등이 모여 있고, 1910년에 그려진 칠광도에도 동각이 현재의 위치에 등장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동각이 고현향약의 상징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각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동각 앞에 있는 비석도 5개 정도 모여 있는데 모두 한문으로 기재되어 일반인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우측의 3개는 마모까지 심하여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옆에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풀어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각에 오기 위해 마련된 주차장 바로 앞에는 정순왕후 유허비각이 있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정비로 판돈녕부사를 지낸 송현수의 딸로 이곳에서 태어나 한양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1453년(단종 1)에 간택되어 이듬해에 책봉되었는데, 계유정란으로 의덕왕대비(懿德王大妃)로 봉하되었다가 사육신의 단종복위 운동으로 부인으로 강등되었다. 후일 1698년(숙종 24)에 단종이 추복되자 정순왕후가 되었다. 능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릉에 있다. 후일 정순왕후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을 만들었는데, 동각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동각을 보고 오는 사람이 반드시 이곳을 다녀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

아울러 동각을 최대한 복원·정비하여 문화 및 주민들의 자치 공간으로 재활용 할 필요가 있다. 동각의 맞은편에 관리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보물로 지정된 고현향약의 복사본을 전시하며 고현향약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의미 등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곳에서 있었던 각종 서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여 태산선비문화권 주민들의 자치 행동을 했던 아카이빙 시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에 청주시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덕촌리 독립운동가 마을’을 조성하였다. 이곳에서 해당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자 독립운동 마을 표지석과 애국의 길, 정순만 기념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으며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 구축

지난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은 유일하게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칠광도에서 확인되듯 1910년대에도 지금과 거의 동일하게 원촌 마을 한 가운데 무성서원이 자리한다. 대부분의 서원은 마을과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지만 무성서원이 마을과 함께 한 것은 최치원의 생사당부터 송세림이 세운 향학당, 이후 이들이 합쳐지며 1615년에 태산서원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후일 1696년에 무성서원은 사액서원이 되면서 그 위상은 강화되었다.⁴⁶⁾

무성서원이 설립되는 과정부터 현재의 위치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여기에 1630년(인조 8)에 정극인·송세림·정언충·김약목, 1675년(숙종 1)에 김관이 추가 배향되었다. 이들은 영광정씨, 여산송씨, 경주정씨, 도강김씨로 이 지역의 대표적 문중이다.⁴⁷⁾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세거하는 장소에 무성서원을 건립한 것이다. 이외 정극인이 이곳에 거주하며 상춘곡을 짓고, 향약을 만들었으며 가숙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⁴⁸⁾ 따라서 세계유산을 품은 마을이라는 이미지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태산선비문화권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유·무형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 및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여기에 동반되는 관광 활성화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다.⁴⁹⁾ 결국 태산선비문화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지구 개발 혹은 관련 시설 등의 설립과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태산선비문화권의 스토리텔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선행연구에서 주요 무성서원의 특징으로 선비문화의 발상과 최치원, 선비문화의 중심지, 선비정신의 실천지로 꼽은 적이 있다.⁵⁰⁾ 이는 비단 무성서원만 해당하지 않고, 태산선비문화권에도 모두 해당될 수 있다.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앞서 살펴본 문화유산 자원들과 연계되어 수많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태산선비문화권의 스토리텔링 기초 자료

연번	주제	주요 키워드	비고
1	최치원과 태산선비문화권	태산군수, 생사당, 무성서원 배향, 유상대, 최치원 영정, 현가루, 피향정, 최치원과 거북바위	역사 기록, 유적, 설화

46) 태산서원의 설립과정은 다음 연구에 자세하다.(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 『국학연구』 35, 2018)

47) 이외 청도김씨, 순흥안씨 등 앞서 언급한 가문들이 있다.(백승종, 앞의 책, 1996, 49-56쪽)

48) 임선빈, 앞의 논문, 2018, 275쪽.

49)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이창식,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전략과 가치창조 -이사부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53, 2010 ; 김영순·윤희진, 「향토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과정에 관한 연구 - 인천시 서구 검단의 황곡마을을 중심으로 -」, 『인문콘텐츠』 17, 2010 ; 이학주,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 춘천시 구곡폭포 스토리텔링사례를 통해서 -」, 『인문과학』 57,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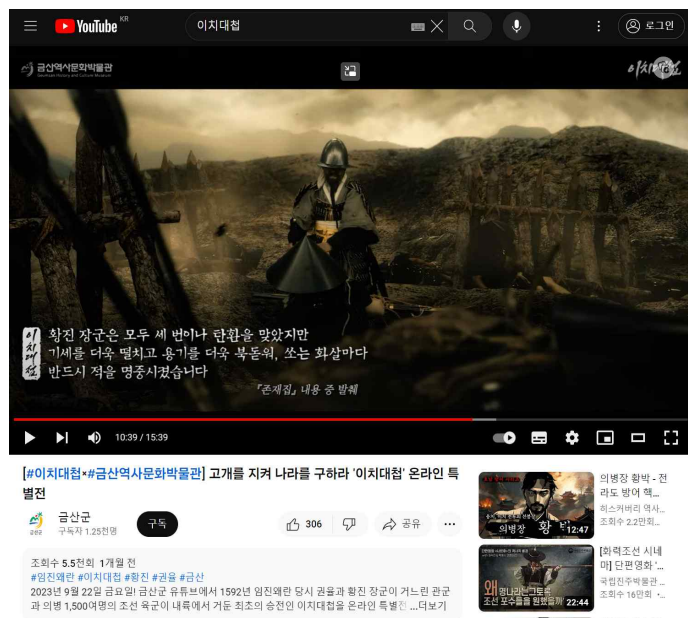
2	홍진에 못친 정극인	불우현, 상춘곡, 고현향약, 정극인 생가와 묘	역사 기록, 유적, 문학작품
3	최초의 향약, 고현향약	정극인, 송세립, 보물, 동각, 자치기구	역사 기록, 유적, 주민 증언
4	마을과 함께한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최치원, 신잠, 정극인 등 배향인, 사액서원, 서원철폐, 현가루, 무성서원원지, 사적	역사 기록, 유적, 주민 증언
5	어지러운 세상과 등진 칠광십현	은일자중, 계축옥사, 칠광, 십현, 칠광도, 송정수계지도, 송정십현도, 송정	역사 기록, 유적, 설화, 회화
6	충절의 고장	임진왜란 의병, 조선왕조실록의 수호, 병오창의, 최익현, 임병찬, 태산사, 병오창의 추모 제전	역사 기록, 유적, 설화, 회화

<표 6>과 같이 크게 6가지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할 수 있다. 먼저 태산선비문화권의 가장 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최치원과 인연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에서 보듯이 이 지역은 상당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역사 기록과 유적, 설화 등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천 년 이상 그를 기렸고, 후손의 집에 보관되던 최치원의 영정을 무성서원에 봉안하도록 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최치원과 연관성을 인정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서사들이 쌓여 부임하는 현감, 전라도 관찰사 등이 이곳에 들러 그 유풍을 느꼈던 것이다.

다음으로 가사문학의 대가인 정극인이 이곳에 머물며 지었던 상춘곡과 이 지역에서 최초의 향약이라고 알려진 고현향약을 창시하고, 주민에게 교육을 베풀며 안빈낙도의 삶을 보였던 것도 충분히 하나의 스토리로 제공할 수 있다. 이외 고현향약과 무성서원, 칠광십현, 임진왜란과 병오창의 등 국가가 어려울 때 행동했던 이 지역 주민들의 삶 모두 주요한 이야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이듯이 태산선비문화관의 가장 큰 장점은 역사적 사료와 유적 등이 동반되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스토리텔링 작가가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구성하고 제작하여 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이미지 브랜드화, 관광객 유입 및 콘텐츠 자료 구축 등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한편, 영상 편집에도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요 자원을 영상으로 만들어 박물관 등에서 상영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



<그림 8> 금산군 이치대첩 온라인 특별전

50) 박정민, 앞의 논문, 2020b, 258-264쪽.

산군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과 황진이 거느린 관군과 의병이 일본군에 맞서 싸워 최초의 승리를 거둔 ‘이치대첩’을 영상 제작하여 온라인 특별전을 벌였다.⁵¹⁾

해당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각종 사료와 유적지를 다각도로 보여주었고, 현재 학계의 통설을 성실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갑주나 무기 등도 치밀하게 고증하였으며 배우들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는 유튜브에 공개한지 한 달 만에 5만 5천회의 조회 수에 이르렀고, 댓글 반응도 호평이다.⁵²⁾ 이러한 점은 태산선비문화권의 스토리텔링 제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기타

태산선비문화권에는 칠보물테마유원지 및 체험전시관이 조성되어 있다. <표 5>에서 확인되듯이 이곳은 코로나 이전 2~4만 명이 찾는 물놀이 명소이지만 여름철을 제외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만일 칠보물테마유원지와 무성서원이 연계되었다면 7, 8월에 무성서원의 방문객도 상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019년 7, 8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그 이후인 2022년 7, 8월의 칠보물테마유원지와 무성서원, 태산선비마을의 입장객을 비교해 보았다.

<표 7>에서 확인되듯이 여름철에 수 만 명이나 칠보물테마유원지를 다녀간다. 하지만 무성서원을 찾는 사람은 오히려 적은 경향을 보인다. 2019년 7월에 3,377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즉, 약 500m 지점에 무성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성서원에 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태산선비마을에 오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 특성상 대부분 무성서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련성은 밀접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칠보물테마유원지에 방문하는 인원 중 상당수를 무성서원을 비롯한 태산선비문화권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7>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7, 8월 태산선비문화권의 입장객 통계

대상지	2018.7	2018.8	2019.7	2019.8	2022.7	2022.8
무성서원	1,111	683	3,377	2,349	626	618
칠보물 테마유원지	26,655	16,445	10,399	16,490	11,404	11,278
태산선비마을	—	—	1,119	1,743	173	109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야행사업’이다.⁵³⁾ 현재 문화재청은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총 389건을 진행하고 있다. 즉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 150건,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99건, 문화유산 야행 49건,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46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45건이다.⁵⁴⁾ 이 가운데 정읍시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내장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김명관 고택,

51)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이치대첩 특별전 개최」, 『대전일보』(2023년 9월 24일) 검색일 : 2023년 10월 30일.

52) 고개를 지켜 나라를 구하라 '이치대첩' 온라인 특별전 (<https://www.youtube.com/watch?v=LloKDyzE0JY>) 댓글 참조. 검색일 : 2023년 10월 30일.

53) 기존에는 ‘문화재 야행사업’이었으나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공식 변경하면서 사업명도 변경되었다.

54)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s://www.cha.go.kr/>) 검색일 : 2023년 10월 28일.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다시 피는 녹두꽃으로 3개나 선정되었다.

문화유산 야행산업을 비롯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방문객들에게 문화재의 인식과 정체성 확립, 문화생활 등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데, 문화재청은 2018년에 추진된 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전통산사에 약 303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지역경제에 2,061억 원의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하였다.⁵⁵⁾

이러한 점을 보면 서원과 문화유산 야행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매력적 장소로 태산선비문화권을 선정할 수 있다. 문화유산 야행은 거점(핵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전통문화와 역사·놀이·숙식·특산물 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⁵⁶⁾ 이미 이 지역에는 2013년 8월에 농어촌휴양마을로 지정된 태산선비마을이 있어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태산선비문화관과 숙소까지 완비하고 있다.⁵⁷⁾ 이곳은 지난 2022년에 백종원 등이 출연한 tvN 백패커의 촬영지이기도 하다.⁵⁸⁾

특히, 정읍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현재의 태산선비문화관과 전통관 사이에 지상 2층의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유교문화유산을 재현하여 선비문화를 느끼고 다양한 소통을 유도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동진강의 수변 공간을 조성하여 둘레길을 산책하고 자연을 벗 삼으며 향음주례와 선비 체험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공동체가 주역이 되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식단과 향토음식을 개발하며 환경 정화 및 보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⁵⁹⁾

이와 같은 기반 시설 확보를 기반으로 여름철 칠보물테마유원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는 무성서원을 비롯한 이 일대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문화유산 야행 사업을 한 번에 즐길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상징성 등을 보여주며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⁶⁰⁾

또한, 김영상의 손자인 김균(1888-1978)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은 『大東千字文』⁶¹⁾을 무성서원에서 익히고, 태산선비문화관에서 숙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강수재에서 천자문을 강학하도록 하고, 대동천자문의 일부를 목각하여 탁본을 뜬 후에 책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선비가 만든 대동천자문의 인식과 의미를 재음미할 수 있고, 우리 역사를 압축적으로 배우며 태산선비문화권이 가지는 기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5)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86선 선정」, 『문화재정보도자료』(2019년 9월 11일) 검색일 : 2023년 10월 28일. 아울러 2019년에 실시한 청주문화재 야행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재의 집적도와 역사적 건축물, 문화 경관 및 체험공간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문화유산에 함축되어 있는 정체성과 상징성, 시대성, 가치의 전승 등에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한다.(김성조·김재학, 「문화재야행 환경에서 지각된 장소성과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학연구』 44-8, 2020, 170쪽)

56) 「2024년 문화유산 야행사업 공모계획」(<https://www.cha.go.kr/>) 검색일 : 2023년 10월 28일.

57) 태산선비마을 홈페이지(<http://www.taesanin.com/>)

58) 「이번엔 출장요리사, 백종원의 새로운 도전」, 『오마이뉴스』(2022년 5월 27일) 검색일 : 2023년 10월 28일.

59) 정읍시청 내부자료.

60) 필자는 다른 연구에서 이를 제안한 적이 있다.(박정민, 앞의 논문, 2020b, 274쪽) 다만 그 방식에서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기술하였다.

61) 『大東千字文』은 1948년에 염재 김균이 편찬하였다. 「天地覆載, 日月照懸」(하늘은 만물을 덮고, 땅은 만물을 싣고 있으며, 해와 달은 하늘에서 비친다)로 시작하여, 「獨立不懼 榮譽克終」(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오래도록 명예롭고 끝이 좋으리라)으로 끝맺는다. 여기에는 고조선부터 삼국의 역사 등이 요약되었다. 또한,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합병된 일과 이준열사가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가서 순국한 일 등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속담과 풍속 등을 4자성어와 유사한 4언 또는 4자 典故로 만들었다.(송병렬, 「千字文類의 變容과 性格 考察」, 『한문학논집』 30, 2010, 12-19쪽)

4. 맺음말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일대는 약 50 가구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지난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이 있고, 무성리 석불입상, 무성리삼층석탑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 게다가 이곳은 불우현 정극인이 거주하며 상춘곡을 지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같은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시산리 동편·남전마을까지 확장하면 관련 내용은 더욱 증가한다. 평범한 농촌 마을로 보이는 이곳에 많은 역사문화 자원 등이 밀집한 것은 백제때 대시산군 이래 신라와 고려, 조선 초까지 읍치였기 때문이다. 1409년(태종 9)에 태산현이 인의현과 병합되며 태인현으로 고치고 그 치소가 옮겨가면서 그 성격에 변화가 나타났다.⁶²⁾

이 지역은 600년 가까이 치소가 아니었음에도 고현내(古縣內)로 불리며 향촌사회에서 여전한 세를 과시하였다. 사실 고현내가 속한 태인현은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에서도 읍격이 상당한 곳이었다. 현재의 전북에 속하는 26개 군현 가운데에서도 전답의 수가 5위권이었고, 호수와 인구도 4위권이였다.⁶³⁾ 심지어 태인현은 발보다 논의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았는데, 이는 동진강을 중심으로 현재의 칠보부터 태인, 신태인 등지에 펼쳐진 평야 덕분에 논농사를 짓기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고현내는 경제의 중심이었다. 세종대부터 누에를 키우는 잠실이 운영되었고, 목장도 있었다. 게다가 조선 초부터 도강김씨와 영광정씨 등이 이주하여 우수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농업 경영에 힘썼고, 풍족한 경제력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 지역 사족들은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가 14,620명 정도였고, 그 가운데 전라도 출신이 약 1,370명 정도(9.4%)였다. 전라도 내에서 20명 이상을 배출한 지역은 24개인데 태인현은 22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그 가운데 13명이 고현내 출신이었다. 태인현이 16-17개의 면으로 구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현내면에서만 이 숫자가 나온 것은 주목할 현상이었다. 그 원인은 정극인이 가숙을 세운 이후 송세림 등이 주도하여 향학당을 만들어졌고, 정언묵과 김관 등이 계승하며 탁월한 교육 여건을 조성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합격자들은 도강김씨, 여산송씨, 영광정씨, 안동김씨 등 이 지역 사족들에게 집중되었고, 이들이 동원(洞員)의 다수를 이루었다.⁶⁴⁾

이와 같은 점들이 영향을 끼쳐 최치원과 신잠의 생사당을 향학당과 합치며 태산서원을 건립하였고, 사액서원이 되며 무성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7세기 후반 고현내에 거주한 최서림은 문생의 숫자만 178명, 입사 또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만 14명이고, 이 가운데 태인이 6명이다.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던 손홍록과 안의를 배향한 남천사, 광해군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유유자적한 김대립, 김응빈 등을 모신 송산사 등 서원과 사우가 집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정려, 정자와 누각, 제각 등 유독 유교 문화와 관련된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처럼 고현내 일대만해도 많은 역사문화 자원이 살아 숨 쉬고 있어서 기존에 설정한 태산선비문화권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산선비문화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62) 이강오, 앞의 논문, 1992, 15-17쪽. 무성서원의 뒤편에 위치한 성황산에 토성지인 무성리 산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고태산(古泰山)이 현의 동쪽 20리에 있다”는 기록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72년 태인현 지도에도 이곳은 다른 면과 달리 무성서원과 남창(南倉), 유상대가 있고, 상당히 초가집 모양의 집들과 함께 장시를 나타내는 ‘시(市)’자가 적혀있기도 하다.

63) 충남으로 편입된 금산군과 진산현을 포함해도 이 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64) 이러한 점은 생원·진사 입격자 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백승종, 앞의 책, 1996)

볼 수 있다. 첫째, 조선 말-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채용신이 이 지역에 머물며 최익현, 김기술, 김직술의 초상화, 김영상투수도를 그렸던 인연이 있다. 그리고 1910년경에 이 지역을 그린 칠광도가 있다. 이 그림은 당대의 경관을 거의 그대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이곳에 나온 유적들이 상당수 제자리에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송산의 정상 위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칠광도를 디오라마 형식으로 구현하고, 키오스크와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가 가능하다면 채용신 전시관 혹은 방문자센터를 만들어 그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이 지역과 인연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최치원과 관련된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유상대를 복원하고, 동진강 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감운정 자리에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고, 바위 등을 조성하며 물을 흐르게 하여 유상곡수를 재현하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상대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역사적 근거에 따라 재현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한 고현향약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재 폐가처럼 남아 있는 동각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동각을 최대한 복원·정비하여 문화 및 주민들의 자치 공간으로 재활용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물로 지정된 고현향약을 복사하여 전시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서사를 아카이빙하여 현재까지 자치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넷째, 태산선비문화권의 역사적 궤적과 함께하는 다양한 내용을 스토리텔링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데, 최치원부터 의병활동까지 크게 6가지의 서사를 구현할 수 있다. 즉, 역사적 사료와 유적이 동반된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를 제작할 수 있다. 향후 전문 작가를 섭외하여 관련 내용을 제작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 구축, 관광객 유입의 근거로 나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칠보물테마유원지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독 7, 8월에만 많은 입장객이 몰리는 이곳에 문화유산 야행사업과 연계한다면 그 인원이 무성서원 등 태산선비문화권을 다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균이 지은 『대동천자문』을 익히고 체험하며 새롭게 조성될 유교수련원 등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정읍시의 정책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훌륭한 대안을 만들어 태산선비문화권을 새롭게 설정하고, 활성화 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1. 사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태인현읍지』, 『1872년 지방지도』(태인현), 『무성서원원지』(1884), 『무성서원원지』(1930)

2. 저서

전라북도 향교재단, 『전북향교 원우대관』, 전라북도 향교재단, 1993
백승중, 『한국사회사연구-15-19세기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유상대지 시굴조사 보고서』, 정읍시, 200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해준, 『조선후기 서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이해준 등 공저, 『조선시대사』 2, 푸른역사, 2015

3. 논문

이강오, 「태인 古縣 향약에 대한 연구(1)」 『전라문화논총』 1, 1986
이강오, 「泰仁 古縣鄉約에 대한 小考」, 『향토사연구』 4, 1992
이진영, 「동학농민전쟁기 전라도 태인 고현내면의 반농민군 구성과 활동」, 『전라문화논총』 6, 1993
강길원, 「면암 최익현의 병오창의」, 『전북사학』 26, 2003.
김정식·김재식·김정문, 「칠광도에 표현된 경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4, 2008
송병렬, 「千字文類의 變容과 性格 考察」, 『한문학논집』 30, 2010
전인지, 「석지 채용신(1850-1941)考 - 생애와 작품에 보이는 근대성을 중심으로 -」, 『고고학지』 17, 2011.
김홍주, 「조선 향촌규약에 나타난 마을공동체 운영 특성: 고현향약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9, 2013
박종배, 「불우한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 2013
신동훈, 「16세기 서원 사액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현실』 98, 2014
이춘구, 「자치법규로서의 향약에 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47, 2016
유육례, 「정극인의 유교적 대동공동체의 삶의 추구」, 『동방학』 36, 2017.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의 건립과 운영」, 『국학연구』 35, 2018
김성조·김재학, 「문화재야행 환경에서 지각된 장소성과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학연구』 44-8, 2020
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 칠광도를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189, 2020a.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2020b.
박정민, 「무성서원지의 체제와 특징」, 『강원사학』 37, 2021
나수지, 「태인 고현향약의 성립과 운영주체」, 『건지인문학』 33, 2022
김보국·김상욱·천정운, 「동진강 생태역사문화 자원의 현황과 활용」, 『건지인문학』 34, 2022

안영훈, 「정읍 무성서원과 선비문화 원류 최치원」, 『대순사상논총』 40, 2022.

4. 홈페이지

금산역사문화박물관(<https://www.youtube.com/watch?v=LloKDyzE0JY>)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s://www.cha.go.kr/>)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https://know.tour.go.kr/>)

태산선비마을 홈페이지(<http://www.taesanin.com/>)

토론문 01

태산선비 문화권의 설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토론 장충희(전북연구원)

장충희(전북연구원)

토론에 앞서 정읍의 자람이자 전북의 대표유산이며, 세계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무성서원의 역사적 위상과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토론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된 이후 벌써 4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 여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휘날리던 여러 선생님의 도포 자락과 갓끈의 모습이 여전히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전북대 박정민 교수님께서서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 등재되기 전부터 특히,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을 고민해오셨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저희 전북연구원에서 연차로 수행되고 있는 기본연구 -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2019)」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으며, 후임자인 저 역시 그러한 자세와 열정 그리고 탁견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토론문 역시 갑론을박의 형태보다는 무성서원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견해의 외연과 내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유산 활용의 지평선

최근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중심주의에서 이제는 대중들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 활용까지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수립된 문화재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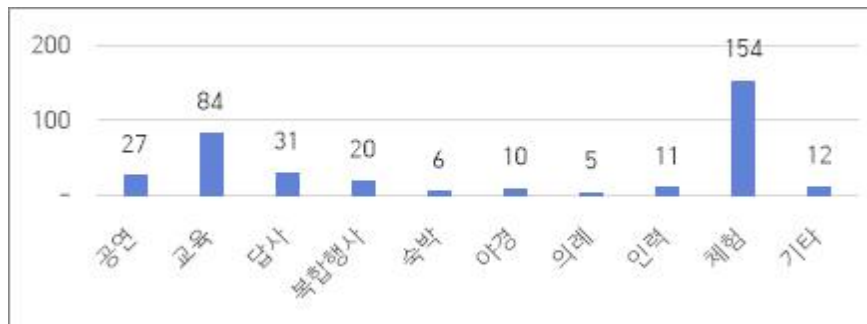
-
-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 목표
 - : 문화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 :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의 조화·상생
 - :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약
 - 추진전략
 - :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 : 국민행복시대의 문화유산 활용
 - :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문화유산
 - : 미래를 여는 문화재스마트 행정
 - 기본계획 방향성 및 시사점
 - : 2012년부터 핵심목표로 상정된 ‘활용을 통한 국민공감’ 개념의 확대 및 강화
 - :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래먹거리’ 기반마련 및 가치공감 추구
 - : 세계로 뻗어나가는 K-Culture 중심의 문화재 정책 지향
 - :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 및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유산관리
 - 리의 디지털 관리(보존 및 활용)
-

최초 1962년 제정된 이래 문화재보호법과 이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문화유산의 활용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문화유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미래먹거리)까지 그 활용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무성서원의 역사적 위상과 이에 상응하는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들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특별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전북과 정읍시민들에게 무성서원은 새로운 정읍

의 발전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화향유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

무성서원의 역사적인 가치를 대중들과 공감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 기념관 건립, 유상대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는 관자권수편에 이르는 ‘종신지계 막여수인’의 측면에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토론문에서는 이러한 발표문의 내용에 맞추어 문화유산인 무성서원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활용방안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원된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2022년 기준 문화재청 내부자료 참조)



프로그램 유형별 지역 문화유산 활용 현황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유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체험과 교육’입니다.(약 2/3) 즉, 문화유산 활용에 있어 맹점은 문화향유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이며, 교육은 공감을, 그리고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태산선비 문화권’을 유소년들에게 교육 혹은 체험을 통한 가치 전달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3. 서원, 스토리텔링 - 현대인과의 교감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역사문화자원에 있어 스토리텔링에 대하여 ‘대중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리텔링 즉, 공감을 위해서는 먼저 대중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SNS 등 웹상에서 대중들이 ‘서원’을 키워드로 작성된 빅데이터 분석 내용입니다.



‘서원’ 연관어 키워드 클라우드

위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들이 서원을 웹상에서 검색 혹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오늘의 주제가 되는 ‘정읍 무성서원’이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무성서원의 대중적인 인지도 제고가 활성화 방안의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서원’ 연관어 키워드 감성분석(긍정)



‘서원’ 연관어 키워드 감성분석(부정)

또한 대중들이 생각하는 서원에 대한 생각을 위의 두 클라우드 결과를 통해 약간은 엿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좋다, 전통적이다 등이 주목되며, 부정적으로는 어렵고 난해하다는 부분이 주목되었습니다. 향후 무성서원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과정에서 전통적인 모습은 확대하고, 어렵고 난해한 면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과 공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렵고 난해하다’는 서원의 기존 이미지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서원을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계유산은 세계가 인정한 인류의 유산이자, 지역에 기반한 세계적 자산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은 향후 정읍의 역사문화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며 토론문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주제발표 02

무성서원 일대 문화재 추진 전략

발표 남해경(전북대)

< 목 차 >

1. 서론
2. 문화재
 - 2-1. 정읍 무성서원
 - 2-2. 칠광도
 - 2-3. 정극인과 묘
 - 2-4. 주변 문화재
3. 문화재 추진 전략
 - 3-1. 문화재와 종류
 - 3-2. 문화재 추진전략
 - 3-3. 과제
4. 맺음말

1. 서론

무성서원은 고려시대에 정읍지방의 유림들이 최치원(崔致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생사당(生祠堂)을 창건하고 태산사(泰山祠)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태산사는 1483년(성종 14)에 정극인(丁克仁)이 세운 향학당(鄉學堂)이 있던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1696년(숙종 22) 최치원과 신잠의 두 사당을 병합한 뒤 ‘무성(武城)’이라고 사액하여 사액서원이 되었다. 무성서원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였다. 이후 무성서원은 중수와 보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로는 최치원을 비롯하여 1549년(명종 4) 신잠(申潛), 1630년(인조 8) 정극인, 송세림(宋世琳), 정언충(鄭彦忠), 김약묵(金若默)과 1675년(숙종 1) 김관(金灌) 등 7인이다.

무성서원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은 <원규(院規)>에 나타나 있는데 유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였다. 교과목은 격몽요결,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등 4서3경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입학 자격이나 기준은 나이, 신분과 관계없이 독서에 뜻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자는 모두 허

용하였다. 단지 일단 입학하면 용모를 단정히 하고 정신을 통일하여 의리를 깨우침에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잡담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무성서원의 건축은 홍살문을 지나 누각인 현가루(絃歌樓)를 지나면 명륜당인 무성서원이 있고 내삼문을 지나면 사당인 태산사(泰山祠)가 위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서원에서 일반적으로 강당의 좌우에 위치하게 되는 동서재(東西齋) 대신 강수재(講修齋)가 서원의 우측 별도의 공간에 있고 좌측에 현감들의 선정비와 무성서원과 관련된 비석들로 이루어진 부분은 조금 색다르다.

무성서원의 문화재 이력은 1968년 12월 19일 “무성서원”으로 사적(제 166호)에 지정되었다가 2011년 7월 28일 “정읍 무성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화재의 성격은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교육기관인 서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분류는 유적건조물로 지정되었다. 2018년 1월에는 정읍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대표서원 9곳을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여,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서원 8곳과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무성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칠보면은 무성서원과 관련된 최치원, 정극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즉, 무성서원의 뒷산에는 송정, 후송정, 영당, 시산사, 송산사, 한정, 필양사가 위치하고 있고 가까이에 정극인 묘소와 동상이 있으며 최치원과 관련된 유상대와 감운정이 있다. 이외에 인근에 무성서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같은 유형의 유교문화재인 남천사, 용계서원, 도봉사가 있다.

이처럼 한곳에 같은 성격과 유형의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곳도 드문 일인데 이를 확장시키고 지정문화재로 확장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고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재조명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재고하는 한편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고 이를 역사문화자원화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범위는 최치원과 정극인을 기반으로 무성서원과 관련된 유교문화유적으로 한정하였지만 지역적인 내용도 고려하였다.

2. 문화재

2-1. 정읍 무성서원

정읍 무성서원은 신라 후기의 학자였던 고운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申潛)을 제향하는 제향공간이면서 유생들을 공부시키는 강학공간이기도 하다. 정읍 무성서원의 시작은 고려시대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신라 후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의德行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당인 태산사(泰山祠)를 건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484년(성종 15) 정극인이 세운 향학당(鄉學堂)이 있던 지금의 자리인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로 이전하게 된다. 1549년(명종 4)에는 영천자 신잠(申潛)의 생사당(生祠堂)을 짓고 배향하였다.

1615년(광해군 7)에 태산사 자리에 선비들이 태산서원(泰山書院)을 지었으며, 1696년(숙

종 22) 최치원과 신잠의 두 사당을 합치고 무성서원 사액을 받았다. 이후 1630년(인조 8)에 정극인, 송세림(宋世琳), 정언충(鄭彦忠), 김약묵(金若默)을 배향하고 1675년(숙종 1)에 김관(金灌)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매년 2월과 8월 중정(中丁)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은 4변(籩) 4두(豆)이다. 유물로는 『기범연의(箕範衍義)』 1책 등 40여 종의 전적이 있다. 무성서원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였다. 이후 무성서원은 중수와 보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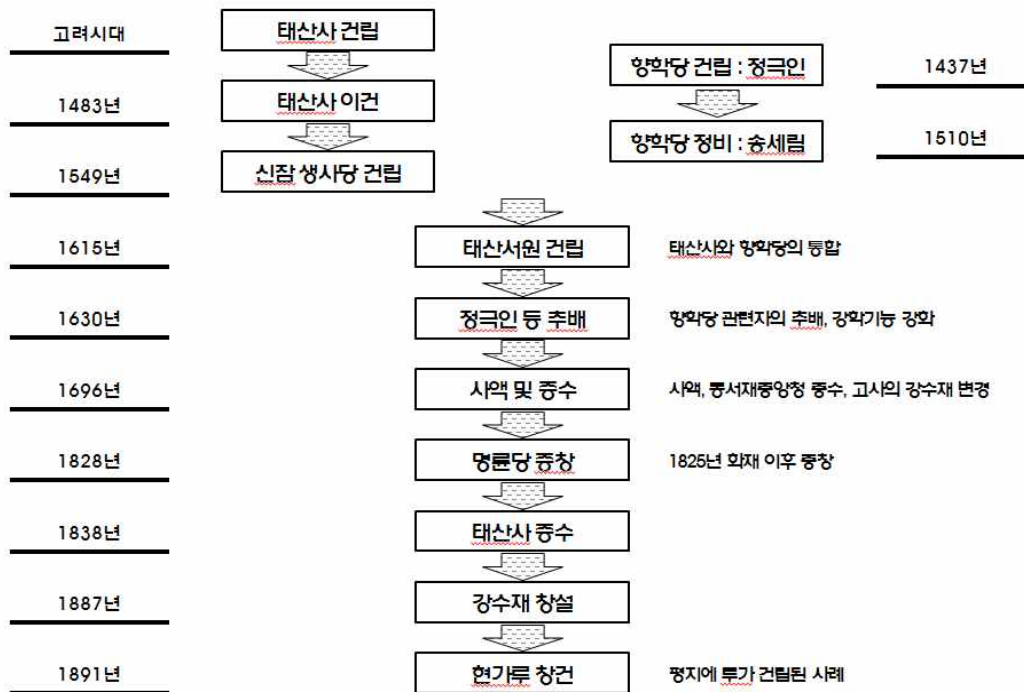
서원의 건축은 약간 경사가 진 대지에 전면에 홍살문이 있고 후면에 서원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서원영역은 입구에 외삼문인 현가루를 배치하고 뒤에 강당인 무성서원을 건축하였으며 내삼문 뒤에 사당인 태산사를 배치하여 전학후묘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 중심영역은 담장과 협문으로 일곽을 이루었다. 우측에는 유생들이 거주했던 강수재와 고직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측에는 비각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의 동재와 서재는 강당 좌우에 배치되는데 무성서원에서는 우측 별도의 영역에 강수재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좌측에는 비석군이 담장으로 구획된 별도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드문 경우이다.

현가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 2층 누각건물로 유생들이 강학 중에 주변 경관을 즐기면서 휴식을 하거나 문학 활동을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현가루는 1891년에 원유, 황기환, 김직술, 권종립 등이 참여하여 건축하였다고 한다. 한편으로 본래 외삼문이 있었지만 현가루를 세우면서 없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구조는 외별대 기단위에 덩병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2층에서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지붕은 5량 집으로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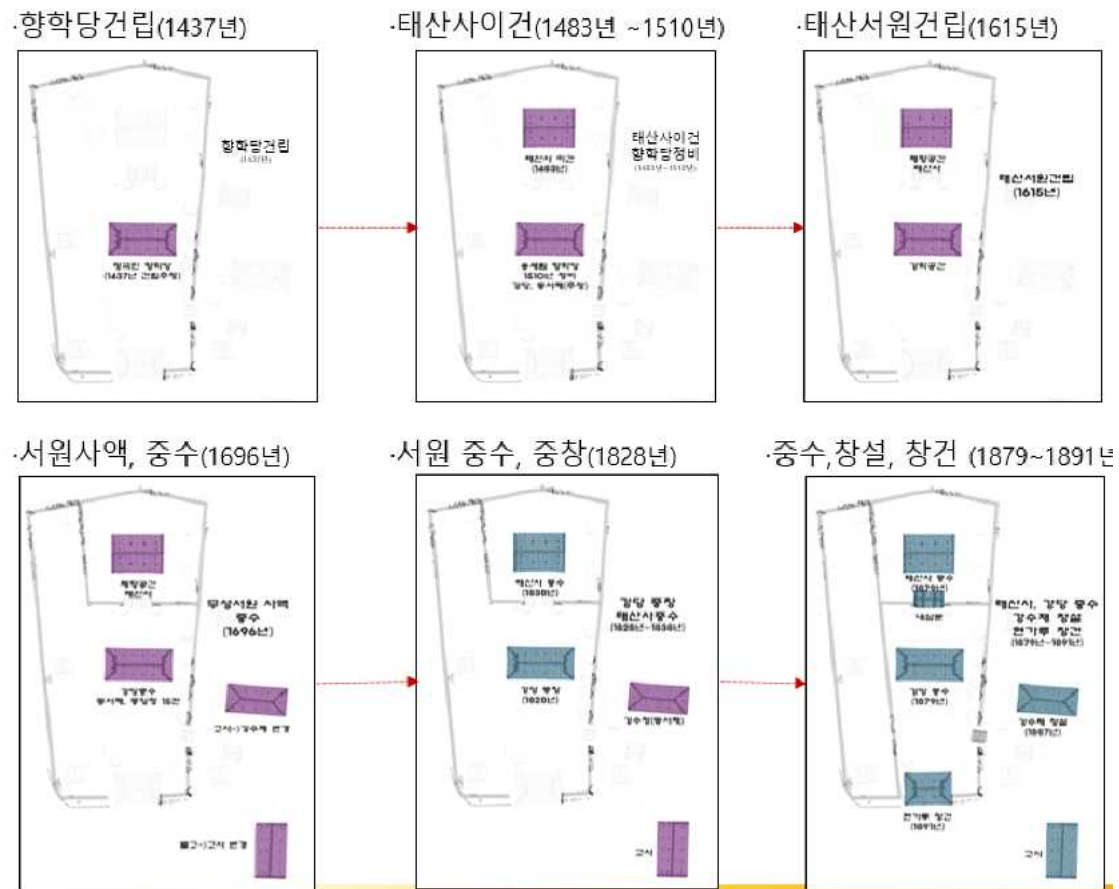
강당인 무성서원은 1475년 정극인이 세운 향학당 중 하나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1828년에 중건한 것이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협간에 방이 있다. 그리고 방의 전면에는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구조는 이별대 기단위에 자연석 덩병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창방위에 주두를 놓고 대들보와 도리를 결구하였다. 지붕은 5량 집으로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다.

사당인 태산사는 7명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데 1483년 지금의 위치에 이 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건물은 1884년에 중수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사당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콘크리트 기단위에 자연석 덩병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지붕은 3량 집으로 홑처마에 맞배지붕이다. 제향인물은 최치원을 주벽으로 하여 좌우에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묵, 김관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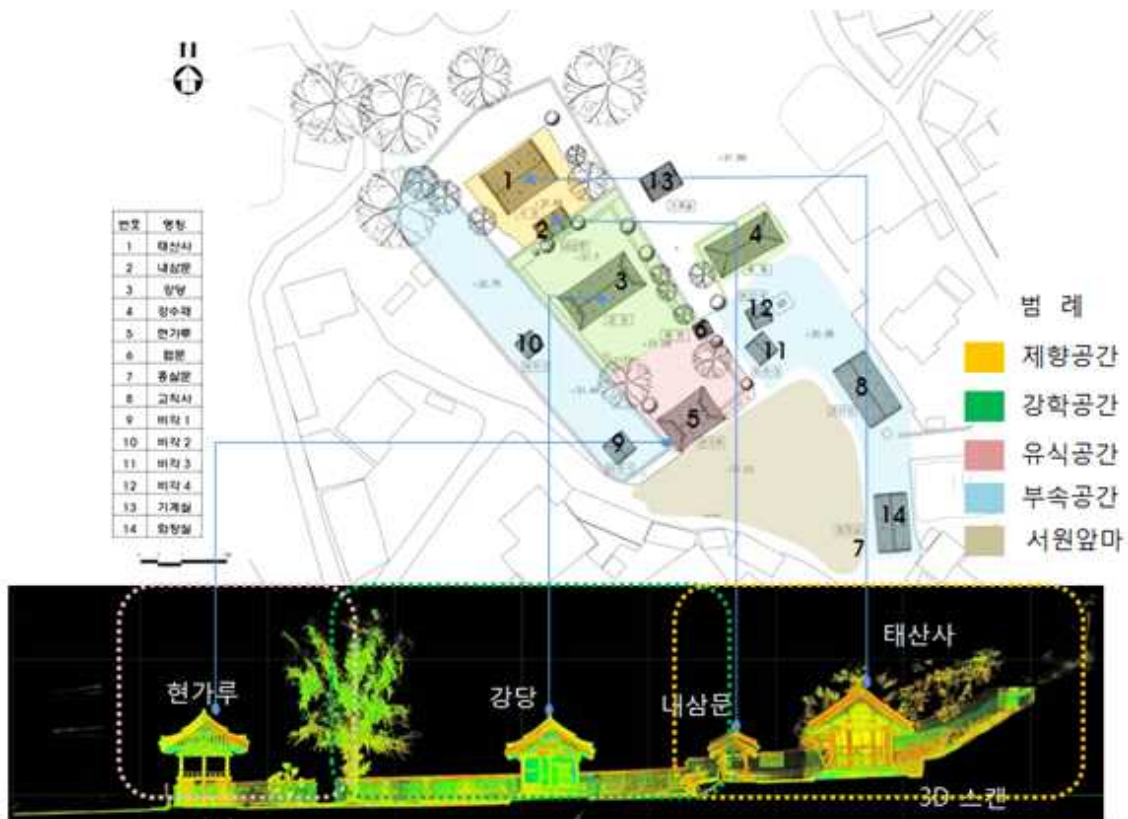
강수재는 1887년에 초창된 것으로 알려진다. 공간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중앙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협간에 방이 있다. 좌측 방 전면에는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구조는 외별대 기단위에 자연석 덩병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다. 본래 동재인 강수재와 서재인 흥학재는 각각 4칸의 건물로 숙종 때 건립되었다가 이후 중수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강수재만 남아 있다.



<그림 1> 무성서원의 건축적 이력



<그림 2> 무성서원의 건축적 변천 추이



<그림 3> 무성서원 현황

2-2. 칠광도

칠광도(七狂圖)는 일제강점기 익산지역에서 활동하던 어진화가 채용신(蔡龍臣)이 칠보면의 무성서원 일대를 그린 그림이다. 채용신은 본관은 평강(平康)이고 자는 대유(大有), 호는 석지(石芝), 석강(石江), 정산(定山)이다. 어릴 적 이름은 채동근(蔡東根)이고 아버지는 통정대부 채권영(蔡權永)이다.

채용신은 1850년(헌종 14) 서울에서 태어나 1886년(고종 24) 무과에 급제하였다. 1890년 돌산진수군첨절제사, 1891년 금부도사, 1893년 부산진수군첨절제사 등을 역임하고 1895년 가을부터 전주 우북면 장암리(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에서 거주하였다.

채용신은 1900년 조선 태조와 영조 등의 어진을 모사하였고, 1901년에는 고종의 어진을 그렸다. 1909년 금마면으로 거처를 옮기고 금마산방(金馬山房)을 운영하였다. 1923년에는 지금의 정읍시 신태인읍으로 이주하여 채석강도화소(蔡石江圖畫所)를 만들고 주문 제작 방식의 초상화 전문 공방을 운영하였다. 채용신은 전통 기법과 서양화법의 응용, 사진을 활용한 사실화 구현 등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초상화 외에도 산수화·화조화·영모화 등 다양한 장르의 15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품으로는 「대한제국동가도(大韓帝國動駕圖)」, 「태조·숙종·영조·정조·순조·익종·헌종·고종어진(太祖御眞)」이 있으며 이외에 「최익현상」, 「칠광도(七狂圖)」, 1910, 「삼국지연의도(三國志演義圖) 10폭」 등이 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자, 채용신이 금마에서 무성서원이 있는 정읍 칠보로 갔다. 그는 거기에서 김직술(金直述)의 집에 머물면서 칠광도를 그렸다고 한다.

채용신은 칠광도의 그림에서 무성리 원촌과 시산리 마을을 그렸다. 그리고 무성서원과 송정(松亭)을 그렸다. 송정 앞에는 7명의 인물을 그렸는데 그들이 7광(七狂)이라 불리는 인물들이어서 칠광도라 하였다. 7광은 광해군 때 인목대비의 존호(尊號)가 낮추어진 것에 분개하여 낙향한 것으로 전해지는 김대립(金大立), 김응찬(金應贊), 김감(金勘), 안치중(安致中), 송민고(宋民古), 이상향(李想嚮), 이탁(李卓)의 7인으로, 송정에 모여 풍류를 즐기던 자신들을 7광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이 송정에 모인 인물들에는 10현(十賢)이라 불리는 인물들도 있었다. 7광 중 김응찬, 김감, 안치중, 송민고, 이탁(李卓) 등 5인과 김관(金灌), 김렴(金濂), 김급(金汲), 김우직(金友直), 양몽우(梁夢寓) 등 5인을 추가하여 그렇게 불렀다. 채용신은 이들을 그리고 <송정 10현도(松亭十賢圖)>라고 제목을 붙였다.

칠광도에는 무성서원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 홍살문은 서원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 현가루는 문이 없는 누각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강당과 현가루 사이 좌측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이 있는데 비각으로 추정된다. 강당과 내삼문 사이 우측의 건물은 재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강수재보다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붕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칠광도는 당시 원촌마을과 시산리마을을 중심으로 칠보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무성서원과 마을과의 관계도 잘 묘사하고 있다. 또한, 칠광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그림 4> 칠광도</p>	<p><그림 5> 칠광도 중 무성서원</p>

2-3. 정극인과 묘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은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문학인으로 1453년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올랐다. 1469년 사간원정언 이후 정읍 칠보로 내려와 후진 양성 및 학문에 정진하면서 1475년 향음주례(鄉飲酒禮)를 마련하고 고현동향약(古縣洞鄉約)을 시행하였다. 국내 최초의 가사문학작품인 <상춘곡(賞春曲)>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최치원과 더불어 무성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정극인 묘역은 무성리 은석마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쪽에는 부인인 임씨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풍수를 적용하여 주산과 안산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묘역에 설치된 석물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품위를 갖추어 묘표, 망주석,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 장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표는 방부하엽형(方趺荷葉形)으로 전면 중앙에는 '사간원정언정공지묘(司諫院正言丁公之墓)'라 하였고, 우측에는 '증자허대부예조판서행조산대부(贈資憲大夫禮曹判書行朝散大夫)'라 기록되었으며 좌측은 '휘극인호불우헌(諱克仁號不憂軒)'이라 기록하였다. 비신 좌측에는 '송정후삼갑진사월일개립(崇禎後三甲辰四月日改立)'이라 하여 1784년에 다시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석물 중 망주석 1쌍도 이때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불우헌 정극인은 우리나라에서 향약과 문학사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태산선비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 인물이다. 묘와 묘역의 석물 등은 조형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불우헌 정극인의 묘는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을 거쳐 2023년 3월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2-4. 주변 문화재

(1) 송정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성황산 중턱에 있는 조선 후기의 정자이다. 송정은 '솔의 절개'를 지칭하여 이르는 말인데 이를 반영하여 7광과 10현들이 모여서 세상과 풍류를 즐기던 곳에 세운 누정건축이다. 7광과 10현들은 1617년(광해군 9) 인목대비 폐모사건에 항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낙향하여 이곳에서 유유자적한 세월을 보냈는데, 7광은 스스로 부른 것이고, 10현은 후세 사람들이 부른 것인데 통칭 7광10현(七狂十賢)이라 한다. 송정 후면에는 7광도와 10현도를 봉안하고 조상의 높은 기상과 우국의 뜻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영당(影堂)이 있다. 《송정중수기》에 따르면 “.... 후세에 증문과 축대, 정문길, 담장, 집 처마를 고치고 주위에 화초 나무를 심고 돌을 쌓고 흙을 돋았다....”이것으로 보아 현재의 건물은 후손들이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정에서는 무성리의 넓은 들판이 조망되는데 이전에는 수목으로 가려져 있어 전망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시행된 정비사업으로 전망이 좋아졌다. 배치는 송정이 있고 후면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사당인 송정영당(松亭影堂)이 있다. 건축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평면은 가운데 1칸의 방이 있고 주위로 마루를 설치하였다. 구조는 낮은 외별대 기단 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은 다음 두리기둥과 방형기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기둥은

창방과 결구하고 있으며 가구는 5량집이고 지붕은 홑처마에 팔작지붕 양식이다.

1899년 그 후손들이 그 유지에 영당을 세워 칠광도(七狂圖)와 십현도(十賢圖)를 봉안하고 춘추로 향사하고 있다. 1990년 6월 30일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2) 송정영당

송정영당은 1899년 7광10현의 후손들이 칠광도와 10현도를 봉안하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송정의 후면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협문과 담장으로 일곽을 이룬 공간에 사당건물이 있다. 현판에는 영모당(永慕堂)으로 되어있다.

건축은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사당이 있고 전면에 마루가 설치되었다. 구조는 콘크리트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가구는 3량집이고 지붕은 홑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이고 기와로 마감하였다. 측면에는 풍판을 달았다.

(3) 후송정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정자이다. 후송정은 칠보면의 성황산을 배산으로 하고 전면에 동진강이 흐르고 있는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에는 동진강이 흐르고 작은 배가 다니던 곳이었다고 한다.

후송정은 1899년(광무 3)에 칠보 출신 항일 운동가 화개헌(和介軒) 김직술(金直述)이 송정의 10현을 추모하기 위하여 초창하였다고 한다. 십현을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십송정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송정의 뒤에 있다고 해서 후송정으로 불렸다. 한편으로 논어에 나오는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에서 '절개가 높은 선비의 고결한 뜻'을 기리고자 후송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설도 있다. 1898년 송정위에 영당을 세우고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와 십현도를 봉안한 후 작헌례와 향음주례를 실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백일장을 시행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985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건축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누정건축인데 평면은 누마루로 되어 있다. 구조는 자연지형과 바위의 경사면을 이용하였는데 정면의 낮은 부분은 하부에 석재 초석을 두고 상부에 목재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도리와 결구하고 있다. 정면 기둥 하부는 자연스러운 부재를 활용하여 하인방으로 결구하였으며 난간은 평난간을 설치하였다. 내부 가구는 대들보 좌우에 층량을 걸치고 연목을 얹은 다음 지붕을 형성하였다. 지붕은 홑처마에 사모지붕이다. 주변 바위에는 1917년 이재우가 지은 “후송정사십이원비(後松亭四十二員碑)”와 1966년 김인기가 지은 “후송정중수기”가 있다. 비석 옆에는 후송(後松)이라 쓴 간재 전우의 암각서가 있다.

(4) 시산사

시산사는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사당건축으로 조선 말기 지사인 최익현(崔益鉉)과 그의 문인 김기술(金箕述), 김직술(金直述)을 배향하고 있다. 최익현은 본관이 경주, 자 찬겸(讚謙), 호 면암(勉庵)이다. 이항노(李恒老)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판서를 지냈

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항소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는 의병을 일으켰다가 그 죄로 대마도에 끌려가 순절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1906년(광무 10)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과 고현동 출신의 문인 김기술, 김직술의 충의정신을 기려 1907년 태산사(台山祠)라고 이름 붙여 건립하였다. 그 뒤 일제의 탄압으로 철거되었다가 1975년 다시 시산사(詩山祠)로 이름을 바꾸어 세우고 최익현 외 김기술, 김직술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건축은 솟을대문과 담장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 사당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당건축이다. 구조는 콘크리트 기단위에 고복형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 양식이다.

(5) 송산사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성황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사당이다. 1788년(정조 12) 창건하여 김대립(金大立), 김응빈(金應嬪), 김정(金鼎), 김감(金敢), 김급(金汲), 송치중(宋致中) 등 6인의 조선 중기 인물을 향사하였다.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헐렸다가 1954년 성황산 동쪽 기슭에 중건하였다.

송산사에 모셔져 있는 인물들은 거의 광해군 때의 어지러운 정치로 인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거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을 벗삼으며 세월을 보내던 이들로 '7광10현'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다.

건축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사당으로 되어있다. 구조는 외별대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가구는 3량집이고 지붕은 홑처마에 맞배지붕이다. 측면에는 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6) 한정

한정은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원촌에 있는 조선 전기 누정건축이다. 조선 중종 때 태학관 김약회(金若晦)가 사화로 인하여 세상이 시끄럽자 귀향하여 1520년경에 지었다. 김약회의 자는 원명(原明), 호는 한정(閒亭) 또는 봉선당(奉宣堂)으로, 1481년(성종 12)에 출생하여 1513년(중종 8)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퇴계 이황, 하서 김인후(金麟厚), 일재 이항(李恒), 면앙정 송순(宋純), 영천 신잠(申潛), 기봉 백광홍(白光弘) 등 당대 최고의 유학자들과 학문적 깊이를 다지며 교류하였다. 이렇게 한정은 학문적 교류의 장(場)이었는데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사라졌다가 1920년 후손 김환정(金煥亭)이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배치된 산의 언덕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대지의 여유가 많지 않은 편이다.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1칸의 방이 있으며 전면과 좌우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구조는 콘크리트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창방 위에는 소로수장을 하였다. 홑처마에 팔작지붕 양식이다. 2005년에 정읍시의 향토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7) 필양사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있는 사당 건축으로 한말의 애국지사 김영상(金永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5년 김환풍, 안항섭 등이 지역 유림들과 뜻을 모아 건축하였다.

김영상은 자가 승여(昇如), 호는 춘우정(春雨亭)으로 소휘면(蘇輝冕)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유학자 기정진, 간재 전우, 송병준 등과 교류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이 일으킨 의병에 참가하였고 한일합방 후에는 일제가 제공하는 은사금을 거절하였다. 이후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하다 체포되었고 옥중에서 단식하다 세상을 떠났다.

건축은 솟을대문과 담장으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사당이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당으로 되어있다. 구조는 외벌대 기단위에 고복형 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이다.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2005년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8) 유상대

최치원의 행적은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그중 정읍시는 최치원이 첫 외직(外職)으로 태산군수로 부임받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최치원의 대표적인 풍류지인 유상대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데 현재의 감운정 주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자리는 그가 태산군수로 재임할 때 검단대사와 더불어 시를 읊고 소요하던 곳이어서 의미가 크다.

(9) 감운정

감운정은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조선후기의 누정건축이다. 정읍 유지들이 유상대를 만들고 풍류를 즐긴 최치원을 기리기 위하여 유상대가 있던 자리에 1880년경 초창하였다. 이후 1920년경에 중수하였다.

감운정은 누정건축으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건물로 평면은 누마루로 되어있다. 구조는 낮은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창방과 결구하고 있다. 가구(架)는 3량집으로 홑처마에 팔작지붕 양식이다. 지붕 가구는 기둥위에 대들보를 교차로 걸치고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였다. 처마를 받치기 위하여 4면에 활주가 세워져 있다. 기둥과 창방 사이에는 구조적 안정을 위하여 세모형의 보조재를 사용하였다. 주변에는 유상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가 있다.

(10) 기타 유교유적

칠보에는 무성서원과 관련된 유교문화재 외에 남천사, 용계서원, 도봉사가 있다. 남천사(藍川祠, 전북 문화재자료)는 조선시대 유학자인 김후진(金後進), 안의(安義), 손홍록(孫弘祿), 김만정(金萬挺) 등을 봉안하고 있다. 남천사는 이들의 뜻을 기리고자 1676(숙종 2)에 처음 세웠으나 1868년(고종 5) 정부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헐렸다. 그 후 1926년에 다시 세우고 김두현(金斗鉉)의 위패를 추가로 모셨다.

용계서원(정읍 향토문화유산)은 1701년 창건한 향현사로 최서림(崔瑞琳), 김정호(金挺

昊), 은정화(殷鼎和), 한백유(韓伯愈), 유종흥(柳宗興), 김습(金習) 등을 향사하고 있으며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0년 복설하였다.

도봉사는 조선 전기의 문신 김회련(金懷鍊)을 모신 사당이다. 김회련은 배극렴, 김사형 등과 함께 태조 이성계의 개국을 도와 1395년(태조 4)에 개국 원종 일등공신의 록(錄)을 받은 인물이다. 홍주(현재의 홍성)목사를 지냈으며 공주 목사일 때 향교를 세우고 학전을 마련하였으며 해주목사로 재임할 때에는 객사와 동헌을 세웠고, 한성판윤에 이르러서는 도성을 축조하는 등 공이 많았다. 사후에 이조판서, 양관대제학에 추증되었고, 1872년(고종 9)에 충민(忠敏)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표 1> 문화재 가치 기준

문화재	지정여부	문화재 가치				
		역사성	장소성	예술성	기술성	종 합
무성서원	세계유산					
칠광도						
정극인 묘	도 기념물					
송정	도 문화재자료					
송정영당						
후송정						
시산사						
송산사						
한정	시 향토유산					
필양사	시 향토문화재					
유상대						
감운정						
남천사	도 문화재자료					
용계서원	시 향토문화재					
도봉사						

*****가장 높음 * 가장 낮음

3. 문화재 추진 전략

3-1. 문화재와 종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와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을 지닌 문화재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는 종류별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표 2) 여기에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된

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보존, 관리, 활용은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의 지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관할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이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최근에 개발과 함께 사라져 가는 개화기 이후의 근대 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외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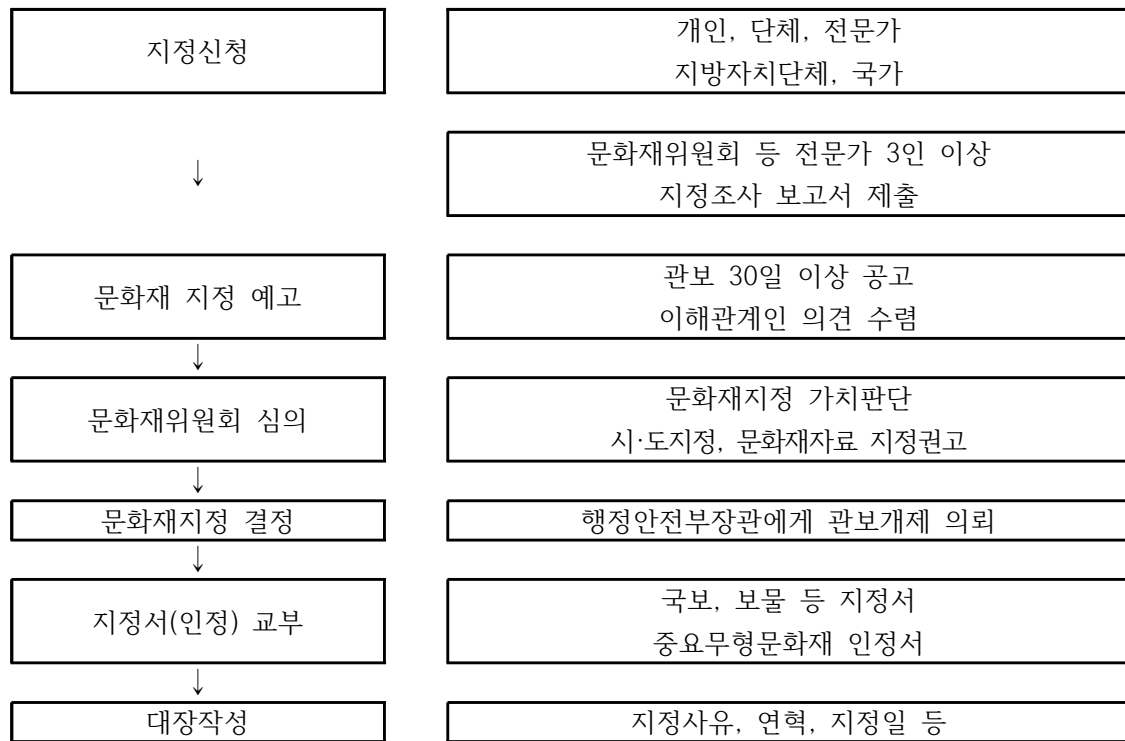
단지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세계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을 따름이다.

<표 2> 문화재의 종류와 정의

종류		정의
문화재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예: 남대문, 수원화성, 훈민정음,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예: 종묘제례악, 판소리, 농악, 양주별산대놀이, 처용무 등)
	기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터, 옛무덤(=고분), 조개무덤(=패총),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65) 문화재보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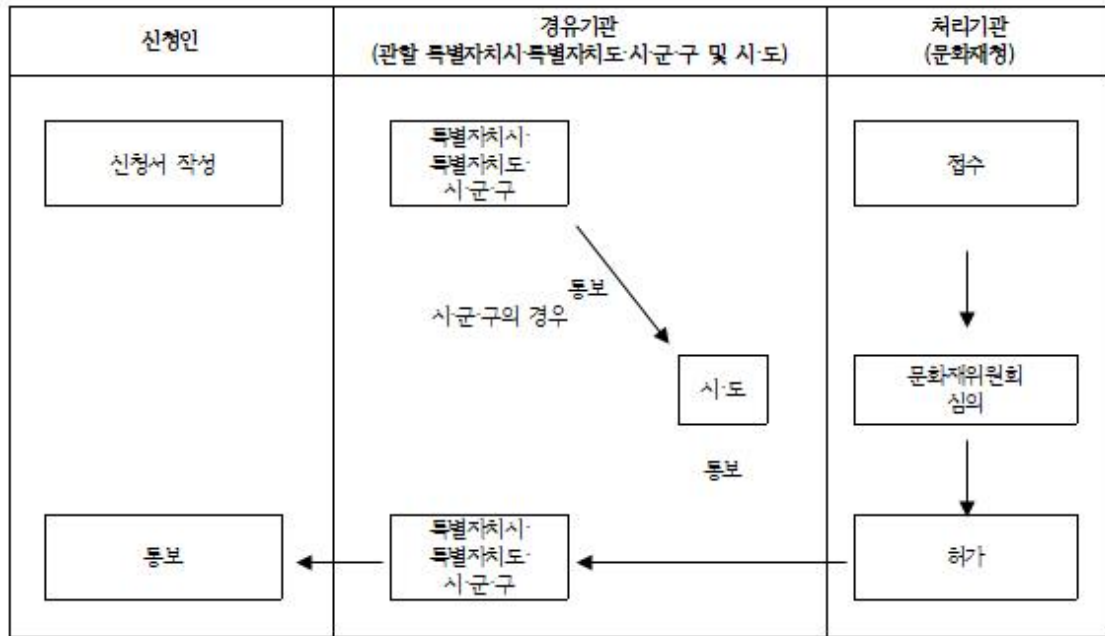
문화재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예: 중요민속자료 덕온공주당의, 나주불회사석장승, 고창 방상씨탈 등)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 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도등록문화재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한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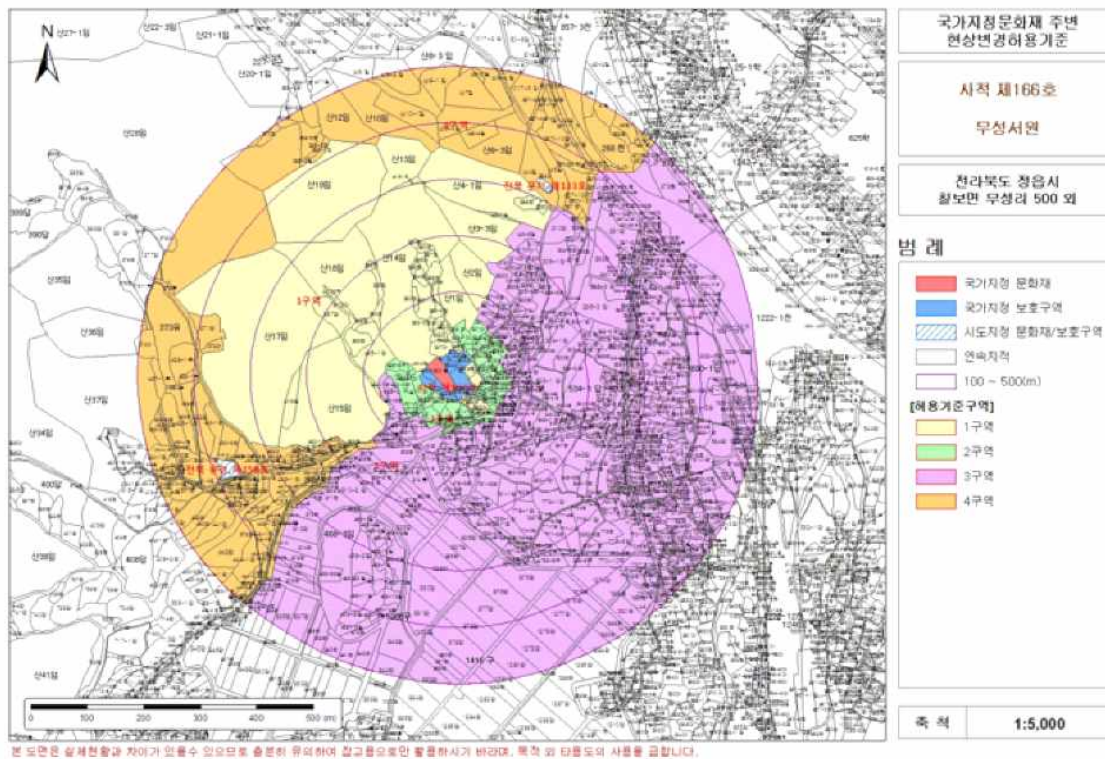
<그림 6> 문화재 지정 절차

<표 3> 문화재(무형문화재) 측정 기준

구분	조사지표	측정 기준	평가방법	배점
역사성	전승된 기간	전승된 연수(年數)	정량	10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유물, 문헌, 구술 등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수준	정성	10
학술성	한국문화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의 수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적 가치 정도	정성	8
	학술연구자료로서의 가능성	학술적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수준	정성	7
예술성·기술성	고유성의 수준	고유성 수준(독특성)의 정도	정성	5
	형식미·내용미·표현미의 수준	형식미, 내용미와 표현미의 수준 정도	정성	10
	기능성 정도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	정성	5
대표성	지역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7
	한국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정도	정성	8



<그림 7>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그림 8> 무성서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3-2. 문화재 추진전략

무성서원은 고려시대 정읍지방의 유림들에 의해서 고운 최치원을 모신 사당인 태산사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정극인이 세운 향학당이 있던 지금의 위치로 이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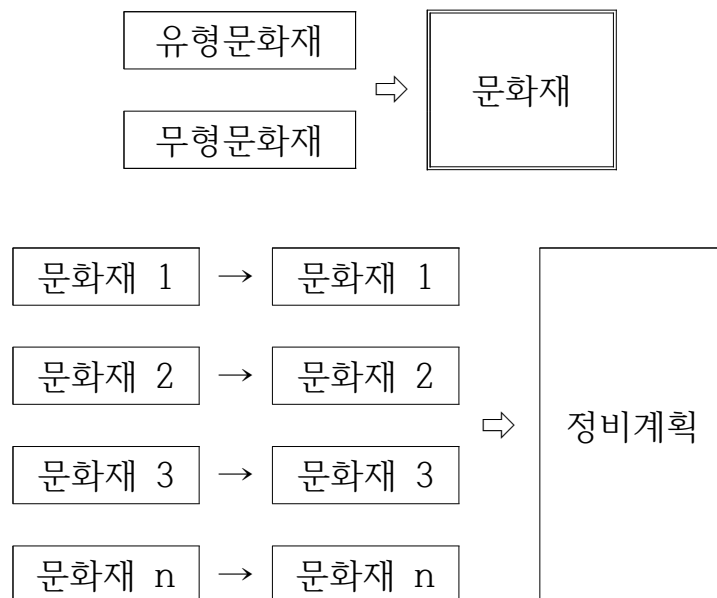
1696년 최치원과 신잠의 두 사당을 병합하여 무성이라 하고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8년 “무성서원”명칭으로 사적에 지정되었다. 종류는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교육기관인 서원으로 분류는 유적건조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무성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칠보면에는 원촌마을과 시산마을을 중심으로 무성서원과 관련된 유교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드문 경우이다. 주요 역사문화 자원으로는 무성서원을 묘사한 채용신의 칠광도, 정극인의 묘, 송정, 송정영당, 후송정, 시산사, 송산사, 한정, 필양사, 유상대, 감운정 등이 있다. 이들 문화재는 개별적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들을 집적화한다면 큰 문화재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문화재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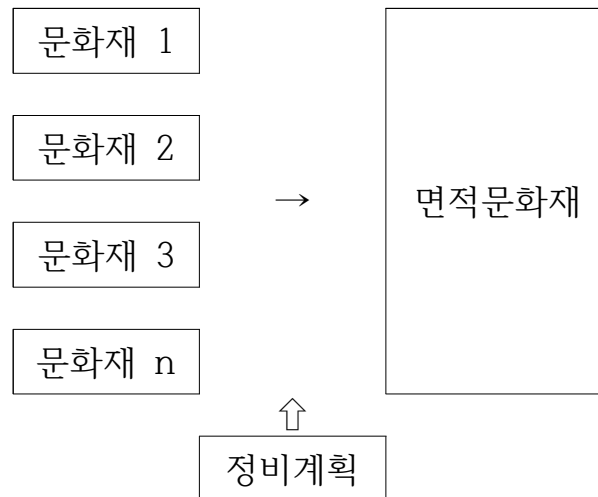
이미 지정된 세계유산 무성서원과 전라북도 기념물인 정극인 묘, 전라북도 문화재자료인 송정, 정읍시 향토유산인 한정, 필양사 등이 있으며 이외의 문화재도 문화재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문화재의 지정은 절대적인 가치와 더불어 상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관점일 것이다.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점(點)적 지정방법과 면(面)적인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다른 문화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문화재를 대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서술한 다음 각각의 문화재로 추진하는 방법은 점(點)적 문화재 추진방식이다. 즉, 그림 9와 같이 기존의 문화재는 문화재 가치를 상향하고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경우 지정이 가능하지만 문화재의 가치가 미흡한 경우는 지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점적 문화재 추진전략

다음으로 면(面)적 추진방식이다. 면적 추진방식은 특정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다수의 관련 문화유적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문화재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련 유적을 지역으로 한정하고 그 범위 전체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에 지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이 있다.



<그림 10> 면적 문화재 추진전략



<그림 1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출처: 문화재청)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2007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계획을 추진했던 것이다. 즉, 문화재(특히 건축문화재)를 각각의 개별 문화재로 지정하는 점 단위의 지정체계를 선(線)과 면(面) 단위로 확장해 근대문화유산을 입체적으로 보존·활용하자는 취지로 '역사문화거리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이 계획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이외에 면적 지정방식의 유사한 내용으로 민속마을 지정방식과 마을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제도 등이 있는데 이 지정방식은 의식주, 생산, 생업, 교통, 통신, 교육, 사회생활, 신앙, 예능 등의 민속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민속마을은 현재 하회마을을 비롯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마을은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동쪽마을인 칠곡 매원마을 등이 있다. 단지 이 방식은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원촌, 시산리 마을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무성서원 주변을 문화재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조명한 다음 이들 문화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화재를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의 지정이나 등급의 상향을 위해서 추진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술대회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비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문화재 지정절차에 의해서 시, 도를 거쳐 문화재청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3-3. 과제

하나의 문화재를 국가나 지방의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와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재의 해지 사례에서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유네스코의 경우 매년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를 개최하여 지정된 세계유산 중 전쟁(내전), 테러, 반달리즘, 난개발, 자연재해, 기후변화, 오버투어리즘 등의 문제로 보편적 가치가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을 선정해 1차로 해당 국가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지정한다. 이후 해당 국가는 매년 세계유산의 상태를 점검해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인정되거나 문제가 해결된다면 목록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무성서원 일대의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답은 명확하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학술대회, 보고서 작성, 필요할 때 정비계획 등의 사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변에 대한 문화재적 경관 유지를 위하여 주변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농촌마을에서 많이 접하는 난개발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지일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지역 주민의

협력과 참여는 필수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는 꼭 필요하다.

4. 맺음말

무성서원은 정읍의 선비문화를 잘 나타내고 정읍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세계유산에 지정되었다는 외형적인 내용 말고도 정읍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했던 최치원을 기리고 한국 유교문학권을 빛냈던 정극인 등과 관련된 이야기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칠광과 관련된 인물들, 그들을 소재로 한 칠광도와 관련된 문화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의무일 것이다.

무성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칠보는 최치원, 정극인과 관련된 유교문화재가 월촌과 시산 마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된 지역이다. 여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무성서원, 칠광도, 정극인의 묘, 송정, 한정, 필양사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송정영당, 후송정, 시산사, 송산사, 유상대, 감운정이 있다.

이들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는 승격시키고 미지정 문화재는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점적 문화재 지정방식은 문화재의 가치에 있어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화재를 “칠보 역사유교 문화공간”이나 “무성서원과 유교문화공간” 등의 명칭으로 면(面적) 문화재 지정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사료된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태인현 읍지 (泰仁縣 邑誌)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
고지도(여지도, 태인현읍지, 광여도, 청구요람, 1872년 지방도)
오학근. 호남지, 1936
전라북도향토문화연구원, 전북의 누정, 2000
정읍군, 내고장 전통문화, 1983
정읍시사편찬위원회, 정읍시사,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정읍 무성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읍시, 무성서원종합정비계획, 2015
정읍시청(<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토론문 02

무성서원 일대 문화재 추진 전략에 대한 토론문

토론 문승현(문화유산국민신탁)

문승현(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인 무성서원과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면적인 문화재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자의 발제에 공감합니다. 또한 무성서원과 주변 문화유적의 현황파악 및 가치평가, 문화재 지정에 대한 최근의 경향까지를 살펴 무성서원 일대의 전반적 이해를 높이게 해주신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발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면적문화재 추진전략을 위한 중심가치

발제자의 의견처럼 무성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칠보면에는 원촌마을과 시산마을을 중심으로 무성서원과 관련된 유교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무성서원을 제외하면 각각의 개별 문화재들의 가치는 상대적 미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면적인 문화재 지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유산들이 가지는 공통가치들을 집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예는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정된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주현동·인화동 일대/2만1168.2㎡)의 경우,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1914년 동이리역(東裡里驛) 신설에 따른 솜리시장 일대의 변화, 1919년 솜리시장에서의 4.4.만세운동,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삶의 모습, 당시 건축물의 집중 분포로 인한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 유추 등을 근거로 하여 보존 및 활용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성서원 일대의 경우, 고을의 경관이 그림지도처럼 상세히 표현되어 당대의 지형과 건물의 특징, 그리고 칠광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지역의 귀한 자산도 담은 특별한 그림인 칠광도(七狂圖), 주변 경관이 수려한 곳에 세운 다른 서원들과는 다르게 마을을 향해 열린공간으로 자리 잡아 이웃과 함께하면서 지역문화를 이끈 무성서원, 동학운동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정신문화 등을 중심적 가치로 조명하고 지정전략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데 발제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 문화재 지정에 따른 장단점

문화유산의 보전과 재조명, 지역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해 무성서원 일대의 문화재 지정이 효과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위의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도 보호구역의 설정, 지정에 따른 다양한 규제 등이 수반됩니다. 면적인 문화재 지정은 이러한 규제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경주 역사보존지구, 양동마을 등의 사례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문화재 지정에 따른 개발 및 행위의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다수의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적인 문화재 지정은 특히 지역주민의 동참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문화재 구역과 주변의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조하기보다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역사문화환경을 해치지 않는 문화시설의 적극 유치, 공공기능성의 확대, 경제적 이득의 실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주민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인 문화재 지정의 단점 극복을 위하여 발제자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3. 지속가능성과 활용방안

면적인 문화재 지정이 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정비예산의 부족,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저하 등으로 지정 이후 별다른 조치가 실행되지 못하거나 정비계획이 담보 상태에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당해 문화유산지역의 풍부한 스토리텔링 확보, 지역의 다른 문화유산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역사문화공간의 확대, 역사문화공간의 활용활성화, 지역민과 지자체의 관심 증대의 선순환 과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정동지역이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정동지역은 개별적 문화유산들이 점적으로 분포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였던 것을 근대 문화공간이라는 테마로 개별 문화유산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스토리를 구성하고 관광자원화 하였고, 지역주민과 기관들이 자체 지역협의체 구성하여 역사문화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제는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고 수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는 역사문화관광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구청에서도 투입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기관 및 지역민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의 선순환 모범사례로 생각합니다. 무성서원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지속가능성과 활용활성화를 위해 발제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주제발표 03

불우헌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에 대한 소고(小考)

발표 윤인현(인하대)

< 목 차 >

1. 서론(序論)
2. 「상춘곡」 작가에 대한 이론(異論) 제기 검토
3. 「상춘곡(賞春曲)」에 나타난 용사(用事)와 점화(點化)의 시작법
4. 「상춘곡(賞春曲)」에 나타난 유자(儒者)의 자연관과 안빈낙도(安貧樂道)
5. 「상춘곡(賞春曲)」의 창작 시기
6. 결론(結論)

1. 서론(序論)

본고는,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에 대한 연구로, 그 동안 일부 연구자가 문제 제기한 「상춘곡」의 작가 문제를 검토하고 표현에서의 작법을 고찰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의미까지 살펴 「상춘곡」의 창작 시기를 고구해 보고자 한 것이다.

불우헌은 영광(靈光) 정(丁)씨로 명(名)이 극인(克仁)이고 자(字)가 가택(可宅)이며 호(號)가 불우헌(不憂軒)·다각(茶角)·다헌(茶軒) 등이다. 서울 옥수동 근처에서 1401년 8월 6일에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관향(貫鄉)인 영광으로 돌아와 성장하였다.

압해 정(丁)씨는 당(唐)나라로부터 그 선조가 왔다. 당나라 선종(宣宗) 때인 대중(大中) 연간에 대관(大官) 덕성(德盛)이 동쪽으로 신라 서해(西海) 가운데 있는 압해도(押海島) 고군(古郡)에 표류해 왔는데, 사후(死後)에 그 군(郡)에 장사 지냈다. 고려조에 현(縣)이 되어 영광군(靈光郡)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후예가 영광(靈城영성)을 본관으로 삼은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후에 또 나주목(羅州牧)에 이속(移屬)되었다가 폐(廢)하여 본관(本貫)이 나주와 창원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¹⁾

그의 가계(家系)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조는 휘(諱)가 시운(時胤)인데, 고려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조산대부(朝散大夫) 간성군 지사(杆成郡知事)를 지냈다. 고조모는 이씨(李氏)이다. 증조는 휘가 찬(贊)인데, 고려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선력좌리 공신(宣力佐理功臣)으로서 광록대부(光祿大夫) 지도첨의사사사(知都僉議使司事)를 지냈으며,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본조(조선)에서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에 추증되었다. 증조모는 죽산 김씨(竹山金氏)인데, 부원군(府院君) 유(侑)의 따님이다. 조부는 휘가 광기(光起)이고, 정의대부(正義大夫) 판전농사사 겸 지경연사(判典農司事兼知經筵事)를 지냈다. 조모는 안동 김씨(安東金氏)인데, 부사

1) 黃胤錫, 『不憂軒集』附錄,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唐宣宗大中年間, 有大官德盛, 東流新羅西海中押海島古郡, 歿而葬郡. 入高麗爲縣, 屬靈光郡, 其裔籍靈光始. 此後又移屬羅州牧以廢, 而有分貫羅州昌原者.”

(府使) 언용(彦龍)의 따님이다. 부친은 휘가 곤(坤)으로, 진사로서 본조에서 창신교위(彰信校尉), 충무시위사 중령(忠武侍衛司中領), 부사직(副司直)을 역임하였다. 모친은 죽산 안씨(竹山安氏)인데, 개성부 소윤(開城府少尹) 정(挺)의 따님이다.²⁾ 불우현의 형제는 6형제인데, 불우현이 둘째이다.

불우현의 부인은 숙부인(淑夫人) 구고 임씨(九臯 林氏)로, 이산 현감(尼山 縣監) 은(殷)의 따님이다. 공보다 9년 뒤인 경인년(1410, 태종10)에 태어나고 공보다 14년 앞선 정해년(1467, 세조13) 1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같은 등성이의 위아래로 무덤이 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곧 삼준(三俊)으로, 생원이고 고현(古縣)에 살았다. 막내는 칠현(七賢)인데, 공이 일찍이 양전(量田)의 일로 흥양현(興陽縣)을 지나다가 그 곳의 풍토가 아름다움을 보고 칠현에게 명하여 살게 하였다. 여섯 사위를 두었는데, 맏이는 조보영(趙輔榮)으로 통찬(通贊)이고, 다음은 노이현(盧以顯)인데 직장(直長)이고, 다음은 유길희(柳吉淮)이고, 다음은 김윤손(金潤孫)인데 사정(司正)이고 강진인(康津人)이며, 다음은 김화우(金和雨)인데 진사 직장이고 청도인(淸道人)이며, 다음은 김석손(金碩孫)이다. 서자는 일손(日孫)인데 공에게 원종공훈(原從功勳)이 있었으므로 양인(良人)이 되어 순천부(順天府)에 살았다.³⁾

1417년(태종17년) 불우현이 17세 되던 해 향시(鄉試)에 합격하였고 세종11년 29세에 사마시(司馬試, 진사시와 생원시)에 합격하여 진사의 신분으로 성균관에 유학(遊學)하였다. 성균관 유생(儒生) 시절 세종이 호불(好佛)하여 승려 행호(行乎)를 총애까지 하자, 37세 유생인 불우현께서 성균관의 제생(諸生)과 더불어 「태학청주요승행호소(太學請誅妖僧行乎疏)」를 올려 불교의 폐단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소에도 세종이 윤허하지 않자 “여러 유생들과 권당(捲堂)을 약속하고 혼자 남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상이 명하여 불러 보고 학관(學館)을 비운 문제를 힐난하였다. 이에 공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불교를 숭상하니 여러 유생들이 돌아가 승도가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⁴⁾ 이에 세종의 진노(震怒)를 사 함경도로 귀양 갔다가 마침내 처향(妻鄉)인 태인 고현으로 낙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낙향 후 51세인 1451년에 문종 1년에 일민(逸民)으로 추천되기까지 14년 동안 태인 고현에서 처사로 살았다. 불우현이라는 당호를 걸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도 마을 자제들의 모아 가르치고 동약(洞約)을 만들어 풍속교화에 이바지 하였다. 51세에 일민으로 추천되고 또 53세에 대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출사한 지 약6년 후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해 두 번째 낙향을 하였으며, 그 기간은 56세부터 68세로 12년이 된다. 왕위 찬탈의 장본인이 세조 승하 후 예종 원년(1468년)에 재출사하여 70세 치사(致仕)까지 관직 생활을 하였다. 3차 낙향 기간은 70세부터 돌아가시는 81세까지이다.

태인 지역에는 통일신라 때 태수를 지냈던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고려 때 세운 태산사(泰山祠)가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종14년인 1483년에

2) 黃胤錫, 『不憂軒集』附錄,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高祖考諱時胤, 高麗文科, 朝散大夫, 知杆城郡事. 妣李氏曾祖考諱贊, 文科, 宣力佐理功臣光祿大夫, 知都僉議使司事, 靈城君, 本朝贈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府事. 妣竹山全氏, 府院君侑女. 祖考諱光起, 正議大夫, 判典農寺事兼知經筵事, 妣安東金氏, 府使彥龍女. 考諱坤, 進士, 本朝彰信校尉忠武侍衛司中領副司直. 妣竹山安氏, 開城府少尹挺女.”

3) 黃胤錫, 『不憂軒集』附錄,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公配淑夫人九臯林氏, 尼山縣監殷女. 後公九年庚寅生, 先公十四年丁亥正月二十六日卒, 同岡上下窆. 有二子, 長卽三俊, 生員, 因居古縣. 季七賢, 公嘗以量田過興陽縣, 見其風土之美, 命七賢居焉. 六女壻, 長趙輔榮, 通贊, 次盧以顯, 直長, 次柳吉淮, 次金潤孫, 司正, 康津人, 次金和雨, 進士, 直長, 淸道人, 季金碩孫. 庶子曰孫, 用公從勳從良, 居順天府.”

4) 黃胤錫, 『不憂軒集』附錄,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公又與諸生約捲堂, 獨自留待, 上命引入, 詰以空館. 對曰, 上崇佛教, 諸生欲歸而爲僧耳.”

정극인이 세운 가숙(家塾)이 있던 지금의 자리로 이전되었다. 그 뒤 '1549년(명종4) 태인 현감을 지낸 신잠(申潛, 1491~1554)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생사당(生祠堂)을 짓고 태산사에 배향하였으며, 1630년(인조8) 정극인(丁克仁) · 송세림(宋世琳, 1479~1519) · 정언충(鄭彦忠, 1491~1557) · 김약묵(金若默, 1500~1558)을 배향하고, 1675년(숙종1) 김관(金灌, 1549~1622)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696년(숙종22) 최치원과 신잠의 두 사당을 병합한 뒤 무성(武城)이라 사액(賜額)되어 서원으로 개편⁵⁾되었다. 불우헌 사후 무성서원에 배향된 배경은 교육자로서의 공⁶⁾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불우헌이 1차 낙향 시 30여 가구 되는 동리의 자제들을 모아 교육을 하였는데 그것이 가숙(家塾)의 시작이었다. 이 가숙은 후대에 송세림(宋世琳) 의해 향학당(鄉學堂)으로 발전하였고, 태인 현감을 지낸 '신숙주의 증손자인 신잠(申潛)에 의해 태인 지역 5학당 체제⁷⁾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형성된 태인 지역의 교육활동은 불우헌에서 비롯되어 송세림과 신잠 의해 계승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런 교육적 활동이 반영된 관계로 정극인과 송세림, 그리고 신잠까지 무성서원에 배향(配享)되었다.

본고는, 「상춘곡」의 작가에 대한 이론(異論)을 검토하여 작가가 정극인임을 천명(闡明)하기 위해, 「상춘곡」 내용 전개에 반영된 작법은 물론 내용적인 면을 살피면서 「상춘곡」의 창작 시기까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상춘곡」 작가에 대한 이론(異論) 제기 검토

「상춘곡」 작가에 대한 이론(異論)을 제기한 초기 연구자는 60년대의 권영철과 강전섭이다. 그리고 1984년 최강현은 가사의 기원을 고구하는 논문⁸⁾에서 「상춘곡」에 대한 작가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최강현은 「상춘곡」의 작가 문제에 대한 비교적 초기 연구자인 권영철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시어와 사상 · 언어적 표현 등이 불우헌의 타 작품과 다르기 때문에 「상춘곡」이 불우헌의 작품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후세의 위작(僞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강전섭의 논문을 소개하기를, '불우헌의 일생과 「상춘곡」의 내용을 대비해 본 결과 그 「상춘곡」의 내용이 불우헌의 일생과 거리감이 있기에 그의 작품이라 아니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전섭이 1970년 발표된 논문에서 「상춘곡」은 정극인의 장(長)·단가(短歌)와 대비해 보면 안작(贗作)임에 틀림없다고 하여, 「상춘곡」의 작가는 미상이라고 한다.⁹⁾고 소개하였다. 이처럼 최강현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면서 「賞春曲과 不憂軒集 研究」에서 「상춘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어휘 사용 등을 분석하여, 지은이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40대 이후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16세기 이후에 나타난 가사 작품의 형식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춘곡」을 불우헌의 다른 문학 작품과 대비했을 때 같은 사람이 동 시대에 지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최강현은 「상춘곡」 작가를 불우헌의

5) 박종배, 「불우헌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60쪽.

6) 성종도 1472년에 종3품 중직대부를 내리면서 '고을의 자제를 모아 교육의 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黃胤錫, 『不憂軒集』附錄,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 「聚鄉子弟, 教誨不倦」.

7) 박종배, 앞의 논문, 74쪽.

8) 崔康賢, 「賞春曲과 不憂軒集 研究」, 『弘大論叢』 16輯, 弘益大學校, 1984, 229~264쪽.

9) 姜鎰燮, 「賞春曲의 作者를 둘러싼 問題-逸民歌와 賞春曲의 和同性」, 『東方學志』,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249~250쪽. 강전섭은 1980년에 발표한 「賞春曲의 作者를 둘러싼 問題-逸民歌와 賞春曲의 和同性」에서 「상춘곡」을 숙종대 李洛의 「還山別曲」이라 하면서 결코 「상춘곡」은 정극인의 작품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강전섭은 본 논문에서 「상춘곡」의 작가 문제를 1965년에 「樂隱別曲의 研究」라는 충남대학교 유인본(油印本)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고도 하였다. 이후 권영철 교수가 1969년도와 최강현 교수의 1974년도에 「상춘곡」의 작가 문제를, 자신과 같은 결론의 논문을 발표했다고도 하였다.

내외후손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불우헌집』을 처음 간행할 때 수고한 정효목(丁孝穆)·효삼(孝參)·익조(翼祚)·덕언(德彦)·광수(光守) 등이 합철(合綴)한 것이 아니면, 100년~200년 이전에 지어진 불우헌 유고(遺稿)와 함께 께짝 속에 감추어져 전해져 오다가 『불우헌집』 간행 시 합철된 것¹⁰⁾으로 추론하였다. 최강현도 「상춘곡」이 불우헌의 작이 아니라 후대의 어느 후손의 작일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우헌 유고일 수도 있다고 미련을 남겼다.

최웅은 1986년 「가사의 기원」¹¹⁾에서 나옹화상의 「서왕가」와 불우헌의 「상춘곡」 연구자들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서, 「상춘곡」이 불우헌의 작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최강현의 주장을 요약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가사의 기원과 형성시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주제·구현된 미학·즐거 사용된 소재·한자 어휘와 우리말 어휘 구사 현상 등을 검출하여 연구한다면, 기원 문제와 형성 시기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하였다.

양희찬은 2012년 논문¹²⁾에서 ‘정극인의 한시에 반영된 작가의 성격과 「상춘곡」에 나타난 화자(話者)의 성격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춘곡」은 정극인의 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불우헌의 성격과 지향이 「상춘곡」 화자의 성격과 서로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춘곡」은 불우헌 정극인의 작품일 수 없다고 하면서 강전섭이 주장한 「상춘곡」은 숙종대 이락의 「환산별곡」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명준은 「상춘곡」의 종결 부분을 분석하여,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들과 다른 면을 가지고 있고 작품 세계 또한 17세기 이후 작품들과 공유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상춘곡」은 이 작품의 작가라 일러진 정극인 당대의 사대부 혹은 강호가사들과는 차이가 나며 최초 판각 시기인 18세기의 강호가사들과 더 가깝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전 「상춘곡」은 원 「상춘곡」이 전승되는 동안 가필(加筆) 등을 통한 부분적 변이를 거치거나 혹은 현저한 변이를 거쳐 원형에서 매우 벗어난 형태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¹³⁾ 어쨌든 「상춘곡」의 작가는 불우헌이라는 말이다.

권순희는 2022년 「필사본 불우헌유고(不憂軒遺稿)의 발굴과 상춘곡(賞春曲)의 작자 문제」에서 활자본 『불우헌집』과 필사본 『불우헌유고』의 대비를 통해 필사본 『불우헌유고』에 「상춘곡」이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춘곡」의 작가는 정극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필사본 『불우헌유고』 권두에 실려 있는 「불우헌곡(不憂軒曲)」과 「불우헌단가이장(不憂軒短歌二章)」은 모두 이두표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도 「상춘곡」도 초기 형태로 전해졌다면 이두로 전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필사본 『불우헌유고』에 이두 표기로 전해지는 「불우헌단가이장(不憂軒短歌二章)」은 활자본 『불우헌집』에는 18세기 국한문혼용체로 「상춘곡」 함께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경기체가인 「불우헌곡(不憂軒曲)」은 장가 형식으로 임금의 은혜를 송축한 노래였는데, 「상춘곡」은 15세기 불우헌 당대에 활성화되지 않은 가사체로, 불우헌 당대에는 그 형식으로 노래했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필사본 『불우헌유고』에는 아예 「상춘곡」이 실려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상춘곡」의 작가는 정극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필사본은 필사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취사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사자의 기호에 따라 구성도 제각각일 수 있다. 필사본 『불우헌유고』에는 국문시가와 산문이 한시보다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활자본 『불우헌집』의 구조와 다르다. 활자본 『불우헌집』은 부록과 한시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곡이 배치되어 있다. 그 가곡 부분에 「불우헌

10) 崔康賢, 위의 논문, 263쪽 참조.

11) 최웅, 「가사의 기원」,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286~296쪽.

12) 양희찬, 「賞春曲의 作者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65권, 민족어문학회, 2012, 139~164쪽.

13) 김명준, 「상춘곡(賞春曲)의 결어(結語) 재해석과 시가사적 위치」 『한국시가연구』 20권, 한국시가학회, 2000, 56쪽.

곡」·「불우헌가」·「상춘곡」이 실려 있다. 활자본 『불우헌집』에 비해 필사본 『불우헌유고』는 「서문」이나 「행장」의 글도 없이 「불우헌곡(不憂軒曲)」과 「불우헌단가이장(不憂軒短歌二章)」, 그리고 산문으로 소(疏)·기(記)·서(序) 등과 그리고 한시로 구성되어 있다.¹⁴ 고 했다. 이처럼 가곡이 앞부분에 배치된 것은 필사자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주관적 관점에 따라 책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필사자는 성종과 관련된 가곡이 더 중요하였기에 앞부분에 배치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운에 대한 감사와 임금에 대한 송축을 노래한 작품을 앞부분에 두었을 것이다. 「상춘곡」은 불우헌 자신의 일생동안의 삶에 대한 회고와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보여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기에, 덜 중시하여 배제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너무 긴 노래여서 따로 가승(家乘)되었을 수도 있다. 권순회는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 되었기에, 한글이 아직도 널리 사용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여, 「상춘곡」이 불우헌 시대의 작품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불우헌이 타계하는 성종12년인 1481년은 『두시언해』 초간본이 간행되던 시기였다. 이미 지배 계층도 상당히 훈민정음에 익숙해 있었다는 반론이 될 것이다.

권순회는 필사본 『불우헌유고』에서 이두식 표기와 18세기 표기법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있다. “필사본 『불우헌유고』에 수록된 국문시가 「불우헌곡」과 「불우헌가」가 모두 이두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활자본 『불우헌집』에는 「불우헌곡」은 이두로 표기된 반면에 「불우헌가」와 「상춘곡」은 국한문 혼용 표기로 되어 있고, 18세기 근세 국어의 특성을 보여준다. 「상춘곡」을 수록 하면서 이두로 표기되었던 「불우헌가」도 같은 표기 방식으로 바꾸었던 것이다.”¹⁴ 이는 「상춘곡」의 전승 과정에서의 표기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필사본 『불우헌유고』에는 「불우헌곡(不憂軒曲)」과 「불우헌단가이장(不憂軒短歌二章)」(「불우헌가」)이 이두식 표기로 되어 있는데, 활자본 『불우헌집』 가곡 부분에 전해지는 「불우헌곡」·「불우헌가」·「상춘곡」 중 「불우헌곡」은 이두식 표기이고, 나머지 「불우헌가」·「상춘곡」은 18세기 표기법으로 전해진다. 이는 필사본 『불우헌유고』의 이두식 표기의 불우헌단가이장(不憂軒短歌二章) 곧 「불우헌가」가 그 의미는 변함없이 18세기 표기로 정착되어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상춘곡」도 그 이전의 불우헌이 지은 원형 작품이 있었다면, 18세기 활자본 『불우헌집』에 정착될 때는 당시의 표기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보이다.

이론을 살펴본 결과 정확한 논거를 바탕으로 「상춘곡」이 불우헌 정극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후손 중에 어느 누군가의 작업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가필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과 더불어,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주제나 용어 선택 등이 「상춘곡」의 내용과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작가는 불우헌일 수도 있다는 미련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런 추측성 결론과 유보의 주장보다는 「상춘곡」이 불우헌 정극인의 문집인 『불우헌집』에 실려 있다는 근거가 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그래서 「상춘곡」이 이런 작가의 진위 여부의 논란이 있는데도 최근까지 정극인의 작으로 인정하고 연구¹⁵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춘곡」의 내용 분석을 통해 작품 창작 시기까지 고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4) 권순회, 「필사본 불우헌유고(不憂軒遺稿)의 발굴과 <상춘곡(賞春曲)>의 작자문제」 『韓國詩歌研究』 第56輯, 한국시가학회, 2022, 32쪽.

15) 박경주, 「정극인의 시가 작품이 지닌 15세기 사대부문학으로서의 위상 탐구」, 『고전문학과 교육』 29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윤인현, 「문(文)과 시(詩)를 통해 본 불우헌(不憂軒)의 선비정신과 자연관」 『비교한국학』 30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윤인현, 「가곡을 통해 본 불우헌의 안빈낙도 정신」, 『비교한국학』 31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3.

3. 「상춘곡(賞春曲)」에 나타난 용사(用事)와 점화(點化)의 시작법

용사(用事)란, 글을 지을 때 고사(故事)나 고어(古語), 그리고 경서(經書) 구절과 고인명(故人名) · 고인사(故人事) · 고인어(故人語) 등을 인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더해 자신의 논리를 보완하는 작법 평어류 용어를 이르는 말이다. 『시인옥설(詩人玉屑)』 중 『만재어록(漫齋語錄)』에 “대개 시어는 경사(經史)를 출입하게 되는 데에서 자연히 힘을 갖게 된다.”¹⁶⁾라고 하였고, 서거정(徐居正, 1420~1488)도 『동인시화(東人詩話)』에서 경서의 내용을 용사한 구절이 시적의미를 풍부하게 했다고 선평(善評)하였다.

고인(古人)의 시는 경서(經書)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였다. 이사중의 시에, ‘날이 새려는지 북두성 지려하고, 한 해도 저무는데 하늘이 개지 않네.’라고 하였고, 목은의 시에, ‘달빛만 유독 정을 품은 듯 나를 좇아 채(蔡)로 향하고, 산은 더욱 속되지 않아 나를 일깨울 자하로다.’라고 하였고, ‘목탁 같은 스승 두셋이라면 어찌 그대 근심케 하리오? 무에서 바람 씌고 예닐곱 동자와 노래하며 돌아오네.’라고 하였고, ‘왕풍(『시경』 중 노(魯) 나라 「국풍」)이 다행히도 노나라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여악은 어찌하여 제(齊)나라에서 왔는지.’라고 하였으니, 경서의 말을 인용한 것이 군색하지 않아 공교롭고 치밀한 것을 가히 높이 살만하다.¹⁷⁾

위의 이사중의 시 “날이 새려는지”는 『시경(詩經)』 「소아(小雅)」 「정료(庭燎)」편, “밤이 얼마나 되었나?, 밤이 아직 한밤중이 못되었으나.”¹⁸⁾을 인용하였고, “한 해도 저무는데”는 『시경』 「당풍(唐風)」 「실술(蟋蟀)」편, “귀뚜라미가 당(堂)에 있으니, 이 해가 드디어 저물었도다.”¹⁹⁾를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목은의 시 “나를 좇아 채(蔡)로 향하고”는 『논어(論語)』 「선진(先進)」편 ‘진채(陳蔡)’장, “진·채에서 나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이 문하에는 미치지 못했도다.”²⁰⁾를 인용한 것이고, “나를 일깨울 자하로다.”는 『논어』 「파일(八佾)」편 ‘회사(繪事)’장, “나를 흥기시키는 자는, 너 상이로다.”²¹⁾를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목탁 같은 스승 두셋이라면”은 『논어』 「팔일」편 ‘목탁(木鐸)’장 “여러분께서는, 공자님께서 지위를 잃으신 것에 대하여 무엇을 근심하리오? 천하가 무도한 지가 오랜지라, 하늘이 장차 공부자로 목탁을 삼으시리라.”²²⁾를 인용한 것이며, “무에서 바람 씌고 예닐곱 동자와 노래하며 돌아오네.”는 『논어』 「선진」편 ‘언지(言志)’장, “늦은 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거든 관례를 행한 자 5·6인과 동자 6·7인으로 기수에서 몸을 씻고 기우제 터에서 바람을 씌고서 읊조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²³⁾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여악은 어찌하여 제(齊)나라에서 왔는지.”는 『논어』 「미자(微子)」편 ‘여악(女樂)’장 “제나라 사람들이 여자와 풍악을 보냈거늘, 계한 자가 받고는 3일 동안을 조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공자께서 떠나셨다.”²⁴⁾를 인용한 것이다.

송나라 이사중이 경서(經書) 구절을 인용하여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 것처럼, 고려 목은 이색도 이사중 못지않게 경서 구절을 활용하여 그 시적 의미를 더욱 치밀하게 형상화하였다는 것이다.

16) 魏慶之, 『詩人玉屑』 「用事」 「用經史中語」, 中華民國 八十一, 世界書局, 154쪽, “大率詩語出入經史, 自然有力.”

17) 徐居正, 『東人詩話』, 卷上, 第五十二. “古人詩多用經書語. 李師中云, 夜如何其斗欲落, 歲云暮矣天無晴. 牧隱云, 月獨有情從我蔡, 山多不俗起予商. 木鐸二三何患子, 舞雩六七詠歸童. 王風幸矣興於魯, 女樂胡然至自齊. 用辭不窘工緻可尚.”

18) 『詩經』 「小雅」 「庭燎」篇. “夜如何其, 夜未央.”

19) 『詩經』 「唐風」 「蟋蟀」篇. “蟋蟀在堂, 歲聿其暮.”

20) 『論語』 「先進」篇 ‘陳蔡’章. “從我於陳蔡者, 皆不及門也.”

21) 『論語』 「八佾」篇 ‘繪事’章. “起予者 商也.”

22) 『論語』 「八佾」篇 ‘木鐸’章. “二三子, 何患於喪乎, 天下之無道也, 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

23) 『論語』 「先進」篇 ‘言志’章.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24) 『論語』 「微子」篇 ‘女樂’章. “齊人, 歸女樂 季桓子 受之 三日 不朝, 孔子 行.”

일반적인 말만 억지로 지어내서 되풀이하기보다는 경서 구절의 내용을 인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더했을 때 시적 의미도 풍부해지고 논리력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²⁵⁾ 이미 조선 초기 서거정을 비롯하여 문인들이 용사의 작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상춘곡」에 나타난 용사(用事)의 예를 살펴보자.

먼저 본사인 춘흥(春興)에 나오는 “소요음영(逍遙吟詠)”을 살펴보자. “소요음영”은 ‘이리저리 거닐며 시를 읊조린다.’는 뜻이다. 여기에 나온 ‘소요(逍遙)’는 전국시대 장주(莊周)가 지은 『장자(莊子)』 내편(內篇) 「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어휘이다. 전국시대 장주(莊周) 곧 장자(莊子)가 지은 『장자(莊子)』에서의 ‘소요(逍遙)’는 절대 자유의 세계에 소요하는 고차원의 사상을 피력하여, 구속 없이 자유로운 정신의 비상(飛翔)을 뜻한다. 장자는 세속적인 인물이 보지 못하는 자유로운 가치와 참된 유용성을 발견하여 홀로 즐기고 홀로 소요하며 세속을 초월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시적화자는 세속적인 가치를 뛰어 넘어 홀로 거닐면서 춘흥에서 오는 한중진미를 만끽하고 있다. 이는 노년의 불우헌이 달관된 경지로 봄의 경치를 완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자(莊子)』의 내용을 용사(用事)했기에 더욱 자유롭고 욕심 없는 마음을 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사 산수구경을 권유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욕기(浴沂)”는 『논어』 「선진(先進)」편 ‘언지(言志)’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공자가 자로·증석·염유·공서화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혹시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어찌하겠는가?’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이에 자로는 ‘큰 나라를 맡아 3년 안에 백성들을 용맹 있게 하고 또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염유(염구)는 ‘사방 6~7십리 되는 작은 나라를 3년 안에 백성들을 넉넉하게 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공서화(공서적)는 ‘작은 정승 노릇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세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서 공자는 마지막으로 증점(증석)에게 묻자 증점은 ‘늦은 봄에 봄꽃이 마련되거든 관례를 행한 자 5~6인과 사내아이 6~7인과 함께 기수에서 몸을 씻고 기우제 터에서 바람을 쐬고서 노래를 읊조리면서 돌아 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공자는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해 주었다. 자로·염유·공서화는 정치적인 포부를 말한데 비해, 증점(증석)은 봄날 기수에서 목욕하고 돌아오는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을 노래했다. 그래서 공자도 증점과 같은 삶의 태도를 허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자는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삶이 최고라고 평가한 것이다. 불우헌도 “욕기”를 용사(用事)하여 공자와 증점처럼 자연 속에 살면서 욕심 없는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삶이 최고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주자도 집주에서 증점의 뜻을 위인지학(爲人之學)이 아니라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보았다. 이처럼 증점은 무욕지의(無欲之意)를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다. 욕심 없는 마음을 스스로 언외(言外)에서 나타내어, 말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말 밖에서 천리(天理, 바른 이치)의 유행(流行)을 따르고자 하는 언외지의(言外之意)의 참뜻을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욕심없는 삶은 요순(堯舜) 임금의 기상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자가 주장한 “처사적 삶의 전형으로 ‘욕기’ 선택”²⁶⁾이 아니라, 달관된 삶의 경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결코 남과 짝할 수 없는 빼어난 기상이라는 의미에서 ‘불모의 기상’²⁷⁾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달관된 삶의 경지는 말년의 삶에서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경지일 것이다.

결사에 나오는 “단표누항(簞瓢陋巷)”은 『논어』 「옹야(雍也)」편 ‘누항(陋巷)’장에 나오는 “일단사(一簞食)와 일표음(一瓢飲)”에서 나온 말이다. 곧 ‘한 바구니의 밥과 한 표주박의 마실 것’이라는

25) 윤인현, 「東人詩話」를 통해 본 徐居正의 用事와 點化에 대한 인식, 『한국문학과 예술』 제29집, 2019, 99~100쪽.

26) 김광조, 「江湖歌辭의 作中空間 設定과 意味」-賞春曲·俛仰亭歌·星山別曲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3권, 한국시가학회, 2007, 124쪽.

27) 『論語』 「先進」篇 「言志」章. 「朱子集註」, “其氣象, 不侔矣.”

뜻으로 청빈한 생활을 상징하는 말로 줄여서 단표누항(簞瓢陋巷)이라고 한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가 안연(顔淵)이 가난한 삶을 살아도 그 삶을 근심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난한 삶을 즐기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학문의 즐거움 곧 삶의 도를 즐기는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기 자신의 학문이 아직 성취된 것이 작다고 생각하기에, 비록 가난한 삶이긴 하나, 그 곤궁한 삶을 떨쳐 버리고서 세상의 부귀공명을 추구하려 내달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불우현도 이 단표누항의 구절을 용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수용하면서 부귀공명에 얽매이는 헛된 생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이런 삶의 도를 즐기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삶의 성취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 작고 곤궁한 삶을 떨쳐 버리고 세상의 부귀공명을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말이다. 삶에 대한 달관의 경지에서 나올 수 있는 태도이다.

점화(點化)란, 환골탈태(換骨奪胎)와 같은 의미로 전인(前人)의 시문학이나 자신의 문학작품 중에 나타난 뜻을 쓰되 그 뜻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변화를 가(加)하여 자기의 작품에 발전적으로 쓰는 작법평어류 용어이다. 위경지가 『시인옥설』에서 점화의 방법을 소개하기를, “그 뜻을 바꾸지 않고 그 말만을 만드는 것을 환골법이라 하고, 그 뜻을 본받아서 형용하는 것을 일러 탈태법이라 한다.”²⁸⁾고 하였다. 『동인시화』에는 점화의 작법이 쉽지 않음을 소개한 곳이 있다.

내가 태재(泰齋) 류방선(柳方善) 선생에게 시구를 모으는 일의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다. 태재 선생이 말하기를,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네.’라고 하였다. 내가 다시 ‘어떤 말씀입니까?’하니, 대답하시기를, ‘시구를 모으는 일은 형공 왕안석도 어렵게 여긴 일이네. 근래에 재주(祭酒, 교육감이나 대학 학장) 임유정(林惟正)과 최집균(崔執均) 선생이 모두 시구를 잘 모은다고 하는데, 시구를 모은 것을 살펴보면 아마도 평소의 운(韻)에 의거하여 시를 모은 듯한데, 제자백가(諸子百家)의 글을 모두 섭렵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사용에 필요할 때를 대비한 것뿐이네. 우리나라는 시가(詩家)의 문적(文籍)이 많지 않으며 제자백가의 간행은 정해진 수효가 있는데, 임유정과 최집균이 모은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의 시구가 많이 있으니, 이 점이 매우 의심스럽네. 또한 임유정과 최집균이 이미 시구를 잘 모은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자신들이 지은 시는 한 편도 세상에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회자(膾炙)되는 것이 없는가? 이 점이 더욱 의문스럽네. 이러하니 시구를 모으는 일이 어려운 듯하면서 쉽고, 쉬운 듯하면서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지난번에 최집균 선생이 지은 고율시(古律詩) 수십 편을 보았는데, 한 구절도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른바 얼굴(시)을 직접 보니 명성을 들은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²⁹⁾

위의 제시문은 남의 시구를 모방하여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모방의 대상이 훌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훌륭한 점화의 대상을 접하기도 어렵고, 또 그 선택한 내용의 시구절을 자기 작품에 인용하여, 새로운 의미로 화(化)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상춘곡」에서의 점화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서사 부분에 나오는 “풍월주인(風月主人)”은 소동파(蘇東坡) 「적벽부(赤壁賦)」 나오는 내용을 모방한 것이다. 송나라 시대 문인으로 벼슬하던 소동파는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47세 되던 해(1082년) 유배와 다름없는 호북성 황주로 좌천되었다. 봉록도 없고 지역도 제한된 단련부사라는 명목만 있는 벼슬자리로 온 소동파는 그 어려운 현실을 자연을 통해 극복하려

28) 魏慶之, 『詩人玉屑』, 「換骨奪胎」, 臺灣商務印書館, 民國61, 190쪽. “不易其意而造其語, 謂之換骨法, 規摹其意而形容之, 謂之奪胎法.”

29)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第三十九. “予嘗問泰齋先生集句難易, 先生曰, 難而易易而難. 曰, 何謂也. 曰, 集句荊公所難. 近世林祭酒惟正, 崔先生執鈞皆能之, 觀其所集, 似是平日依韻撫詩, 諸子百家靡不蒐獵, 區分類別以待其用耳. 我國家文籍鮮少, 百家諸子之行有數, 而林崔所集, 多有不見不聞之人, 此甚可疑, 且林崔既能集句, 何無自作一篇, 流傳於世, 膾炙人口乎. 是又可疑, 此不亦難而易易而難乎. 予頃見崔先生所著, 古律數十篇, 無一句可傳於後, 所謂見面不如聞聲者也.”

하였다. 그때 지은 작품이 「적벽부(赤壁賦)」이다. 그 「적벽부」에는 “게다가 대저 천지 사이의 사물은 제각기 주인이 있어서 내 것이 아니면, 비록 털끝 하나라도 취할 수 없지만. 오직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밝은 달은, 귀로 얻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만나면 색깔을 이루는데, 취하여도 금하지 않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이는 조물주가 준 무궁한 보물이기에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이오.”³⁰⁾라는 내용이 있다. 천지만물 중에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청풍(淸風)과 명월(明月)은 누구나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니 ‘이 대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자.’라고 하여, 소동파의 호탕한 면모를 보였다.

불우현도 「상춘곡」에서 풍월주인을 모방하여 대자연의 주인이 되어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고 하였다. 소동파는 「적벽부」에서 유배와 다름없는 황주(黃州)의 좌천 생활에서 자연으로부터 위로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청풍’과 ‘명월’이 나온 것이다. 바람과 달이 항상 새로움을 내 즐거워하니 굳이 신선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우현의 ‘풍월’ 곧 청풍명월은 산림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모방은 했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대상인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의미이기에 점화가 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불우현은 자기 감정의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점화의 수법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왜 세상 사람들은 초가삼간을 지어 산림 속에 묻혀서 사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고 세상 일 곧 ‘흥진에 얽매이고 있는가?’하고 반문까지 하였다. 삶의 종착지인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니, 인간사 부귀영화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자고 하였다. 강전섭이 초기 연구에서 「상춘곡」이 불우현의 작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 논거 중의 하나가 ‘불우현의 기존 작품과 「상춘곡」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³¹⁾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불우현의 말년의 삶을 관찰해 보면 왜 기존의 작품과 다른 성향의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불우현이 80평생을 살아 본 결과 속세의 부귀영화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헛된 욕망을 멀리 하면서 성정을 순화하는 삶을 추구하여, 타고난 착한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기만의 삶의 철학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상춘곡」의 창작 시기가 80 노구를 이끌고 한양으로 올라가 성종을 알현(謁見)하고 온 후이기 때문이다.

“무릉(武陵)”도 ‘풍월주인’과 같은 효과이다. ‘무릉’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어부 도진의 이야기이다. 어부 도진이 찾던 이상세계로서의 무릉으로, 「상춘곡」에서도 불우현이 음주자적하는 가운데 그 취흥이 최고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의미와 고사가 인용됨으로써 상춘취락(賞春醉樂)의 멋도 최고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최고조의 감정은 동양적 이상 세계인 무릉도원인 것이다. 이는 용사이면서 점화의 수법인 것이다. 도연명의 글 「도화원기」의 내용을 모방하여 신의(新意)를 드러낸 것은 점화의 수법이고 그 속에 담긴 무릉도원의 고사의 의미는 용사이기 때문이다.

자기 한시 작품을 점화(點化)한 것도 있다.

「상춘곡(賞春曲)」 본사의 “한중진미(閑中眞味)”와 결사의 “功名도날씩우고 富貴도날씩우니 淸風明月外에 었던벗이잇스올고 簞瓢陋巷에 惚튼혜음아니흐니 아모타百年行樂어이만흔돌엇지흐리”는, 불우현의 한시 「불우현음(不憂軒吟)」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표절(剽竊)이거나 도습(蹈襲)³²⁾은

30) 蘇東坡, 「赤壁賦」, 『古文眞寶』,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淸風, 與山間之明月, 耳得之而為聲, 目遇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者之無盡藏也, 而吾與子之所共食.”

31) 姜銓燮, 「賞春曲의 作者를 둘러싼 問題」 『東方學志』 24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230쪽.

32) 도습(蹈襲)은 작가가 자기 작품에서 전대의 문학작품을 인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점화하려고 했으나, 후대의 독자나 비평가 보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저 되밟아 따르는 수준에 거친 경우

아니다. 왜냐하면 「상춘곡」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불우현음(不憂軒吟)」

청산에 또 백운을 길게 차지하니, 長占靑山又白雲(장점청산우백운),
불우현 위에서 천군(天君, 마음)을 섬기네. 不憂軒上事天君(불우현상사천군),
주리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한중의 재미, 飢餐渴飲閑中味(기찬갈음한중미),
청풍명월이 함께 하리라. 明月淸風可與云(명월청풍가여운)

「상춘곡」의 “한중진미(閑中眞味)”는 한가한 가운데서 맛보는 참된 즐거움이지만, 한시 「불우현음(不憂軒吟)」에 나오는 “한중미(閑中味)”은 불우현에 마음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서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상춘곡」에서는 춘흥이 절정에 올라 물아일체(物我一體)에서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온갖 세속적인 부귀공명과 물질적인 욕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연인으로서의 누리는 참된 즐거움인 것이다. 말년의 불우현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잘 드러낸 표현인 것이다. 「상춘곡」의 청풍명월도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불우현음(不憂軒吟)」의 ‘주리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재미를 청풍명월과 함께 하리라.’를 「상춘곡」에서의 “한중진미”와 “청풍명월”은 자연의 벗으로서 즐거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자연의 주인으로서 참된 삶의 멋을 아는 이가 없다. 그래서 나 혼자 즐기니 안타까운 마음까지 든다. 이는 일찍이 불우현 자신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다는 것이다. 세상 일들을 다 겪은 후, 이제야 어느 삶이 진정한 멋인지 알게 되었고, 그 참된 삶을 혼자 알고 누리자니 쓸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 속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도 혼자라서 적적한 심리의 아쉬움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남의 작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점화의 작법인데, 이렇듯 자기 작품을 인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처럼 자기 작품의 내용이 점화된 작품으로 「상춘곡」이 불우현 자신의 작품임을 증명하고 있다.

「상춘곡」에 나타난 용사와 점화 작법은 고려 후기부터 실제 작품 창작에 활용되었던 작법류 용어였다. 조선 초 서거정의 『동인시화』에도 그 작법의 방법이나 실례가 소개될 정도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불우현이 시문학을 창작하던 조선 초기에도 그 작법들은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춘곡」에 나타난 의미가 불우현의 다른 작품에서 가져와 충분히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불우현이 말년에 창작 방법으로 자신의 한시에 나타난 내용을 함축하여 「상춘곡」 내용 전개에 활용함으로써 그 내용의 완숙함과 인생 말년의 완성도까지 부여했다고 할 것이다.

불우현이 「상춘곡」에서 용사(用事)의 작법과 점화(點化)의 작법을 활용하여 그 시적 의미를 심도 있고 풍부하게 했다는 것은 그 작법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서거정의 『동인시화』에는 용사와 점화에 대한 작법에 대한 예시와 논평이 많이 나온다.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작법을 이용하여 불우현이 작품을 창작했다는 것은 「상춘곡」의 작가가 불우현일 확률을 더 높여주고 있다.

에 사용하는 평어류 용어이다.

4. 「상춘곡(賞春曲)」에 나타난 유자(儒者)의 자연관과 안빈낙도(安貧樂道)

자연의 질서 내에 있는 만물이 자연이며 그 중 우리의 삶만큼 절실히 다가오는 삶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관을 연구하는 것이 유자(儒者)의 자연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선대의 문인들은 자연을 노래하는 가운데 욕심 없는 자연스런 마음에 의해 참된 인생관을 보여주는 문학을 창작하고자 하였다. 이런 문학을 천기지발(天機之發) 곧 천기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하여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고대의 『시경(詩經)』시와 동진(東晉) 때의 도연명(陶淵明)의 자연 친화적이고 욕심 없는 마음을 담은 전원시가 그런 류에 해당되고, 또한 당(唐)나라 때 두보(杜甫)도 자연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담아 노래하였는데,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류의 시를, 유자의 자연관이 반영된 시라 할 수 있다.

자연(自然)이라 하면 꽃피고 새가 울며 녹음이 짙은 산천을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자연인 것이다. 사람은 천체(天體)의 운행 곧 천도(天道)를 본받아서 인도(人道)를 지극히 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 내에 있는 것은 자연이며 그 속에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자연이면서 현실인 것이다. ‘한국에서 그 동안 자연관에 대한 연구가 잘못되어 온 것은, 아마도 자연을 객관화시켜 주체인 나와는 다른 객체로 보고, 자연을 종종 정복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는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 여겨진다. 동양에서는, 이웃과 만물이 불편하면 내 몸의 혈맥이나 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자세를, 자연을 보는 최고의 경지로 여겨 왔던 것이다. 자연관을 인생관과 전혀 별개의 영역인 것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³³⁾ 따라서 동양에서의 자연은 천륜에 어긋나지 않는 것도 자연인 것이다. 陶淵明의 「歸去來辭」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호리병과 술잔을 끌어다 스스로 따라 마시고, 정원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얼굴을 기쁘게 가진다네. 남쪽 창가에 기대서 태연한 마음을 부치노니, 무릎을 용납할 만한 집이 쉽고 편한 줄을 살펴 알겠네.”³⁴⁾

위의 노래에서, 작자는 시름을 잊은 술잔에 한가한 정원의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낮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일부러 가난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무릎도 용납하지 않는 웅색한 거처가 편한 줄을 알겠다고 하여,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였다. 맹자의 말씀에 대한 주자(朱子)의 주석에서 “인(仁)은, 사심(私心)이 없고 천리(天理)에 합치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³⁵⁾라고 하였는데, 위의 노래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상춘곡」에 나타난 자연관과 안빈낙도(安貧樂道)는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 질서 내에 있는 모든 것은 자연이면서 우리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만큼 절실한 자연도 없다. 사람의 마음가짐과 이목구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맹자』에서 “형세와 얼굴빛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니 오직 성인(聖人)인 연후에야 가히 써 타고난 형색(형체)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느니라.”³⁶⁾라고 하였다. 성인은 타고난 이목구비를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는 나쁜 소리를 들으면 새겨듣고 입은 옳게 쓰려고 하며 눈은 나쁜 것을 보지 않는 태도 등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자연관을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안빈낙도(安貧樂道)는 흔히 어려운 처지나 환경을 소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연 속 은둔의 삶을 즐

33) 정요일, 「유가(儒家)의 자연관(自然觀)」 『어문연구』3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426쪽.

34) 陶淵明, 「歸去來辭」(古文眞寶 수록) 참조. “引壺觴以自酌, 眄庭柯以怡顏.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35) 『孟子』, 「告子」章下, 「名實」章에 대한 朱子의 주석 참조. “仁者, 無私心而合天理之謂.”

36) 『孟子』, 「盡心」章上, “孟子曰, 形色 天性也, 惟聖人然後 可以踐形.”

기는 것쯤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안빈낙도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안빈낙도는 『논어』 「학이」편 ‘빈부’장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대화 중 ‘빈이락(貧而樂)’에서 나온 말이다.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긴다.’라는 말이다. 이때 ‘즐긴다’는 말은 ‘학문이나 인생의 도를 즐긴다.’는 말이 될 것이다. 유자(儒者)가 경륜할 포부를 안고 공부에 매진하였으나 시대의 운수가 맞지 않아 출사(出仕)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주변의 산수 자연에 매몰되어 음풍농월(吟風弄月)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안빈낙도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논어』 「학이」편 ‘빈부’장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 나오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으로부터 칭찬 받기 위해 ‘가난하면서도 아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 부리지 않으며 좋은 사람이 아납니까?’로 여쭙니, 공자가 그기에 더 보태서 ‘가난하면서 도를 즐기며 부자이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 보면, 안빈낙도는 단순히 자연 속에서 가난한 삶을 받아들여 즐겁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도를 즐기며 산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참된 유자들의 생활 속에서의 안빈낙도는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처럼, 현실 정치나 현실적 삶에 자신이 등용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면 현실 세계와 현실적 삶을 등진 채 자연에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적 세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마음 편히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선비의 안빈낙도의 삶인 것이다.

「상춘곡」에 나타난 불우현의 자연관은 한가로운 자연속 생활을 상상하며 자연의 이치로 인생의 도(道)를 찾고자 하는 삶의 자세였다. 80세 성종을 알현하기까지 불우현은 유자로서의 삶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 유생 시절은 불교의 폐단 상소와 유배 및 낙향, 그리고 일민(逸民)으로 출사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조의 왕위찬탈로 2차 낙향한 일과 69세의 예종 승하와 성종 등극에 따라 빠른 치사(致仕)로 인한 3차 낙향한 일, 모두 유자로서의 출처관(出處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 3차 낙향 후에는 성종의 하교가 있으면 노신으로서 충심을 보였으며 또한 72세의 불우현은 성종의 천수를 바라는 노래도 지어 바쳤을 뿐만 아니라, 받은 성은(聖恩)에 감사하기 위해 80 노구를 이끌고 대궐로 가서 성종을 알현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이 유자의 자연관이면서 선비정신인 것이다. 유자는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성종을 알현하고 온 후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상춘곡」의 창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삶을 달관하는 자세로서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아 내 모습을 한 번 봐라. 옛 분들의 풍류적 삶에 미치고도 남는 모습이 있고, 이제는 풍월주인 곧 바람과 달을 즐기는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불우현 말년의 안빈낙도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이 봄날에 봄 경치를 즐겨보자고 하였다. 어떤 정치적 관심이나 포부도 없이 봄날을 즐기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춘 취락도 하고 봉두에서 봄 경치를 즐기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춘곡」 결사의 “功名도날씩우고 富貴도날씩우니 淸風明月外에 엇던벗이잇스올고 簞瓢陋巷에 훗튼혜음아니흐니 아모타百年行樂어이만흐돌었지흐리”는,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즐기는 모습이다. 부귀공명을 바라지 않고 청풍명월을 벗 삼아 비록 청빈한 삶이기는 하지만 분수 밖의 헛된 생각은 하지 않고 한평생을 즐겨 하였기 때문이다.³⁷⁾ 선행 연구 중 마지막 구절 “아모타百年行樂어이만흐돌었지흐리”를 분석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도다. 평생 동안 소박한 즐거움으로 지내는데 (즐거움의 원천이) 얼마나 많은들 (내가) 어찌하겠는가?’³⁸⁾로 풀이한 연구자도 있었

37) 윤인현, 「가곡을 통해 본 불우현의 안빈낙도 정신」 『비교한국학』31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3, 220쪽.

38) 김명준, 「상춘곡(賞春曲)의 결어(結語) 재해석과 시가사적 위치」 『한국시가연구』 20권, 한국시가학회,

다. 기존 대부분의 현대어 해석은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냄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는가?’로 이루어졌는데, 이 논문은 기존 연구 논문들과 다르게 “백년행락어이만흔돌어짓헝리”에서 “어이”를 독립시켜 ‘얼마나’로 해석하였고, ‘엇지하리’를 ‘어찌하겠는가?’로 해석하여, 체념적 자족(自足)으로 보았다. 대부분 기존의 「상춘곡」 해석들은 백년행락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는가?’로 해석하여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평생동안 소박한 즐거움으로 지내는데 (즐거움의 원천이) 얼마나 많은들 (내가) 어찌하겠는가?”의 체념적 자족이나 “이만하면 족하지 않겠는가?”의 만족감의 표현이나 어느 정도 어감상의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는 불우헌의 「상춘곡」 결사는 불우헌의 삶의 정리 단계에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결사 부분에 상자연(賞自然)에만 그치지 않았고 또한 부귀공명이라는 헛된 생각을 멀리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현실 세계의 번잡한 생각은 추월하고 이제는 한가로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벗하여 즐기면서 자연의 이치로 인생의 도를 찾고자 한 작품이 「상춘곡」이었다. 그래서 「상춘곡」은 상자연에만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귀공명을 멀리하게 하여 헛된 생각을 버림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상춘곡」은 불우헌이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일체의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초탈하여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유자가 지녔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노래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봄날 봉두에서 펼쳐지는 상자연은 불우헌이 그렸던 상상 속의 자연이면서 생애 마지막으로 누리고자 했던 상춘(賞春)이었다. 그것이 유자의 자연관이면서 진정한 안빈낙도의 모습인 것이다.

5. 「상춘곡(賞春曲)」의 창작 시기

불우헌 72세 때 지은 작품으로 「불우헌곡(不憂軒曲)」과 「불우헌가(不憂軒歌)」 등이 있다. 「상춘곡(賞春曲)」이 동시대 작이었다면 『성종실록』³⁹⁾이나 「행장」 등에 그 제목이 함께 소개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동 시대 작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두 작품과 그 창작 시기가 다르다면 어느 때일까?

「상춘곡」의 내용을 보면,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연 예찬과 자연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공명과 부귀도 이제는 별 소용이 없다는 달관된 삶의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삶의 달관된 태도를 볼일 수 있는 시기에 「상춘곡」도 창작되었을 것이다.

불우헌이 80세 되는 해 곧 성종을 알현하고 온 후 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지은 한시 작품이 있다. 「영회(詠懷)」이다.

「영회(詠懷)」-심회를 읊다

천년에 실로 요순의 성군을 만나,
색실로 곤룡포의 무늬를 잘 기웠네.
만일 이 덕으로 세상의 평판을 논한다면,
어찌 가치가 만 근의 좋은 금에 그치랴.

千載端逢堯舜君(천재단봉요순군),
色絲能補袞衣紋(색사능보곤의문).
如將此德論聲價(여장차덕론성가),
奚啻兼金重萬斤(해시겸금중만근).

2000, 49쪽.

39) 『成宗實錄』 22권, 「前正言丁克仁, 詣闕上書曰」 “謹作長歌六章, 短歌二章.” 장가 육장은 경기체가 형식인 「불우헌곡」이고, 단가는 시조 형식인 「불우헌가」이다.

한 통의 조서가 있어 구원으로부터 빛나니,
세상의 영화를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당년에 임금을 모셔 후한 위로(慰勞) 입었으니,
이 생애에 크나큰 은혜 보답할 길 없구나.

一封薇檄賁丘園(일봉미격분구원),
世上榮華可勝言(세상영화가승언).
得侍當年蒙厚慰(득시당년몽후위),
此生無計報鴻恩(차생무계보홍은).

아래는 여러 현인이 있고 위에는 큰 밝음이 있어,
당우 삼대와 이름을 나란히 할 만하네.
가련할손 못난 자질로 깊이 치우친 곳에 살며,
지극한 우로의 은혜에 성정(性情)을 기르네.

下有群賢上大明(하유군현상대명),
唐虞三代可齊名(당우삼대가제명).
自憐樗櫟生幽僻(자련저력생유벽),
雨露恩深養性情(우로은심양성정).

몇몇 어진 신하는 한 몸 다 바치고,
한가로운 선비는 삼춘을 완상하네.
행하고 물러나며 나아가고 처함은 하늘이 부여한 것,
공자께서 어찌 수고롭게 멀리 문진(問津)하였던가?

多少良臣獻一身(다소량신헌일신),
幽閑逸士賞三春(유한일사상삼춘).
行藏出處由天賦(행장출처유천부),
大聖何勞遠問津(대성하로원문진).

넓지 않은 선비의 집 비록 치우쳐 누추하나,
꽃 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 흥을 형언하기 어렵네.
시서(詩書)와 바둑으로 한가로이 날을 보내니,
앉고 눕기를 뜻대로 하는 불우현일세.

一畝儒宮雖僻陋(일무유궁수벽루),
花朝月夕興難言(화조월석흥난언).
詩書棊奕閑消日(시서기혁한소일),
坐臥隨意不憂軒(좌와수의불우현).

위로는 비 내리고 옆으로 바람 맞는 몇 칸의 집에,
헛된 명예를 지녔던 한 선비가 있네.
양양한 성군의 은택 어찌 보답할까?
하늘과 같길 기원하여 충정을 쏟아내네.

上雨傍風屋數間(상우방풍옥수간),
浮名虛譽一儒冠(부명허예일유관).
洋洋聖澤將何報(양양성택장하보),
祝壽齊天瀉肺肝(축수제천사폐간).

벼슬길에 부침함은 본디 같은 근원이고,
영욕은 서로 순환하여 함께 뿌리를 이루네.
누가 알랴 자미화(사간원) 아래 놀던 객이,
한가함을 구하여 불우현에 크게 누웠음을.

浮沈宦海本同源(부침환해본동원),
榮辱相乘互作根(영욕상승호작근).
誰識紫薇花下客(수식자미화하객),
求閑大臥不憂軒(구한대와불우현).

세상에 누가 가장 한가로운가?

世上阿誰最大閑(세상아수최대한),

늙은 간신(諫臣)이 물러나길 청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네.

老諫乞骸歸故山(노간걸해귀고산).

거문고와 바둑에 술 마시고 시 읊으며 긴 날을 보내니,

琴碁觴詠消長日(금기상영소장일),

천지간에 기쁨만 있고 근심은 없네.

有喜無憂俯仰間(유희무우부양간).

백년 세월 어느덧 팔순에 가까우니,
앞서 젊은 사람을 보냈이 그 얼마였던가?
위로 벽 위의 연금방을 바라보니,
많고 많은 명현이 신선되고 말았네.

百歲光陰近八旬(백세광음근팔순),
幾多先送少年人(기다선송소년인).
仰觀壁上蓮金榜(앙관벽상련금방),
濟濟名賢化作神(제제명현화작신).

위의 한시에서는 「상춘곡」의 내용들이 다소 발견된다. 1수는 불우헌 자신이 살아온 시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태평성대를 만나 벼슬자리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가치를 논한다면 만 근의 금보다도 더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수는 80세에 직접 말을 타고 대궐로 가서 성종을 뵈고 성은(聖恩)에 사례하고 시정의 폐단을 논하자, 성종이 술을 내려 위로하였던 것이다. 그 날의 감격을 표하였다. 3수는 요순시절과 하·은·주 3대처럼 태평성대에 사는데 굽은 상수리나무처럼 재목감이 못되는 자신은 임금의 은혜로 타고난 본성을 기르고 있다고 하였다. 4수는 치사(致仕)한 선비의 상춘(賞春)과 천명(天命)에 따른 출처관을 제시한 곳이다. 4수의 내용처럼 불우헌은 봄을 즐기면서 하늘이 부여한 대로 출처를 따르고 공자가 행한 것처럼 본성을 되찾고 안빈낙도하면서 살겠다는 것이다. 「상춘곡」의 제목과 유사한 “賞三春(상삼춘)”이 시 구절에 나온다. 5수는 「상춘곡」 서사 부분에 나오는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같은 의미이면서 한중진미를 즐기는 불우헌의 모습이다. 6수는 초가삼간에 사는 불우헌 자신이 그 동안 받은 성은에 감사하고 있다. 7수는 벼슬길의 부침과 영욕은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헛된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청빈한 삶에 만족하면서 살자⁴⁰⁾는 것이다. 8수는 치사한 불우헌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 세상에 가장 한가한 사람이 치사한 노유(老儒)로, 일상사를 누리며 노래하고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니 근심은 없고 기쁨만 있다고 하였다. 이때는 연군도 충절도 행할 필요가 없는 시기이다. 이는 「상춘곡」 본사 음주자적의 한 장면 같다. ‘갓 익은 술을 걸러 마시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을 세면서 먹는 풍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후 80세 노구에 성종을 알현하고 온 후 불우헌의 심리일 것이다. 이 한시의 내용처럼, 「상춘곡」의 자연 친화적 사고는 성종을 알현하고 온 후 80세와 삶을 종결짓는 81세 사이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9수에서는 불우헌이 이 시를 지을 무렵의 나이가 언급되고 있다. “近八旬(근팔순)”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직 80세 생일 전 봄날의 어느 지점이다. 불우헌은 1401년 음력 8월 6일에 태어났고 1481년 음력 8월 16일에 타계하였다. 그러니 한시 「영회(詠懷)」은 80세 무렵의 봄날이 될 것이고, 가사 작품인 「상춘곡(賞春曲)」은 80세 봄날 아니면, 81세 어느 봄날에 지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81세 어느 봄날에 지었다면 타계하기 5~7개월 전일 것이다. 이는 생애의 전 단계를 회고 성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생각이 함축되어 표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상춘곡」은 「영회(詠懷)」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애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불우헌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유자의 자연관 중 하나로 인간의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인간의 본성인 착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런 본성을 회복하는 인생이야말로 불우헌 자신이 꿈꾸었던 백년행락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픈 삶이었던 것이다.

선행 연구 중, 「상춘곡」의 창작 시기는 1차 낙향과 3차 낙향인 치사 후에 지은 작품으로 본 연구가 있다. 1차 낙향은 37세에서 51세까지로 불우헌이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세종의 숭불 정책에 반대한 일로 귀양 갔다가 낙향한 시기이다. 초기 연구자인 정재호는 가사의 내용과 생애를 살펴 창작 시기를 추정하여, 「상춘곡」을 1차 낙향 시기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43세 이후에 창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2세 때 지은 「불우헌곡」과 「불우헌가」의 창작 배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⁴¹⁾고 하였다.

40) 윤인현, 「가곡을 통해 본 불우헌의 안빈낙도 정신」 『비교한국학』3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3, 222쪽 참조.

41) 鄭在皓, 「不憂軒攷」 『어문논집』 4권, 민족어문학회, 1960, 54~56쪽 참조. 정재호는 첫 번째 낙향인 37세(1437년)부터 14년간 태인 고현에 거주할 때 지은 작품으로 보았다. 다른 연구자는 치사 후 3차 낙향인

치사(致仕) 후 70대 이후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 초기 연구 세대인 이상보는 「상춘곡」의 제작 연대를 성종 원년인 1470년인 불우헌 70세로 보았으며⁴²⁾, 박경주는 불우헌의 한시 작품에서 「상춘곡」의 정서와 일맥상통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한시 「영회」 4수와 5수를 예로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한시에서도 「상춘곡」과 어휘와 미의식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우헌의 한시에 차운한 김륜과 박휘겸의 한시에서도 그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경주는 이런 주장을 통해 「상춘곡」이 정극인의 향촌 생활을 할 때 지은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⁴³⁾고 하였다.

본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춘곡」은 불우헌 정극인이 치사한 후 우거지에서 삶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품으로 추정하고자 한 것이다. 불우헌이 3번째 낙향 후 80세에 그 동안 성은(聖恩)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성종(成宗) 임금께 보여드리고 난 후, 지은 작품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상춘곡」의 서사와 본사 내용과 결말 부분에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

서사 부분에 “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生涯 엇더흔고, 넷 사름 風流를 미출가 뭇 미출가, 天地間 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에 뭇쳐 이서 至樂을 맛들것가.”라고 하여,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난다.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이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많지만,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림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아는 삶이 옛 사람의 풍류에 미치고도 남는 삶이라고까지 하였다.

본사 춘경(春景)에서 느끼는 흥취는 달관된 경지에 들지 않은 사람은 느끼기 어려운 삶의 태도이다. 석양 속에 핀 도화와 살구꽃, 가랑비 속에 푸른 버들과 꽃다운 풀 그리고 새소리 등에 몰아 일체(物我一體)를 느끼며 한중진미를 혼자만 누림을 상상하였다. 이런 자연에 몰입하여 자연의 멋을 누릴 수 있는 경지의 나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함께 하고자 봄들판으로 상춘(賞春)을 가자고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갓 익은 술을 걸러 너 한 잔 나 한잔 하니 봄들판이 무릉도원(武陵桃源) 같은仙境(仙境)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진달래꽃을 붙들여 잡고 산 정상에 올라 봄이 온 들판을 보니, 그 들판이 바로仙境(仙境)이다. 이런仙境의 경지에서는 세속적인 삶인 연군(戀君)과 충절(忠節)은 이미 초월한 상태이다. 이런 경지의 삶이 곧 불우헌의 말년의 삶인 것이다. 그토록 소원이었던 성종에게 성은(聖恩)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난 후 일어날 수 있는 경지의 삶이다. 성종은 치사 후 낙향한 자신에게 구언을 하교하기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삼품의 벼슬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불우헌은 성종의 천수를 기원하는 노래도 지어 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낙향한 불우헌 자신에게 각별한 성은을 베풀어준 그 성종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80세 노구로 한양 궁궐까지 가서 알현(謁見)했던 것이다. 아마도 여기까지가 불우헌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상춘곡」은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제거된 노래로, 달관된 삶의 태도에서 나온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결사에서 “아모타百年行樂어이만흔들엇지헝리”라고 하여, ‘어쨌든 한 평생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결사의 내용처럼, 한 평생의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었다. 이런 만족감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는 성종을 알현한 후인 80세와 타계하는 81세 사이일 것이다. 삶의 종착지에서 이제는 성은(聖恩)에 감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부여하면서 자연을 통한 성정(性情) 순화를 노래하는 것이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

70세 이후의 작품으로 보았다.

42) 李相寶, 「丁克仁의 賞春曲 研究」 明知大 『明知語文學』 6輯, 1974, 5~22쪽.

43) 박경주, 「정극인의 시가 작품이 지닌 15세기 사대부문학으로서의 위상 탐구」, 『고전문학과 교육』 29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05~212쪽.

면 일부 선행 연구에서 ‘왜 작품의 내용 중 연군지정(戀君之情)의 마음이 없느냐?’는 의문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성종을 뵈고 온 후이기에 연군은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은 삶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이다. 그 답이 「상춘곡」의 서사와 결사 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춘곡」은 80세와 81세 사이에 창작되어 불우헌 자신의 일생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유자(儒者)는 어디에 처해도 현실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벼슬하고 있을 때나 낙향하여 자연을 벗 삼아 여생을 즐기고 있을 때나 언제나 현실을 염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애민과 연군까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참된 유자는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도 현실을 염려하고 그때 지은 문학작품에서도 연군지정(戀君之情)이나 우국지정(憂國之情)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다.

불우헌도 1차 · 2차 · 3차 낙향 때, 모두 자기 수양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바른 삶을 위해 향약(鄉約)의 초기 형태인 동약(洞約)을 만들기도 하고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행하여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법도를 중시하게 하여, 바른 성정(性情)을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치사(致仕) 후인 70세부터 80세까지 성종의 구언(求言)에 올린 소(疏)는 충절의 실천으로 현실을 잊지 않는 유자가 지향했던 선비정신의 발로였던 것이다. 80세에 자력(自力)으로 말을 타고 한양까지 가서 그토록 알현(謁見)하고자 했던 성종(成宗)을 뵈었던 것은, 불우헌이 지녔던 선비정신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일이었다. 80이라는 노구를 이끌고 대궐로 가서 성은(聖恩)에 감사드리고 내려옴으로써 그의 유자로서의 의무는 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창작한 노랫말이 「상춘곡」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상춘곡」에는 더 이상 현실적인 내용이나 연군보다는 평소 불우헌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함으로써 일생동안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느낄 만큼 만족했음을 안분지족(安分知足)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불우헌의 기존의 문학 작품에 나타났던 현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연군지정(戀君之情)과 우국지정(憂國之情)이라는 주제적 내용이 서술되지 않았던 것이다.

6. 결론(結論)

황윤석의 「행장」에는 「불우헌가장초(不憂軒家狀草)」와 「불우헌묘갈결문(不憂軒墓碣缺文)」 등이 있다고, 활자본 『불우헌집』에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필사본 『불우헌유고』에는 실려 있지 않다. 황윤석이 쓴 「행장(行狀)」에서 “(공이 지은) 시문(詩文) · 가곡(歌曲) 오랜 벼들과 수창(唱酬)한 것을 합하여 1책이 있었으나 왜란(倭亂)의 병화(兵火)를 겪은 뒤 그 가운데 겨우 한두 가지만 전하게 되었다.”⁴⁴⁾라고 하여, 그 전승 과정을 소개한 내용이 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불우헌가장초(不憂軒家狀草)」와 「불우헌묘갈결문(不憂軒墓碣缺文)」 등이 별도로 집안에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상춘곡」도 정씨 문중이나 집안에서 별도로 전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제적인 문집인 활자본 『불우헌집』을 간행할 때 그 문집 속에 넣어 출간했을 것이다.

근래의 선행 연구자 중 김명준과 권순회는 상춘곡이 가필(加筆)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김명준은 ‘가필 정도가 아주 심하게 되었을 것’⁴⁵⁾라고도 하였으며, 권순회는 ‘집안 자체나

44) 『不憂軒集』附錄, 「有明朝鮮國故通政大夫行司諫院正言不憂軒丁公行狀[黃胤錫]」, “有詩文歌曲并知舊唱酬一冊, 閱倭燹僅傳一二.”

45) 김명준, 앞의 논문, 56쪽.

향리의 누군가가 지었을 것'⁴⁶⁾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권순회는 필사본 『불우헌유고』에 이두식 표기로 전하는 「불우헌단가이장(不憂軒短歌二章)」이 활자본 『불우헌집』에는 18세기 표기법인 국한문혼용체 「불우헌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필사본 『불우헌유고』에 이두식 표기로 전하던 「불우헌단가이장(不憂軒短歌二章)」이 활자본 『불우헌집』에 국한문혼용체 「불우헌가」로 전하면서 그 내용이 바뀌지 않고 의미가 동일하다. 이두식 표기였던 「불우헌단가이장(不憂軒短歌二章)」 곧 「불우헌가」가 의미나 글자의 침식도 없이 온전하게 국한문혼용체로 전승되었듯이, 만약 「상춘곡」이 정극인 시대부터 가집(歌集) 형태로 전승되던 본이 있었다면, 18세기 정착될 때 표기법만 당시의 표기법으로 바뀌어 문집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춘곡」이 불우헌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한 연구자의 주장에는 불우헌의 기존 문학 작품에 나타난 연군지정이나 총절의식, 출처관 등 주제나 정서, 그리고 어휘 선택 면에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춘곡」은 불우헌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상춘곡」을 불우헌이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성찰하면서 그 동안 꿈꾸어 왔던 이상적인 삶을 노래했다면, 그동안의 그의 문학작품 세계에 나타났던 정서와 주제와는 다소 다른 느낌의 주제를 노래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삶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보다는 자연을 벗하며 사는 안빈낙도의 삶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래서 「상춘곡」은 봄 동산에 올라 상상적 이상세계를 노래한 것이다. 「상춘곡」은 상상에 의해 마련된 관념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관념적 공간에서 처사적 삶에 대한 명분을 과시함으로써 현실에서 생긴 내적 불만을 상쇄하기 위한 공간'⁴⁷⁾은 아니고, 오히려 세속적인 명분을 다 초월한 달관된 삶의 태도에서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작품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했던 모든 삶의 태도에 자부심이 실리고 만족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춘곡」은 불우헌의 유작으로 생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다. 따라서 창작 시기는 80세 성종의 알현 후부터 돌아가시기 전(81세) 어느 봄날에 태인 고현에서 지은 작품으로 추론할 수 있다.

46) 권순회, 앞의 논문, 31쪽.

47) 김광조, 앞의 논문, 125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한국고전종합DB 『不憂軒集』

丁克仁 著, 김홍영 역, 『국역 불우현집』, 민족문화추진회, 1998.

『古文眞寶』, 景仁文化社, 1983.

陶淵明, 「歸去來辭」, 『古文眞寶』 수록.

蘇東坡, 「赤壁賦」, 『古文眞寶』 수록.

魏慶之, 『詩人玉屑』, 中華民國 八十一, 世界書局.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 『詩經』, 藝文印書館, 1981.

” 『論語』 ”

『孟子』, 景文社, 1979.

『成宗實錄』 22권, 「前正言丁克仁, 詣闕上書曰」

徐居正, 『東人詩話』, 卷上, 第五十二. 卷下, 第三十九.

2. 논저

權寧徹, 「不憂軒歌曲 研究」, 『國文學 研究』 제2집, 효성여대, 1969, 79~91쪽.

권순희, 「필사본 불우현유고(不憂軒遺稿)의 발굴과 <상춘곡(賞春曲)>의 작자문제」, 『韓國詩歌研究』 第56輯, 한국시가학회, 2022, 5~41쪽.

姜銓燮, 「賞春曲의 作者를 둘러싼 問題」, 『東方學志』 24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229~251쪽.

김광조, 「江湖歌辭의 作中空間 設定과 意味」-賞春曲·俛仰亭歌·星山別曲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23권, 한국시가학회, 2007, 115~147쪽.

김대행, 남경(南耕) 박준규 박사 정년기념 특집호 : 「상춘곡 : 추상의 의미」, 『고시가연구』 제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71~81쪽.

김민화, 「丁克仁의 ‘상춘곡’ 研究」-그 지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87, 77~95쪽.

김명준, 「상춘곡(賞春曲)의 결어(結語) 재해석과 시가사적 위치」, 『한국시가연구』 20권, 한국시가학회, 2000, 33~62쪽.

金成基, 「丁克仁의 不憂軒歌에 나타난 時調性 研究」, 『시조학논총 19집』, 2002, 155~177쪽.

박경주, 「정극인의 시가 작품이 지닌 15세기 사대부문학으로서의 위상 탐구」, 『고전문학과 교육』 29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5, 206~207쪽.

박종배, 「불우현 정극인의 태인에서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35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60~78쪽.

양희찬, 「賞春曲의 作者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65권, 민족어문학회, 2012, 139~164쪽.

尹錫山, 「賞春曲 구조 연구」, 『고전문학연구』 13권, 한국고전문학회, 1998, 69~91쪽.

윤인현, 「東人詩話」를 통해 본 徐居正의 用事와 點化에 대한 인식」, 『한국문학과 예술』 제29집, 2019, 99~100쪽.

윤인현, 「문(文)과 시(詩)를 통해 본 불우현(不憂軒)의 선비정신과 자연관」, 『비교한국학』 30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121~151쪽.

윤인현, 「가곡(歌曲)을 통해 본 불우현(不憂軒)의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 『비교한국학』 31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23, 199~232쪽.

鄭堯一 外, 『고전비평 용어 연구』, 태학사, 1998, 154쪽.

정요일, 「유가(儒家)의 자연관(自然觀)」, 『어문연구』 3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425~442쪽.

鄭在皓, 「不憂軒攷」, 『어문논집』 4권, 민족어문학회, 1960, 46~57쪽.

- 崔康賢, 「賞春曲과 不憂軒集 研究」, 『홍대논총』 제16집, 홍익대학교, 1984, 229~264쪽.
- 최상은, 「不憂軒과 紅塵의 양면성」-丁克仁 문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35권,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367~393쪽.
- 崔珍源, 「江湖歌道の 研究」, 『논문집』 8집, 성균관대학교, 1963, 18쪽.
- 최웅, 「가사의 기원」, 『韓國 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286~296쪽.

토론문 03

불우헌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에 대한 소고(小考)에 대한 토론문

토론 조동영(성균관 한림원)

「불우헌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에 대한 소고(小考)」에 대한 토론문

조동영(성균관 한림원)

이 논문은, 不憂軒 丁克仁의 작품으로 전해오고 있는 「賞春曲」에 대하여 작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 발표된 선행 논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작품 내용을 儒者의 自然觀에 비추어 분석하는 한편, 여러 문헌을 고찰하여 창작 연대까지 추론함으로써 이 작품의 작가가 불우헌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有意味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이 논문의 특기할 만한 점은 「상춘곡」에 나타난 儒者의 自然觀 등을 고찰함으로써 이 작품이 불우헌의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創作年代를 3차 落鄕時期인 80세를 전후한 때로 보고 있다는 점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작가에 대한 眞僞 여부를 심도 있게 考究하고자 한 노력에 대하여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다만 논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틀에 대한 것과 몇 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1) 본 논문에서는 여러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현전 「상춘곡」은 원 「상춘곡」이 전승되는 동안 가필(加筆) 등을 통한 부분적 변이를 거치거나 혹은 현저한 변이를 거쳐 원형에서 매우 벗어난 형태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와같이 여러 인용문이 지닌 표현방식 중에서 ‘추정하였다.’라는 논지를 일관되게 펴고 있는데,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이 된다. 사실과 다른 假設들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점에 대하여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본 논문에서는 또 「상춘곡」은 불우헌의 작품이 아니라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데, 정작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발표문 5페이지에서 피력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처럼 가곡이 앞부분에 배치된 것은 필사자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주관적 관점에 따라 책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필사자는 성종과 관련된 가곡이 더 중

요하였기에 앞부분에 배치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은에 대한 감사와 임금에 대한 송축을 노래한 작품을 앞부분에 두었을 것이다. 「상춘곡」은 불우헌 자신의 일생동안의 삶에 대한 회고와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보여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기에, 덜 중시하여 배제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너무 긴 노래여서 따로 가승(家乘)되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매우 추상적인 견해들로 일관하게 되면 독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불우헌의 작품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논문의 주장은 또 다른 하나의 주장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 대하여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3번 챗트에서 「상춘곡」에 담겨 있는 어휘와 용어에 대하여 문학비평 방식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면서 用事와 點化라는 비평 용어에 치중한 나머지 장황하게 字句의 설명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논문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本旨가 아닌 지엽적인 설명이나 일반적인 인식 문제는 脚註 처리로 하는 것이 더 一目瞭然하여 설득력을 지니게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다. 「상춘곡」 원문에 보이는 소요음영(逍遙吟詠)과 욕기(浴沂)라는 용어에 대하여 用事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데에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 건물을 튼실하게 잘 지으려면 설계서부터 건축자재가 좋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잘 쌓고 꾸미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며,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식재료가 먼저 신선해야 하고 조미료를 넣어 요리하는 문제는 그다음이듯이 논문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인용문부터가 완벽에 가까울 만큼 내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뜬구름이 되거나 소설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 논문에는 많은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논문이 좀 더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세심한 검토와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본 논문 10페이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불우헌음(不憂軒吟)」의 내용상의 번역문은 의미전달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청산에 또 백운을 길게 차지하니,	長占靑山又白雲(장점청산우백운),
불우헌 위에서 천군(天君, 마음)을 섬기네.	不憂軒上事天君(불우헌상사천군).
주리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한중의 재미,	飢餐渴飲閑中味(기찬갈음한중미),
청풍명월이 함께 하리라.	明月淸風可與云(명월청풍가여운)

그래서 이 인용문을 다시 옮겨보았다. 비교하여 참고하였으면 한다.

청산을 오래 점유하니 백운도 내 차지라	長占靑山又白雲
불우현에 앉아서 마음 수양을 일로 삼고	不憂軒上事天君
기갈을 달래가며 한가한 속 취미란 건	飢餐渴飲閑中味
밝은 달 맑은 바람 함께하는 그거라오	明月淸風可與云

(5) 발표자께서는 4번 챗트에서

「상춘곡」은 상자자연에만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귀공명을 멀리하게 하여 헛된 생각을 버림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상춘곡」은 불우현이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일체의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초탈하여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유자가 지녔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노래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봄날 봉두에서 펼쳐지는 상자자연은 불우현이 그렸던 상상 속의 자연이면서 생애 마지막으로 누리고자 했던 상춘(賞春)이었다. 그것이 유자의 자연관이면서 진정한 안빈낙도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좀 더 성숙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칫 추상적인 견해로 흐르지 않도록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하여 발표자의 각오를 듣고 싶다.

주제발표 04

채용신의 작품세계와 무성서원

발표 유미나(원광대)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정읍과 채용신의 회화 활동
- III. 무성서원 <최치원 영정>의 이모와 봉안
- IV. 채용신의 도강김씨 수응화(酬應畵)
- V. 맺음말

I. 머리말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신라말에 태산태수로 부임한 최치원(崔致遠, 857~?)과 조선 명종대에 부임한 신잠(申潛, 1491~1554), 그리고 향리의 선비인 정극인(丁克仁, 1401~1481), 송세림(宋世琳, 1479~1519), 정언충(鄭彦忠, 1479~1557), 김약목(金若默, 1500~1558), 김관(金灌, 1575~1635)을 배향한 곳이다(도 1). 이곳의 주민들은 최치원이 이임한 뒤부터 생사당을 짓고 그를 기렸으며, 그 전통은 태인에서 학교를 크게 일으키고 선정을 베푼 신잠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정극인이 건립한 향숙(鄉塾)을 기반으로 송세림이 학교의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정언충, 김약목 등이 계승하였다. 성종대인 1483년에 월연대(月延臺) 위에 있던 태산사(泰山祠)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1615년(광해 7)에 제향기능의 태산사와 강학 기능의 강당 등이 갖추어진 태산서원이 되었다. 무성서원은 1696년(숙종 22)에 사액서원으로 공인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 되었다. 1868년(고종 5)에 전국의 47개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과 사우가 철폐될 때 무성서원은 존치되어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¹⁾



도 2 <무성서원 전경>(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search.cha.go.kr/>))

20세기 초 무성서원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 역할과 의미가 더욱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호남 유림의 학문적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국권침탈에 저항하고 우국충절을 불태우는 열사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곳이기도 했던 것이다. 어진 화사로 이름이 높았던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고향으로 낙향하여 무성서원 및 관련 인물들과 인연을 맺으며 회화 활동을 펼쳤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무성서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1) 『『무성서원원지』 상 해제』, 박정민·권이선 옮김, 『무성서원원지』(1884) 상(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p. 13. 무성서원은 1968년에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것은 서원 내의 향사 공간인 태산사(泰山祠)에 봉안된 최치원 초상화를 채용신이 이모(移模)했던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무성서원의 <최치원 초상화>와 채용신의 이모본 제작에 대해서 『무성서원 원지(武城書院院誌)』(1884년) 및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1936) 등의 문헌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고 작품에 대한 회화양식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²⁾ 아울러 채용신이 무성서원과의 관련 속에서 펼쳤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하고자 한다.³⁾

II. 정읍과 채용신의 회화 활동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은 자가 대유(大有), 호는 석지(石芝)·석강(石江)·정산(定山)이다. 아명은 용덕(龍德)이며, 본명은 동근(東根)이다. 본관은 평강(平康)이며, 조상은 본래 전주에서 살았는데, 조부인 채홍순(蔡弘淳) 때 서울 삼청동으로 이사하였으며, 채용신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6년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직을 역임하였고, 귀산(龜山)첨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1895년 향리인 완산(完山) 장암(場巖)에 내려와 거주하였다. 채용신은 무관직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화가로 활동한 것은 무관직 퇴임 이후이며, 완산에 기거하던 1899년에는 조경단 비문의 복철 작업에 화원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이 무렵 채용신은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을 비롯한 궁내부 대신들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어진 화사로 추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신은 1900년과 1901년에 각각 상경하여 태조어진과 칠조(七祖)어진의 제작에 참여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경상북도 칠곡군수(1900)와 충청남도 정산군수(1905)를 역임하였다.⁴⁾

채용신이 정읍과 인연을 맺게 된 시점이나 계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현존하는 작품들

2) 박정민·권이선 옮김, 『무성서원원지』(1884) 上(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김건우·서정화·홍성덕 역, 『(국역) 무성서원지』(1936)(정읍시·무성서원·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1). 최치원 초상화에 대한 연구로는 배영일, 「진영으로 본 최치원」,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 2, 고운 최치원』(국립경주박물관, 2012); 한정호, 「최치원 영정(影幀) 연구」, 『한국지역문학연구』 5(2)(한국지역문학학회, 2016); 손상국, 『최치원을 추억하다』(신아출판사, 2016); 김지민, 「최치원 영정의 형성과 전파: 최치원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64(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참조.

3) 채용신의 호남지역에서의 활동에 집중한 연구로는 권혜은, 「석지 채용신의 호남지역에서의 활동과 작품」, 『조선시대 회화의 교류와 소통』(사회평론, 2014)이 있고,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채용신의 회화와 활동에 대한 밀도있는 연구로 양진희, 「石芝 蔡龍臣의 繪畵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의 도움을 받았다. 이 외에 채용신 회화에 대한 연구는 채용신 사후 1943년 개최된 ‘故 石江 蔡龍臣氏 遺作展’ 당시 도록에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쓴 「石江蔡龍臣先生略傳」와 일본인 학자 구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의 「石芝 蔡龍臣」, 『美術研究』 162(日本 東京: 美術研究所, 1951)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연구는 최순우, 「이조의 화가 석지 채용신」, 『박물관 뉴스』 15(국립중앙박물관, 1971); 전혜원, 「석지 채용신의 초상화에 대하여」(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79); 허영환, 「석지 채용신 연구」, 『남사 정재각박사 고 희기념 동양학논총』(고려원, 1984); 이영숙, 「채용신의 초상화」, 『배동무 총장 퇴임기념 사학논총』(목포대학교, 1994); 정석범, 「채용신 회화의 연구」(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5); 정석범, 「채용신 초상화의 형성 배경과 양식적 전개」, 『미술사연구』 13(미술사연구회, 1999); 박청아, 「한국 근대 초상화연구」(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9); 박서운숙, 「채용신과 김은호의 인물화비교연구」(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조선미, 「채용신의 생애와 예술-초상화를 중심으로」, 『석지 채용신』(국립현대미술관, 2001); 윤범모, 「채용신의 초상화 제작활동과 근대성 문제」,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이상과 허상과 꽃피다』(전북도립미술관, 2012); 이용엽, 「어진화가 석지 채용신의 행장」,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이상과 허상과 꽃피다』(전북도립미술관, 2012); 변종필, 「채용신 초상화 연구」(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변종필, 「채용신 초상화의 리얼리티」, 『동양예술』 23(한국동양예술학회, 2013); 김진아, 「채용신筆 최익현 초상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 참조.

4) 양진희, 위의 논문, pp. 11-14.

을 통해서 대략 1910년 전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 정읍은 부안, 김제, 고부 등 한국 최대의 비옥한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고을로서 동진강을 통해 군산으로 이어지는 수로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14년에는 일제에 의해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게 되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자본이 모이고 상업이 발달하며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다.⁶⁾

정읍은 또한 호남 최초의 항일 의병운동이 발발했던 곳이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906년 최익현은 임병찬(林炳瓚) 등과 함께 태인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채용신은 이에 앞선 1905년 정산군수로 부임했을 당시 최익현의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었다. 그가 그린 4벌의 <최익현 초상화> 중 한 벌은 후에 최익현을 배향한 태인의 '태산사(泰山祠)'에 봉안되었다.⁷⁾ 채용신은 1908년 애국계몽운동단체인 호남학회에 가입하였고, 1912년에는 최익현을 배향한 태산사에 많은 의연금을 내었다.⁸⁾ 최익현과의 인연으로부터 이어져 채용신은 여러 문인들과 우국지사의 초상화를 그렸던 바는 잘 알려져 있다. 채용신이 초상화를 다수 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주의 복설 혹은 신설로 제향의식을 위한 영정의 수요가 많았던 점도 한몫 했을 것이다. 특히 최익현을 배향한 사우는 일제에 의해 훼손과 복설을 반복하면서 그의 초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요청이 여러 차례 들어왔을 것으로 파악된다.⁹⁾

채용신이 정읍에서 제작했던 가장 이른 작품은 1908~1909년에 박만환(1849~1926)의 집에 머물며 그린 《십이성현도(十二聖賢圖)》이다. 이 그림은 정읍의 영주정사(瀛州精舍) 내 영양사(瀛陽祠)에 봉안할 열두 성현의 초상화였다.¹⁰⁾ 박만환은 1849년 정읍시 고부군 소정면 현암리에서 출생하였고, 1867년 나이 17세에 충남 아산의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 선생 문하로 유학하며 송병선(宋秉璿), 전우(田愚) 등과 동문수학하고, 성균관에서도 학문 수학하였다. 통훈대부 행 의금부도사, 삼례 도찰방을 역임하다가 사임하였으며, 삼석 송병순(宋秉珣), 면암 최익현(崔益鉉), 화계헌 김직술(金直述) 등 유학자들과 종유하였다. 1903년 국권 회복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정읍에 영주정사를 세우고 1년에 300석씩 출연해 학생들의 숙식을 책임졌다. 영주정사는 간재 전우가 1903년부터 6년간 130명의 후학을 양성했고, 제자들 상당수가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박만환은 천석꾼 지주이면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자금지원을 하였으며,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에도 비밀리에 지원하였다.¹¹⁾ 한편, 그의 아들 금둔(金澍) 박승규(朴升圭)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승동학교"를 세워 부친 박만환이 유교에 기반한 영주정사를 세운 일과 대비되면서도 국권회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힘썼던 부자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신구 문화가 교차되는 격동기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여겨진다.¹²⁾

채용신이 정읍에서 제작한 고사도의 경우 태인의 오랜 향반(鄕班)이자 고현향약, 무성서원 등의 유림활동에 주축이되었던 도강김씨와 관련이 깊다. 채용신은 1910년에 태인의 김직술(金直述, 1850~1920) 집에 머물면서 <칠광도(七狂圖)>와 <송정십현도(松亭十賢圖)>를 그렸다. 김직술은 무성서원에 배향된 김약목과 김관의 후손이다. 본관은 도강(道康)인데 도강김씨는 무성서원 주변에 집성촌을 이루며 서원을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¹³⁾ 김직술은 1906년(광무 10) 최익

5) 정읍시립박물관 편, 『조선의 어진화사 석지 채용신』(정읍시립박물관, 2022), p. 71.

6) 신태인읍지 편찬위원회, 『新泰仁百年史, 1914-2014』(2014), pp. 61~84.

7) 최익현, 『勉菴集』 부록 권3, 年譜, 「을사년(1905) 선생 73세」.

8) 양진희, 앞의 논문, p. 28.

9) 양진희, 앞의 논문, pp. 26-27.

10) 정읍시립박물관 편, 위의 책(2022), pp. 71-74. 채용신이 그린 십이성현도는 현재 사진으로만 남아있다.

11) 문화재청 편, 『정읍 영주정사 및 영양사 기록화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13), p. 40. 박만환은 정읍시가 선정한 2021년 5월의 역사인물이다.

12) 문화재청 편, 위의 보고서, p. 40.

13) 김진돈, 「조선조 개국공신 김회련과 도강김씨 후손들」, 『도강김씨 동정공파 기탁유물과 조선시대 문중문

현(崔益鉉)이 일으킨 의병운동에 참여하여 재정담당을 맡아 전라북도 지역에서 군자금 모금하였고,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추모비 건립을 위한 내장산 호남유림대회(湖南儒林大會)에도 참가하였다.¹⁴⁾ 그가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김직술의 부친 김영준(金永準) 또한 “흥년이 들 때마다 창고를 열고 향민들에게 곡식을 두루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돈은 김직술이 내고 일은 김기술이 하였다”는 증언도 있어서 그의 부력(富力)을 뒷받침한다.¹⁵⁾ 김기술(金箕述)은 그의 종형제로서 태인 고현내에서 무성서원, 고현향약 등의 유림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던 인물이다.¹⁶⁾



도 3 <정읍의 채석강도화소> (현 주소: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2길 6)

채용신은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후에 익산 금마면에 공방을 운영했으나(금마산방, 金馬山房, 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5길 16-8), 1923년 무렵에는 정읍의 용북면으로 옮겨 ‘채석강도화소’를 열었다.¹⁷⁾ 정읍의 황장길(黃長吉)이 장소를 제공해주었다고 한다. 황장길은 1933년 고을의 농민 62 가구에 구휼미를 제공한 일로 신문에 난 일이 확인된다. 기사에서 그를 ‘근실한 자작농’이라고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¹⁸⁾ 현재 정읍 신태인읍에 채용신의 공방이었던 가옥이 남아있는데, 많이 변형되었고 퇴락하여 방치된 상태이지만 한 때 채용신과 그의 아들들 및 조수들이 활발한 도화 작업을 했던 곳이었다(도 2).

Ⅲ. 무성서원 <최치원 영정>의 이모와 봉안

채용신은 무성서원의 <최치원 영정>을 1924년에 이모하였다. 그가 익산 금마면에서 정읍으로 공방을 옮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채용신의 <최치원 영정> 이모본을 살펴보기에 앞서 18세기에 쌍계사에 봉안되었었던 <최치원 영정>이 무성서원으로 옮겨져 봉안되게 된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쌍계사본 <최치원 영정> 이안과 무성서원 봉안

『무성서원원지』에 따르면 일의 발단은 1783년(정조 7) 전라남도 흥양과 낙안 향교에서 태인으로 발송된 통문에서 비롯되었다. <최치원 영정>이 지리산 쌍계사에 봉안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유생들이 알게 되고, 이를 부당하게 여겨 반출해서 최치원의 먼 후손 집안으로 옮겨 봉안했다는 것이다.

화』(정읍시립박물관, 2014), p. 117.

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검색(<http://people.aks.ac.kr/>, 검색어: 김직술).

15) 『금릉세적』 2, 100면; 최현식, 정읍문화원장의 증언. 李眞榮, 「東學農民戰爭期 全羅道 泰仁 古縣內面의 反農民軍 構成과 活動—金箕述과 道康金氏를 中心으로—」, 『全羅文化論叢』 6(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3), p. 19.

16) 李眞榮, 위의 논문, p. 11.

17) 『전북도민일보』 2011년 11월 15일 기사, 「최초의 상업공방, 채용신 ‘금마산방’ 찾았다」; 양진희, 앞의 논문, p. 25.

18) 『동아일보』 1933년 1월27일, 「六十二戶에 正租를 配布」, “신태인 정읍군 용북면 육리에 거주하는 黃長吉씨는 동리 극빈한 농민 六十二戶에 지난 二十二日에 米十三石七斗를 배부하여 구제하였는데 씨는 한 근실한 자작농으로서 그가티 동정한 것이라한다.”

선생은 높은 도덕으로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선생의 영정이 나한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은 어찌 사문의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호남과 영남의 유생들이 근래 공의(公議)를 내서 궤리사(關里祠) 중수청(重修廳)의 여러 유생과 또 하동향교에 통문을 보내 쌍계사의 승려들에게 신칙하여 곧 선생의 먼 후손 집안으로 옮겨 봉안하니 사람에게 다행스럽기가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¹⁹⁾

최치원이 문묘에 배향되었던 것은 고려시대로서 1020년(현종 11) 현종은 최치원에게 내사령(內史令)을 추증하면서 문묘에 배향하도록 하였고, 1023년에 문창후(文昌侯)로 추봉하였다. 이는 최치원의 존왕적 정치이념이 고려의 국가 체제 정비 과정에 반영되는 등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²⁰⁾ 공자를 모신 사당에 배향된 유자(儒者)임에도 그 영정이 하동 쌍계사에 걸렸던 것은 최치원이 왕명으로 비문을 찬술하고 손수 글씨를 쓴 <진감선사대공탑비>가 쌍계사 경내에 있는 등의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하동향교의 유생들은 영정을 거두어 낙안에 있는 최치원의 먼 후손 최항대의 집으로 옮겨 봉안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사적으로 한 집안에서 높여 받들기 보다는 차라리 공적으로 온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낫겠다’는 사론(士論)이 모아졌고, 더구나 후손의 집안이 영락(零落)하여 영당(影堂)을 짓기도 어렵고 집안에 영정을 모실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여, 최치원의 제향을 모시는 무성서원에서 봉안할 것으로 제안하게 된 것이었다.²¹⁾

태인읍에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고, 영정을 무성서원에 봉안하기로 하며 이안(移安) 날짜를 이듬해(1784년) 음력 2월 중정일(仲丁日)로 잡았다.²²⁾ 이에 무성서원에서는 영당의 수리와 영정을 맞이하는 의식 준비로 분주하였고, 마침내 1784년 2월 영정이 낙안에서 태인으로 이안되었다. 그 과정이 「영정 봉안일기」에 상세하게 전한다(표 1).

최치원 영정을 봉안하기에 앞서 영당의 수리와 단장의 일을 김인행(金仁行)이 총괄하였다. 「중수기(重修記)」에 따르면 읍의 선비들이 한목소리로 “판을 깎아 영정 거는 자리를 마련함에 마땅히 감실 형태로 하고 화상 틀과 비단장정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또한 사우에 이끼가 끼고, 단청은 색이 바랬으니 모두 수리해야합니다”라고 하였다.²³⁾ 이에 영정을 걸 부분을 수리하고 단청을 새로 하였으며, 영정을 봉안할 감실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태인 현감 서간수(徐簡修, 1734~?)가 10냥[鎰銅]을 찬조하였고, 별칭의 돈을 덜어 내어 총 60여 민(緡)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공인을 동원하고, 채색과 비단을 장만하였다. 수리와 단청 작업은 2월 6일(임술일)에 시작되었고, 중정(仲丁) 하루 전날인 2월10일(병인일)에 영정이 도착하여 영당에 봉안하였다. 영정 봉안의 마무리 공사는 그로부터 7일 뒤인 2월17일(계유일)에 종료되었다.²⁴⁾

19) 『武城書院院誌』, 「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 번역은 박정민·권이선 옮김, 『무성서원원지』(1884) 상(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p. 84.

20) 『高麗史』 권4, 현종 11년 8월 丁亥 및 『高麗史』 권5, 현종 14년 2월 丙午. 張日圭, 「최치원 관련 유적의 분포와 승모」, 『한국사학보』 63(고려사학회, 2016), p.12에서 재인용.

21) 박정민·권이선 옮김, 앞의 책, pp. 8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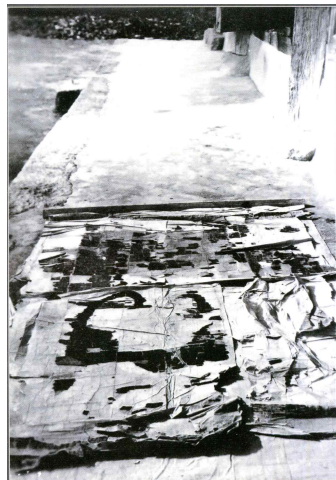
22) 박정민·권이선 옮김, 앞의 책, pp. 85-86. 한편, 천간(天干)의 일진(日辰)이 정(丁)으로 된 날을 정일(丁日)이라 하고, 중정일(仲丁日)은 그 달의 두 번째 정일(丁日)이다.

23) 『武城書院院誌』, 「院宇丹牘重修記」, “遂與邑之士 謀所以設位於先生主壁之北 咸曰斷板揭座 當如龕形畫欄錦帳可具也. 又曰祠之地衣已弊 丹牘亦渝 並可改也.”

24) 『武城書院院誌』, 「院宇丹牘重修記」, “本院殘罷 財力無以辦 我侯徐公簡修 乃先以十鎰銅助焉. 乃舉役而自院乞力於四學 又除別廳錢 貿彩買繡 煥其影像之位 而地茵之破裂者易之 丹青之黠昧者新之 至於工匠之使色土之用 亦侯之力也 本院之省費 豈小小哉 蓋以是月初六日壬戌始事 仲丁前 一日丙寅奉影畫像 後七日癸酉工訖焉 邑之人獲拜 遺像而舉皆懽欣蹈抃 俾余以記.”

표 1 <최치원 영정> 이안의 노정과 참여자(『영정 봉안일기』 참조)

일자	노정	참여자
1784년 2월 6일 입술	낙안향교 => 순천향교	태인현 배행유사 유학 김광일, 김재후 후손 최항대(낙안), 최인갑(홍양), 진사 최현대, 낙안향교 교임 신영수, 김이현 순천부사 이혜조, 순천향교 교임 김완
2월 7일 계해	순천향교 => 압록원	
2월 8일 갑자	압록원 => 곡성향교 => 옥과향교	곡성향교 교임 이유근, 유완재 이승휘 옥과 향교 교임 김치현, 서원 원임 심채진, 신치록, 김달민
2월 9일 을축	옥과향교 => 순창향교 => 심원사	순창향교 교임 한팔교, 홍낙근
2월10일 병인	심원사 => 유상대 => 무성서원	태인현 김낙윤, 송계천, 김경우 무성서원 제향 헌관 유학 김광추, 예차 박양식, 전사 최 일동, 집례 김치영, 찬인 저국교, 찬창 홍치경, 대축 송박, 봉향 박대식, 봉로 송훈, 전작 김현탁, 척기 안계창, 망예 김기일



도 4 <최치원 영정>(쌍계사본) 사진(1960년대 촬영/ 사진 출처: 손상국, p. 133)



도 5 미상, <최치원 초상화>, 1831년, 견본채색, 117.8×76.5cm, 국립중앙박물관(복원 전) 사진 출처: 손상국, p. 127)

쌍계사에 봉안되었다가 무성서원으로 이안된 <최치원 영정>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 다만, 1960년대 후반 문화재조사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도 5).²⁵⁾ 두 손의 위치와 신을 놓은 답대(踏臺) 정도를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는 현존하는 1831년의 <최치원 영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도상이어서 1831년 이 모본이 쌍계사본을 충실히 모사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25) 이에 대해서는 손상국, 『최치원을 추억하다』(신아출판사, 2016), pp. 109-134.

2. 1831년의 <최치원 영정> 이모

1831년에 무성서원에서 이모본 제작을 하게 된 배경은 『무성서원원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825년(순조 25) 4월에 강당에 화재가 발생하여 현판과 상량문이 불에 탔다. 현감 서호순의 재정적 지원으로 1828년에 건물 수리를 마칠 수 있었는데, 이후 4년이 지난 1831년에 최치원 영정을 개모했다는 것이다.²⁶⁾ 1825년의 강당 화재로 인한 영정의 피해는 전혀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소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고 이에 새로운 영정의 제작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강당 「중수기」의 말미에 영정 개모 사실을 함께 기록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²⁷⁾



도 6 미상, <최치원 초상화>, 도 7 채용신, <최치원 초상화>, 도 8 쾌윤·복찬, <제3세 1831년, 견본채색, 117.8×76.5 1924년, 견본채색, 113×79cm, 청진국사>, 송광사십육조사 정읍시립박물관 진영, 1780년, 134.8×77.4 cm, 송광사

1831년본 <최치원 초상화>(도 7)는 머리에 치관(多冠)이라 불리는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었으며 옥색 각대를 두르고 의자에 앉은 좌안7분면의 전신상이다. 이처럼 의관은 당제(唐制)를 따른 관복 차림이지만 인물의 자세와 기물 및 지물은 고승 진영에 가깝다.²⁸⁾ 즉, 두 다리는 의자 위에서 가부좌를 했으며 답대(踏臺) 위에 신을 벗어 놓았고 손에는 불자(拂子)를 들고 있는 도상은 불교 승려의 진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송광사 십육조사진영은 1780년에 열여섯 폭의 진영이 일괄 제작된 것인데 이 가운데 <제3세 청진국사> 진영과 <제13세 각암국사> 진영에서 동일한 도상을 볼 수 있다(도 9). 1831년본 <최치원 영정>에서 최치원이 앉은 의자도 불가(佛家)의 고승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착용하고 있는 복식을 제외하면 모두 불교적인 특색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31년 당시 쌍계사본 영정을 모본(母本)으로 충실히 이모했던 것일 것으로 짐작된다.

26) 박정민·권이선 옮김, 『무성서원원지』(1884) 상, pp.93-94; 손상국, 『최치원을 추억하다, 고현내 사람들과 최치원 영정이야기』(신아출판사, 2016), pp. 81-84.

27) 손상국, 위의 책, p. 81.

28) 조선미, 「조선왕조 시대의 초상화 연구」(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80), p. 14.

3. 채용신의 <최치원 영정> 이모(1924)

이로부터 100년 가까이 흐른 1924년에 채용신이 다시 <최치원 영정>을 이모하였다. 채용신의 <최치원 영정> 배면에는 “一千〇十五萬五千八百四十一年甲子十月上漸從二品蔡石芝八十翁移摹寫”라는 관지가 있어 채용신이 초상화를 제작 완료한 것은 1924년 10월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채용신의 <최치원 영정>이 서원에 봉안된 것은 이듬해 2월이었다. 『무성서원지』(1936년刊)에 따르면 “1925년(을축) 2월 18일 진시에 원태인 용복면 장군리 채정산 집에서 출발하여 사시에 신태인역에 도착하였고 오시에 태인향교에서 점심을 한 후 해질 무렵 본 서원에 도착해 봉안제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⁹⁾ 여기서 언급된 주소지 ‘원태인 용복면 장군리’는 바로 채용신의 정읍 공방인 채석강도화소가 있던 곳이다. <최치원 영정>은 채용신의 채석강도화소에서 신태인역과 태인향교를 거쳐 무성서원으로 옮겨져 봉안되었던 것이다. 봉안제 때 올린 축문의 내용을 통해 초상화를 이모했던 배경도 살필 수 있다.

我東開學 우리 동방의 학문이
肇自降庚 선생에게서 시작되었으니
羅邦維新 신라가 일신하여
河運一淸 문명을 열어주었네
位配文廟 위패는 문묘에 배향되고
德觀武城 덕은 무성에서 볼 수 있는데
眞肖厥像 영정의 모습을 닮게 그렸으니
憑依精靈 정령이 깃들었다네
光陰滋久 세월이 오래 흘러
塵煤俱縈 더께가 내려앉았는데
影習移寫 영정을 옮겨 모사하니
儼然既成 엄연히 위엄이 완성되었네
歲周乙丑 해는 을축년이요
春殷仲丁 날은 2월 중정일이니
禮奉其宜 예에 맞게 봉안하고
式薦是明 정결한 제사를 올린다네³⁰⁾

「봉안제 축문」 중의 ‘세월이 오래 흘러 더께가 내려앉았는데, 영정을 옮겨 모사하니 엄연히 위엄이 완성되었네[光陰滋久 塵煤俱縈 影習移寫 儼然既成]’라는 구절이 오랜 세월로 인한 오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복원수리 이전의 1831년본 <최치원 영정> 사진을 보면 화폭이 갈라지고 찢어져 상당한 손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 6).

채용신의 <최치원 영정>을 서원에 봉안한 후 무성서원 후학들은 각기 추모시를 지어 이 일을 기렸는데 그 인원이 230명에 가까웠다.³¹⁾ 이들이 쓴 추모시 중에 “엄숙한 초상 환하게 새로워지자, 원우는 수리한 곳마다 깔끔해서 먼지 없다오[儼然肅像煥然新 院宇隨修淨絕塵]”라든지 “열흘을

29) 『武城書院誌』권1, 「孤雲先生影幀改模奉安事實」, “乙丑二月十八日辰時 自元泰仁龍北面將軍里蔡定山家發行 巳時新泰仁驛陪到 午時泰仁鄉校中火 日晡抵本院 行奉安祭.”번역은 김건우·서정화·홍성덕 역, 『(국역) 무성서원지』1(정읍시·무성서원·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1), p. 66.

30) 위의 책 1권, 「奉安祭祝文」, pp. 66-67.

31) 『武城書院誌』권2 上,

공사해서 이날 새로워졌으니, 표연한 한 누각에 따로 먼지 없도다[十日經營此日新 飄然一閣別無塵]”라는 구절을 통해서 새로운 초상화의 봉안과 함께 영당의 수리도 이루어졌고, 그 공사가 열흘 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정을 봉안하는 날 아침에는 비도 내려서 하늘이 원우와 마당을 깨끗이 청소해주었다고 한다.³²⁾

채용신 초상화는 세밀한 육리문(肉理紋)을 구사하여 안면의 입체감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최치원 영정>에서는 육리문의 표현이 전혀 없다. 이는 모본(母本)인 1831년 영정을 충실히 이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IV. 채용신의 도강김씨 수응화(酬應畵)

채용신의 정읍에서의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직술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린 <칠광도>와 <송정십현도>이다. 김직술의 가문인 도강김씨(道康金氏)는 고현향약을 창립한 오성(五姓) 가운데 하나였고, 태산사를 무성서원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무성서원의 운영과 관리에 주축이 되었다.³³⁾ 특히 과거·관직 진출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17세기 후반 고현향약과 무성서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³⁴⁾

<칠광도>(도 8)는 1613년의 계축옥사에 반발하여 고현내에 은거한 7인의 고사를 주제로 한 그림이다. 7인은 김대립(金大立), 김응빈(金應賓), 이탁(李倬), 이상형(李尙馨), 김감(金堪), 송치중(宋致中), 송민고(宋民古)이다. 조선 중기의 문인화가로 이름난 송민고(宋民古, 1592~1664)가 그 일 원으로서 그가 17세기에 그린 <칠광도>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를 토대로 채용신이 다시 그린 것이다. 채용신의 <칠광도>는 1910년 당시의 고현내의 경관을 충실히 담은 그림으로서 화면 상단의 언덕인 성황산과 그 기슭에 자리한 무성서원의 모습이 보이고(도 9), 우측 상단에는 송정을 중심으로 7인의 은자들이 자리한 모습이 눈에 띈다.³⁵⁾ <송정십현도>(도 10)는 광해군 시절 인목대비 유폐 등 어지러운 시국을 개탄하며 낙향하여 초탈한 삶을 살았던 10인의 태인 선비들이 송정에 모인 모습을 그린 일종의 계획도이다. 십현은 김응빈(金應賓), 김관(金灌), 김감(金堪), 김정(金潾), 김급(金汲), 송치중(宋致中), 송민고(宋民古), 김우직(金友直), 이탁(李倬), 양몽우(梁夢禹)이다.³⁶⁾

이에 앞선 1899년(고종 3) 도강김씨를 중심으로 이 지역 양반사족들은 십현을 추모하기 위해 고송정(古松亭) 옆에 후송정(後松亭)이라는 또 다른 정자를 건립하였다. 후송정 건립과 이후에 이어진 고송정의 중수(1926), 어진화사로 이름난 채용신에게 <칠광도>와 <송정십현도> 그림을 의뢰

32) 『武城書院誌』권2 上, 「孤雲崔先生影幀 改模奉安後追慕詩」, 강창희(姜昌熙) 및 최성철(崔成澈)의 시; 김건우·서정화·홍성덕 역, 앞의 책, p. 224 및 p. 215. 이 외에도 김철오(金喆五)의 시에 “원우 거듭 수리하고 영정 새롭게 고쳐 그렸으니, 완연한 기상이 옛 먼지 쓸어냈다오[院宇重修改模新 宛然氣像掃前塵]” 등 여러 시에서 볼 수 있다. 같은 책, p. 224.

33) 오성(五姓)은 영광 정씨(靈光丁氏), 여산 송씨(礪山宋氏), 경주 정씨(慶州鄭氏), 청도 김씨(淸道金氏), 도강 김씨(道康金氏)이다.

34) 도강김씨의 시조 김희조(金希祖)는 신라 경순왕의 후손으로 고려조에 문하시중을 지내고 도강백(道康伯)에 봉해져 후손들이 도강을 본관으로 삼았다. 정읍시립박물관 편, 『도강김씨 동정공파 기탁유물과 조선시대 문중문화』, pp. 8-48.

35) <칠광도>에 대해서는 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 칠광도를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189(한국사연구회, 2020), pp. 189-226; 양진희, 앞의 논문, pp. 95-96 참조.

36) 양진희, 앞의 논문, pp. 94-95. 송정의 건립에 대해서는尹熙勉, 「朝鮮 後期 兩班士族의 鄉村支配 -全北 井邑의 松亭, 後松亭의 建立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5(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7), p. 156.

한 일 등은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흐트러진 향촌 질서를 양반사족의 결속을 통하여 다시 확립해 보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해석되고 있다.³⁷⁾ 그러나 구한말 일제의 침탈이 노골화되던 어지러운 시국이 삼백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선현(先賢)들이 겪었던 상황과 중첩되며 그들의 우국충정을 기리고 현재에 되살리고자 한 염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어진화사로 이름난 채용신으로 하여금 회화 작품으로 풀어내도록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읍이 우국 열사들이 뜻을 모을 수 있는 향일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도 9 채용신, <칠광도>, 1910년, 127.7×83.4cm, 정읍시립박물관



도 10 <도 2>의 무성서원 부분



도 11 채용신, <송정십현도>, 1910년, 119.0×83.4cm, 정읍시립박물관

도강김씨 문중 우국충절의 고사화 중에는 <김영상투수도(金永相投水圖)>(도 11)가 있다. 김영상은 일본이 회유책으로 지식인층에게 주는 은사금을 거절하고 군산형무소로 이송 중 만경강에 투신하여 항일의지를 드러냈던 인물이다.³⁸⁾ 이 그림에는 '壬戌孟冬上澣 金馬山房 前府使從二品石芝寫'라는 관지가 있어 1922년 채용신이 금마의 공방에서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채용신이 호남의 인물을 담은 초상화를 다수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전시와 연구가 있어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정읍 및 무성서원과 관련이 있는 인물의 초상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강 김씨 초상화로 김직술과 김기술, 김한규의 초상화가 있다. 이들 초상화는 1911년 작으로서 채용신이 김직술의 집에 머물며 <칠광도>와 <송정십현도>를 그릴 때 함께 제작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도강 김씨 문중의 김도연(金道彦, 1684~1735)과 김태흠(1857~1929) 초상도 있다.

<김기술 초상>(도 12)과 <김직술 초상>(도 13)은 반신상이며, 김기술은 정자관에 심의를, 김직술은 정자관에 옥빛이 도는 도포를 걸치고 있다. <김기술 초상>에는 우측상단에 '국헌 육십삼세상(菊軒 六十三歲像)'라 썼고, 최익현의 창의시(倡義詩) 칠언절구, 그리고 '면암선생찬증(勉菴先生讚贈)'이라 썼다.

김기술은 1903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해 호남의 유림들이 복수를 맹세한 호남유림대회에서 태인 지역의 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병오창의에 참여하여 최익현과 함께 체포되어 일본군에 넘겨졌다. 1912년 임병찬이 고종으로부터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항일 운동을 펼

37) 尹熙勉, 위의 논문, pp. 155-173.

38) 이태호, 앞의 논문, pp. 97-99; 정성범, 앞의 논문, p. 56; 양진희, 앞의 논문, p. 98.

치라는 밀명을 받고 그 조직에 착수하였는데 김기술도 이에 가담하였다.³⁹⁾



도 12 채용신, <김영상투수도>, 1922년, 74.5×50cm, 개인소장



도 13 채용신, <김기술 초상>, 1911년, 71×50.5cm, 개인 소장



도 14 채용신, <김직술 초상>, 1911년, 60×131cm, 개인소장

채용신은 김직술의 아들 김환규(金煥圭)의 초상도 그렸다. 우측에 ‘성균관학사 호 경재(敬齋) 42세 상’이라 적었다. <김환규 초상>(도 14)은 전신좌상으로서 무릎을 꿇고 앉은 궤좌(跪坐)상이다. 정자관을 쓰고 옥빛이 도는 심의를 착용하였다. 두 손을 드러내지 않고 소매 속에 감춘 채 두 무릎에 올리고 있다.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려있다. 채용신은 초상화에서 두 손을 드러내고 지물을 쥐고 있는 모습을 주로 그렸지만, 이 초상화에서는 두 손을 드러내지 않은 모습이다. 얼굴에는 미세한 붓질을 무수히 가하여 육리문을 표현하였고 붓질의 소밀(疏密)으로써 음영을 나타내어 입체감과 사실감을 높였다. 인물의 배경에도 채색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5 채용신, <김환규 초상>, 1911년, 72×148cm, 개인소장



도 16 채용신, <김태홍 초상>, 61×100.5cm, 개인 소장

39) 이진영, 앞의 논문, pp. 44-49; 정읍시립박물관 편, 앞의 책, p. 89.

V. 맺음말

채용신은 1905년 정산군수를 마지막으로 관직을 마치면서 익산의 금마에 공방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화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908년 무렵부터 이미 정읍과 인연을 맺고 왕래하며 회화 활동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읍이 비옥한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고을이자, 동진강을 통해 군산으로 이어지는 수로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14년에는 일제에 의해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게 된 교통의 요로로서 재부가 모이는 곳이었다는 점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호남지역 항일 의병운동의 중심이자 많은 우국지사들의 활동지였으며, 무성서원과 여러 사우의 신설 및 복설로 제향의식을 위한 영정의 수요가 많았던 점 등에서 채용신이 정읍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무성서원은 신라말 태산태수로 부임한 최치원과 조선 초 부임한 신잠, 그리고 향리의 선비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을 배향한 곳으로서 숙종연간에 사액서원이 되었고,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에도 존치되었던 유서 깊은 서원이다. 18세기 말부터 <최치원 영정>을 봉안하게 되면서 두 차례의 이모본 제작이 있었는데 1924년에는 채용신이 영정의 이모를 맡았다. 또한 정읍 태인의 향반으로서 무성서원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도강김씨의 의뢰로 제작하였던 고사화와 초상화를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경주박물관, 『고운최치원』, 국립경주박물관, 2012.

김건우 외, 『(국역) 무성서원지』, 정읍시·무성서원·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1 (1936년본 번역)

박정민·권이선 옮김, 『무성서원원지』(1884) 상·하,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1.

손상국, 『최치원을 추억하다』, 신아출판사, 2016.

이두희, 이충구 공역, 『석지 채용신 실기』, 국학자료원, 2004.

정읍시립박물관, 『(정읍시립박물관 제7회 특별기획전) 도강김씨 동정공파 기탁유물과 조선시대 문중문화』, 정읍시립박물관, 2014.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形과 影의 예술』, 돌베개, 2009.

<논문>

권이선 박정민, 「무성서원지의 체제와 특징 -1884년본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37, 강원사학회, 2021.

권혜은, 「석지 채용신의 호남지역에서의 활동과 작품」, 『조선시대 회화의 교류와 소통』사회평론, 2014.

김정식·김재식·김정문, 「칠광도(七狂圖)에 표현된 경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4,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08.

김지민, 「최치원 영정의 형성과 전파: 최치원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6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김진아, 「蔡龍臣筆 崔益鉉 肖像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

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 칠광도를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189, 한국사연구회, 2020.

박정민,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활용방안」, 『인문과학연구』 6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배영일, 「진영으로 본 최치원」,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 2, 고운 최치원』, 국립경주박물관, 2012.

변종필, 「채용신의 초상화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변종필, 「채용신 초상화의 리얼리티」, 『동양예술』 23, 한국동양예술학회, 2013.

양진희, 「石芝 蔡龍臣의 繪畵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석사학위논문, 2019.

이영숙, 「채용신의 초상화」, 목포대학교 편, 『배종무총장퇴임기념 사학논총』, 목포대학교, 1994.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武城書院의 건립과 운영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5, 한국국학진흥원, 2018.

장일규, 「최치원 관련 유적의 분포와 숭모」, 『韓國史學報』 63, 2016.

장일규, 「조선시대 최치원 추숭과 그 특징」, 『新羅史學報』 55, 신라사학회, 2022.

전인지, 「석지 채용신(1850-1941) 고: 생애와 작품에 보이는 근대성을 중심으로」, 『고고학지』 17, 2011.

정석범, 채용신 회화의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4

정석범, 「채용신 초상화의 형성배경과 양식적 전개」, 『미술사연구』 13, 미술사연구회, 1999.

조은정, 「채용신 유림 초상의 인물과 사상에 대한 연구」, 『인물미술사학』 2, 인물미술사학회,

- 2006.
- 조은정, 「거울과 사진, 한국 근대초상화의 닮음과 진실」, 『인물미술사학』 7, 인물미술사학회, 2011.
- 최석규, 「고운 최치원선생 영정(影幀) 현황조사」, 『慶州文化論叢』제18집, 2015.
- 최현욱·곽홍인·신용비, 「비파괴 분석을 통한 최치원 진영(崔致遠 眞影)의 도상 및 채색재료 연구」, 『보존과학』 24, 국립중앙박물관, 2020.
- 한정호, 「최치원 영정 연구」, 『한국지역문학연구』 5-2, 한국지역문학회, 2016.
- 허영환, 석지 채용신 연구, 남사 정재각사고희기념 동양학논총, 1984
- 허영환, 석지 채용신 연구, 석지 채용신, 국립현대미술관, 삶과 꿈, 2001

토론문 04

채용신의 작품세계와 무성서원에 대한 토론문

토론 강영주(문화재청)

